



11-12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제일강산

김정일

봄산에 진달래

여름산엔 하얀 밤꽃

한창 꽃계절이 그만이더니

단풍이 불타는 가을은 더 좋아

산은 산마다 울긋불긋

골은 골마다 맑은 물소리

푸른 하늘 떴지어 나는 산새도

이 강산이 하좋아 노래하는가

내 나라는 어디 가나 절승경개라
사람들 자랑높이 안고사는 금수강산
천하의 아름다움 여기 다 모여
세상에 다시 없는 제일강산아

수려한 이 절경이 자연의 조화더냐
로동당의 해빛이 하도 따듯해
인민의 기쁨은 일만단풍에 어리고
누리는 행복은 산상끝에 닿았구나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11-12호

(루게 565~566)



◆◆◆◆◆◆◆◆◆◆ 차 례 ◆◆◆◆◆◆◆◆◆◆

수령님 또 왔습니다	5
그 마음 만풍년 가꾸었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적작품창작의 근본담보.....	6
나는 사나죽으나 그이의 전사	10
고백합니다(외 1 편).....	11
주체사상탑과 말하노라.....	13
명언	14
비료산이 보이는 언덕우에서.....	14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15
위인 김정일	16
명제해설	17
믿음	18
백두산 대문소리	20
특별렬차의 기적소리	21
주체문학의 높은 사상에술적질을 튼튼히 담보하는 강령적문헌.....	28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31

조국의 천만년 세월에	32
영생의 언덕에서	33
어머님앞에	38
조선의 힘	39
늘어나는 이름	40
봄씨앗	41
답사의 길 걸으며 (외 1 편)	50
당과 함께 영원히	51
혁명전사들의 값높은 삶에 대한 예술적화폭	52
잊지 못할 12 월 14 일	57
사랑과 충고	58
영원한 추억	59
옛 사람을 다시 깨워	62
산주폭포	63
용해공들(1)(외 3 편)	64
우리 그때 무슨 말을 했던가	65
나는 시를 쓴다	66
동창생	67
숲속에 눈 내릴 때 (외 1 편)	78
어머니의 모습은... ..	79
《대통령》 하나	79
력사의 해 1994 년이여!	80

수령님 또 왔습니다

류동호

뵈옵고싶어
다시 뵈옵고싶어
수령님
어제도 오른 만수대 언덕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다시 또 왔습니다

수령님 이 땅에 아니계신다고
아니계신다고 믿지 않는 마음들이
낮에 밤을 이어 물결쳐흐르는 이 언덕
언제나 여기로 오르는 이 마음입니다

심장의 오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을 뻔
울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김정일 동지가 있지 않느냐고
찢어지는듯 아픈 가슴을 달래주시던
아버이수령님

슬픔과 아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용솟는 가슴에 위훈을 안고온 오늘엔
정말 장하다고

가사

김정일 장군을 그렇게 받들어야 한다고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수령님

일을 해도
생활을 해도
수령님 뜻으로만 숨쉬며 사는 우리
그리워 찾아오고
뵈고싶어 찾아오고
이 만수대는 비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시련의 높은 령이 막아서고
힘한 진펄길이 가로막혀도
그 언제나 수령님 계시는 이 언덕을 우러러
손들어 가리키신 그 길로만 가려니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수령님과 인민이 나누는 그 이야기속에
수령님은 영원히
영생의 모습으로 서계십니다

그 마음 만풍년 가꾸었네

안근배

깊은 밤 꿈결에도 잊지 않았네
농장별 오갈 때도 잊지 않았네
풍년들면 또다시 오시겠다고
수령님 사랑 담아 하신 그 말씀
아 아버지수령님 다시 뵈고픈
간절한 우리 마음 만풍년 가꿨네

다시 뵈을 그날 그러 씨앗 뿌리고
다시 뵈을 기쁨 안고 정성 다했네
농장별에 풍년도 자라날 때면

기다리는 마음도 함께 자랐네
아 아버지수령님 다시 뵈고픈
간절한 우리 마음 만풍년 가꿨네

풍년든 농장별아 말하여다오
이 별가득 넘쳐나는 수령님 사랑
마음속에 언제나 새기여안고
천년만년 만풍년 가꿔가리라
아 아버지수령님 다시 뵈고픈
간절한 우리 마음 만풍년 가꿨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적작품창작의 근본담보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30돐을 맞으며-

홍석중

우리 작가들은 만고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주체의 광휘로운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한 가장 비통한 슬픔을 힘과 용기, 투지로 바꾸어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11월 7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만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과 그의 창조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창작에서 나서는 미학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의 주제방향과 대작창작에 관한 문학예술작품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 그 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혁명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

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싸워주고 혁명가로 키워나가는데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 혁명적문예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우리 당의 첫째가는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전략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문학예술창작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반부인민들의 투쟁뿐만아니라 남반부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그려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또한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며 우리 음악을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체험에 대한 문제 등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던 뜻깊은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긍지높이 회고하게 된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시며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향도의 빛발아래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게 되였으며 70년대에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80년대의 전면적인 발전을 거쳐 20세기 마지막년대인 90년대를 빛내이며 더욱 승승장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과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어 문학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성황당》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겨져 주체문학예술의 본보기가 마련됨으로써 그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리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 튼튼히 뿌리박고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되였으

며 주체의 인간학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높이 우리러모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의 형상창조를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기본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비롯한 수령형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는 인류문예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항일혁명투쟁을 비롯하여 해방후의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대작들을 적극 창작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그 기간에 시대가 배출한 영웅,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전형들을 훌륭히 창조하여왔다.

특히 지난 30년동안 우리 소설문학은 두차례에 걸치는 장중편소설 《생명수》, 《새봄》, 《평양시간》, 《뜨거운 심장》, 《너당원》, 《환희》, 력사물소설 《임진의 풍운아》, 조국통일주체소설 《개이지 않는 하늘》, 아동중편소설 《1학년생》, 《순천소녀》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또한 시가문학분야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방향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를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으며 가요 《우리의 신념은 하나》,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최근에 창작된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 《우리의 **김정일**동지》, 《너를 보며 생각하네》 등 많은 송가작품이 창작되었다.

이 모든 작품들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변혁으로 수놓아진 30년의 로정을 돌이켜보는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더욱 높이 받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로정에서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작가들이 공산주의 미래에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 방법을 창시하시였다.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전진하는 우리 문학과 작가대오와 함께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주체문학의 휘황한 전도는 오늘의 우리 작가들과 미래의 작가들이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끝까지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모든 작가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것은 수령님의 령전에 굳게 다진 혁명적문예전사의 맹세를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가장 성스러운 사업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애도기간에 깨긏한 량심과 의리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천세만세 더더욱 빛내어나갈것을 굳게 맹세다지였다.

우리는 충성으로 불타는 심장이 고동을 멈출 때까지 그 철석같은 맹세를 절대로 버릴수 없다.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문학예술이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 공세와 도전을 짓부시면서 주체문학을 건설하고있다.

우리가 적들의 반혁명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혁명적인 공세로 짓부시면서 우리 식 문학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힘은 수령의 혁명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작가들의 정치사상적준비와 각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그 어떤 바람이 몰아쳐와도 무서울것이 없고 그 어떤 어려운 요새도 점령 못할것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나래치는곳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고 우리 시대를 뜨겁게 긍정하고 옹호하는 시대정신이 맥박치게 되며 놀라운 창작적 혁신과 기적이 창조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구호를 관철하는것이 주체적문예사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문학의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담보하는데서 결정적고리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작가들이 수령님께서 기록하여놓으신 문학예술업적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시여 그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자주시대문학의 찬란한 앞길을 밝혀주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기록하신 가장 큰 문학예술업적으로 된다.

우리는 주체문학예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기록하여놓으신 모든 사상리론적재부들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생전에 집필하신 수많은 문예로작들은 주체적문예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였는 혁명적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의 교과서이다.

모든 작가들은 주체적문예사상의 총서인 **《사회주의문학예술론》**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더욱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예술부문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학습하여 거기에 정통하며 오직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이 가르쳐주는대로만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해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을 자주시대문학예술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어나가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리론은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의 전면적계승이며 심화발전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든 사상리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자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이다.

모든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리론을 심도있게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그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부들을 지침으로 삼고 주체문학 건설과 창작을 다그쳐야 한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최근년간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비롯하여 문학예술부문 로작들을 자자구구 따져가면서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의도하시고 바라시던 문제가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관철하여야 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가장 첫째가는 임무는 수령형상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하고 위대한 모습을 더 생동하고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이 영원히 간직되어있도록 하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위인의 훌륭한 모습을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작가들과 인민들,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고 희망의 상징이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에 모든 창작적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주체위업의 찬란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모두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모셔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은 우리 주체문학의 영원한 종자이고 대명제이며 우리 작가들의 필생의 좌우명이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수령형상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를 훌륭히 개척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시대와 혁명과 우리 인민이 우리 작가들에게 부과하고있는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임무이다. 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는 작가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높이 받들고 관철해나가는 참다운 당의 작가, 수령의 작가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새 세대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킬수 있는 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것을 사회주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계신다. 특히 청소년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

학작품을 더 훌륭히, 활발히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고계신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지키고 완성해나가도록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드는 길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관철하는 길이다. 우리 작가들은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이 주제의 작품들을 더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기세 또한 전례없이 드높아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욱 다양하고 활기있게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는데 문학으로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당과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도 우리 문학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원만히 따라서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심려하시면서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바라고계신다. 우리는 모든 창작적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기울여 문학작품의 형상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앞두고 진행되는 문학축전을 잘 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진행되는 문학축전은 모든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 기념비적인 대작을 창작하여 주체문학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축제이며 주체문학운동의 전례없는 양양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모든 작가들은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문학축전에 자기 창작계렬에서 특별히 뛰어난 문제작을 가지고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류문학예술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를 영예롭게 개척해나가야 한다.

주체문학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위대한

우리의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작가, 예술인들이 늘 로동자, 농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 줄 아는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으로 준비되어야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의 숭고한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공산주의적풍모를 배우며 그 과정에 체득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을 문학형상으로 훌륭히 재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들의 창작적 재능과 열정도 현실에 대한 뜨겁고 열렬하며 깊이있는 체험을 통해서 꽃피나고 불란다고 하시면서 현실체험을 잘할데 대하여 늘 간곡하게 가르치고계신다.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을 실속있게 체험하는 여기에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모든 작가들은 적들의 온갖 압력과 발악적인 침략책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는 우리의 격동적인 현실,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력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장엄한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탁상문학의 때를 철저히 가셔버리고 진실로 혁명적이고 사상정서적감화력이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문학부문에 주신 유훈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작품을 써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먼후날에 가서 단두대에 올라서는한이 있어도 이 작품은 내가 로동당시대를 칭송하여 쓴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도록 그러한 신념과 량심을 가지고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고계신다. 의무감에 못이겨 작품을 쓰는 작가는 당의 작가가 아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적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심장으로 창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작품들에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와 같은 신념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의 기치가 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주체문학의 앞길은 보다 더 휘황찬란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나는 사나죽으나 그이의 전사

유성옥

내 길을 갈 때나
근무의 한밤을 지낼 때나
그 언제 어디서나
군복입은 이 가슴에 넘쳐나는
심장의 말이 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나는 그이의 전사!

그래서
하나의 물방울같은
이 작은 존재도
거창한 대하의 물결이 된듯
가슴은 궁지로 설레고
세상에 내 다시 태어난듯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신심으로
온몸엔 힘이 솟구치나니

백두가 낳은 세기의 위인
만민이 떠받든 절세의 명장을
진두에 높이 모신 전사
아, 나는 얼마나 복받은
이 시대의 행운아
천만전사중의 하나인가!

소란한 이 지구우에
오직 하나뿐인
충효일심의 강대한 나라
화목한 인민의 대가정 이루시고
수천만 아들딸들 한품에 거느리신
친근한 아버지
민족의 령수!

온 우주를 보살피시고
세인을 이끄시며
한순간의 안식도 없이
바쁜 날을 보내시는 그이

크게 한일도 없는
저희들도 친히 만나시여
따뜻이 일깨워주시고
이름없는 평범한 이 전사

나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신
그날의 그이 손길의 부드러운 그 온기
지금도 내 가슴 더웁혀주며
삶의 영원한 불씨로 타고른다

한없는 인간애와 미덕으로
충신의 철의 대오 마련하시고
빛나는 예지의 그 손길로
이 땅을 쓰다듬어
흐르는 한줄기 이름없는 강물
높고낮은 산봉우리들도
불멸의 요새로 다져주신분

이 세상 누구도 지니지 못한
령활무쌍한 지략
불굴의 의지와 담력이 실린
무자비한 타격으로
침략의 불구름을 다 막아내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력
만천하에 펼쳐주신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그이는
내 인생의 은인이시며
둘도없는 목숨!
그이는 우리 투쟁의 붉은기이시며
좌절을 모르는 사회주의!
백전백승의 화신!

로속하고 세련된
군사의 대가
위대하신 명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는 천하대적도 두렵지 않고
배심은 든든해
준엄한 반제반미전선의 제1제대
사회주의보루우에 굳건히 서있다

그래서 날마다
궁지로 뛴뛰는 내 심장의 웨침소리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나는 그이의 전사!

그 누가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들어앉은
이 신념의 산악을 허물수 있으랴
제아무리 사나운
역풍의 소용돌이에도
내 틀어진 총대는 흔들림없고
그이의 전사로
혈전의 전호가에 쓰러진대도
한이 없으리니

오, 달리야 내 어이 살라

나는 사나죽으나 그이의 전사!
엎어봐도 눕혀봐도
언제나 한본새로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 되어
내 영원히

그이와 운명을 같이하리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사의 도리를 다하리라!

(1993.12.22)

고백합니다 외 1편

리 석

1

고백합니다
서른해전
그때엔
아는것보다 모르는게 더 많았고
할일에 앞서 근심이 더 컸습니다

글쎄 엄숙한 눈빛들이
주먹을 높이 들어 저를 당세포비서로 내세운 날
한 일군이 웃음지으며 할수 있지? 할 때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세포비서!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까!
어머니란 말과 같기에 -
어머니구실을 한다는 뜻과 같기에 -

그 일이란
솔직히
천리격랑을 넘고 험한 산밭을 넘는 일보다
더 어려운것이였음을 고백합니다

2

고백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말밥에 많지도 올랐습니다
방법이 거치르다고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지는 강변길을 나란히 걸으며
따뜻한 한마디면 될걸
공연히 큰소리로
한 너당원의 아픈데를 찌르기도 했고

비새는 처마를 막는 주인의 손에
제손이 한번 가닿으면 될걸
출근이 늦다고 로쇠가 왔다고
팬히 로당원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덜어놓고
《돌격구령》만 내리기도 했고
당조직의 《날》을 세운다며
저도 모르게 당세도를 쓰기도 했거니

전 몰랐습니다
그날에 당세포비서인 내자신이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라
집밖의 외토리가 되는줄

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고 불씨가 되는게 아니라
길가의 덧없는 나그네가 되고
강건너 점점 멀어지는 반디불이 되는줄...

3

어머니를 낳은 어머니는
은인중의 은인일겁니다
어머니를 키운 어머니는
한없이 위대할겁니다

당세포비서가 어머니라면
저를 낳은분
저를 키운분은
김정일! 사랑하는 그이 아니십니까!

그 품에서
세포비서라는 무거운 의무를 지냈고
그 자양을 받으며
당일군의 모양으로 가꾸어졌나니

사람과의 사업방법을 배워주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익혀준
그 손길로
저는 눈을 떴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다 살펴준
그 고마운 햇빛으로
저는 철이 들었습니다

제 한 일 무슨 큰거라고
당보에도 실어준 자애로운 사랑이여!
제 쓴 시가 무어라고
시집에도 실어준 어머니의 은혜여!

정녕 어머니중의 어머니시여
그 사랑 아니라면
아홉식술이나 겨우 건사하던 제가
천여명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질수 있었겠습니까

내 지나온 나날들과 년대들을 돌아보니
빈자리도 많았건만
그 빈자리를 자국자국 메워주신 그 은혜
나의 운명 나의 성장은
어머니를 잘 만나 오늘처럼 값높은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만나 영원토록 빛이 날것입니다

꿈에도
불러보며 찾고찾는
어머니

나의 유일한 은사인 지도자동지이시여
고백합니다
그 햇빛, 그 공기, 그 숨결
그것이 나의 몸에 맞고
그것이 또한 나의 넋에 제일임을

고백합니다
그 손길따라 걸어온 서른해
그것은 어머니의 자욱따라
숫된 아이마냥 정히 짝어온 삶의 흔적이었음을!

하지만 어찌합니까
고마운 어머니시여
안으신 뜻과 예지, 고매한 인덕...
그것을 미처 따르지 못하는 이 불효함을!

깨우치며 매를 들며
충성과 효성을 다지는 마음
그 손길 따라가는 인생의 먼길에
끝추 가자, 빨리 가자 심장의 맹세 불타거나

믿으시라, 어머니시여
옆을 쳐도 앞을 쳐도 한모습
꺼꾸로 매달아도 한목소리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전사가 되리라는것을!

첫 세포보고서

아직도 나에게는
첫 당세포비서로 일할 때
처음으로 썼던 보고서가 있다
서른해전에 썼던 그 보고서가

전연초소에서 제대된 나에게
당조직이 처음으로 준 임무
비록 문장은 서툴고
글씨는 삐뚤빼뚤 곱지 못해도
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하다

생각하면 글 한자한자 문장 하나하나 만드는것
왜 그때에는
그렇게 어려웠던가
세포당원들이 당에 바친 그 마음을
그 한자한자에
어찌 다 담을수 있었으랴

입에 문 담배 다 타는것도 몰랐고
합숙창가에서 기대결에서

아침노을 맞던 일은
그 얼마이더냐

한당원을 생각하며
걷고걸은 밤길은 얼마였으랴
이슬에 젖은 의자에 앉아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밤은 또 얼마이더냐

지금 생각하면 크지 않은 보고서
세포당원들이 당앞에 바친 그 충성의 마음
그대로 다 담을수 없어
너무 가벼운것만 같아
초급당비서의 독촉에도
선뜻 내놓지 못했다

그래도 좋았다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보지 못한
잘못을 일깨워주며
우리 당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귀하게 불줄 알게 하는 그것은

보풀이 인
 보고서에 실린 당원들
 저마다 당이 부르는 초소로 떠났어도
 당세포의 첫 보고서를 읽던 나를 바라보던
 빛나는 그 눈빛들을 잊을수 없어라

세월이 흘러 서른해
 지금은 눈에 끼였던 안경

벗었다 다시 끼며
 펼쳐놓은 보고서앞에서
 오래도록 눈길 멎나니

아, 나에게는 있다
 글자의 색깔은 변했어도
 나에게 당일군의 첫걸음 떼여주고
 변하지 않는 당일군의 마음 가르쳐주는
 당세포의 첫 보고서가 있다

주체사상탑과 말하노라

김창근

하얀 화강석층계를
 내 오늘 다시 오르며 우러른다
 푸르른 창공에 거연히 솟아
 낮이나 밤이나 누리에 빛발치는
 탑이여 주체사상탑이여

너의 튼튼한 대돌 마음으로 쓸어보고
 너의 억세인 탑신 가슴으로 안아보며
 내 오늘 다시 여기에 서서
 너의 빛발치는 봉화 우러르고 우러르노라
 탑이여 주체사상탑이여

너를 바라보는 이 가슴
 어이하여 이다지도 그들먹해지는것이나
 달래일길 없는 걱정을 안고
 밤새껏 너와 나누고싶은
 마음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노라

탑이여
 내 지금껏 생각했노니
 물결푸른 대동강반에 높이 솟은 탑
 정말 멋이 있다고
 아무리 보아도 손색없다고
 우리 로동당시대가 창조한 대기념비라고...

허나
 소란한 세상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니구나 탑이여
 돌을 다듬어 정히 쌓아올리고
 그우에 웅장한 봉화를 올라놓은
 네 어찌 하나의 대기념비만이라

바라보아라
 히말라야산줄기너머 저 멀리
 사회주의를 버린 그 나라들에서

한창나이 처녀들이 룰라의 길을 헤매이고
 소년들이 지하에 앉아 한푼의 돈을 구걸할 때
 소년궁전무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춤을 추고
 즐거운 이 강변을 행복한 젊은이들이 거니누나

바라보아라
 대양 건너 저 펜타콘에서
 조선의 동해에 전함을 띄우는데
 영예군인 총각과 아름다운 처녀가
 결혼꽃송이 가슴에 달고 사진기앞에서 웃누나

쓸어보노라 탑이여
 드놀지 않아 흔들릴줄 모르는 우리 신념이
 너의 대돌로 튼튼히 여기에 뿌리내리고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우리 존엄이
 너의 탑신으로 대공에 엄엄하고
 세기와 세기에 빛발쳐갈 우리 녀이
 너의 봉화로 저 하늘을 붉게 물들이누나

아 가슴 뜨거이 다시 안노라
 아름다운 이 강변에 너를 세우실적에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나의 기념비로만 세우시였던가
 우리 신념, 우리 존엄, 우리의 녀을
 우렁찬 목소리로 네가 다 대답하며 여기에
 솟았나니

사회주의를 하던 어떤 나라들에선
 자기가 쌓은 탑을 허물고있지만
 목숨갈아서 진정 우리에게 목숨갈아서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탑이여 주체사상탑이여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가꾸시는
 아, 사회주의 조선의 모습이여!



명언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육성된 우수한 전위투사들로 당의 기층조직들을 확대강화해나가는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항일혁명의 주력을 담당했던 조선인민혁명군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책임진 당건설의 주도적력량으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활발히 조직전개된 당건설사업은 무장투쟁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당적령도와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있는 공산주의적전위투사들에 의하여 추진된 당조직건설사업은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당당한 주류를 이루었으며 확고한 정통성을 대표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5)중에서

비료산이 보이는 언덕우에서

-홍남에는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강창영

그 어느 들길로 오신 길이신가
그 어느 공장구내를 돌아보시던 차림이신가
봄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에선
금시 그날의 비료향기 풍겨오는듯

해방의 첫 봄
농민들의 오랜 숙망을 헤아리시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주신 그 걸음으로
비료산에 먼저 오신 수령님!

한손에 모자를 벗어주시고
땅을 받은 우리 나라 농민들에게
우리 손으로 비료를 보내주자고
격정에 넘쳐 연설하시던
그날의 우렁우렁하신 그 목소리
오늘도 귀전에 울려오는듯

아, 해방된 이 강산
수령님의 가르치심 기다리는곳 얼마였으랴
들리실곳, 가보실곳 많으셨건만
땅을 받은 농민의 심정되시여
홍남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

조국땅에 개선타시여
해방의 첫 봄도
동해기슭의 철길우에서 보내시고

농민들에게 첫 비료를 주시여
이 땅의 풍년메부리를 고여주신 수령님

첫 비료를 뽑아내던
그날을 못잊으시여
오늘도 비료산을 못떠나시는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리도 마음쓰시던
그 비료의 흐름을 바라보시는가

화강석계단우에 축원의 꽃들은 피고
공원의 푸른 숲엔 긴 세월이 휘감겼어도
그날의 젊으신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

세월은 흘러가도
그날의 그 모습으로
비료산너머 온 나라 푸른벌을 내다보시며
화학화로 기계화로 꽃피워주신 이 땅우에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밝은 앞날을
손들어 가리키시는 위대한 수령님!

아 해방의 첫봄
새삶을 꽃피워주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비료산이 보이는 언덕우에서
떠나지 못하시는 수령님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홍남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여라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그날 백두산에서는 신기한 천기조화가 있었다고 한다.

항일투사들의 회상에 의하면 그해 백두산밀영이 있는 소백수골은 폭설이 내려 골짜기가 메워지고 기온이 령하 40도를 오르내리었다고 한다.

그런데 2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전례없는 기후변동이 일어나더니 뜻깊은 경사의 날 아침에는 봄날처럼 훈훈하고 쾌청한 날씨가 열렸다고 한다.

1942년 2월 16일

이날 백두산마루에 아침노을이 찬란히 비끼더니 해돋이바위가 첫해살을 생가에 뿌려주었다.

백두산밀영지구는 어디라없이 봄기운이 가득찼다.

상서로운 새가 날고 바람이 순해지고 땅이 향기를 풍기었다.

이에 화답하듯 푸르청청한 하늘에서 봄우뢰가 장엄히 울고 천리수해도 춤을 추는듯 설레었다.

위대한 력사의 해돋이가 시작된 이 경사의 날에 어찌 삼라만상도 무심하겠는가!

사람들속에서는 흥미있는 전설이 전해져내려오고있다.

해방전 백두산에서 포수로 있었다는 한 로인의 구술을 여기에 그대로 소개한다.

백두산기슭 어느 한 마을에 만춘이란 사람이 살고있었다.

원래 그는 황해도 어느 별방에서 살고있었는데 왜놈들과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백두산에 들어와 은둔생활을 하고있었다.

봄에는 화전을 일쿠어 씨를 뿌렸고 눈이 쌓인 추운 겨울에는 화승총을 메고 숲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여 아홉이나 되는 식솔이 겨우 삼순구식을 면하고있었다.

어느해 겨울날 만춘이는 화승총을 메고 숲속에 들어갔다가 송아지만한 메돼지와 맞다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메돼지를 따라 밀림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그러다가 만춘이는 어느새 날이 저물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잠간 서있는 사이에 허리를 치고 기승을 부리는 바람은 온몸을 그대로 날려버릴것 같았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만춘이는 한숨을 후 내쉬었다.

큰 나무밑동에 몸을 기대고 앉으니 이젠 영락없

이 얼어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 기승을 부리던 바람이 언제 불었던가싶게 갑자기 푹 그치더니 밀림속이 조용해지는것이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던 만춘이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말았다.

온통 은백색 눈서리로 단장한 밀림은 백옥으로 다듬은듯 눈이 부시게 황홀하였다.

하늘나라 백옥경인가, 바다속의 룡궁인가.

만춘이는 얼떠름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때 돌연 하늘에서 장쾌한 우뢰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하늘 저 한끝에서 울리는가싶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와져 딥고선 땅이 다 움썹움썹하였다.

눈을 비비고 하늘을 보니 우뢰가 울리는 하늘끝에서 무릎까지 흰 수염을 드리운 백발로인들이 사슴뿔같은 지팡이를 들고 밀림속으로 뿔뿔 날아내리고있었다.

만춘이는 저도 모르게 《하나, 둘...》 하고 세여보았다.

모두 열여섯이였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옛말에 나오는 신선들이구나.)

그 신선들을 가까이에서 보고싶어 정신없이 달려간 만춘이는 또한번 깜짝 놀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들이 깨끗한 흰눈우에 무릎을 꿇고 크지 않은 귀틀집을 향해 큰절을 드리고있기때문이었다.

그 귀틀집에서는 금빛광채가 뿜어나오고 주변에는 기치창검을 번쩍이는 수백명의 장수들이 웅위하듯 서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만춘이는 호기심이 생겨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자세히 살피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들이 절을 마치자 두리에 섰던 장수들이 두손을 마주잡아 들어보이며 《수고로이 오셨소이다.》 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 나라에 태동운이 튼것을 축하하나이다.》

신선들이 또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장수들이 《고맙소이다.》라고 머리를 숙여 사례의 뜻을 표하는데 신선들은 사슴뿔모양의 지팡이를 들어 입에 가져다뱉었다. 그러자 지팡이는 어느새 나

팔로 변하였다.

장수들이 미처 머리를 들 사이도 없이 신선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

그 소리 또한 우람차고 장쾌하여 산을 울리고 밀림을 흔드는데 그 끝없는 메아리는 이렇게 들리는 것이었다.

《조선아, 백두광명성 솟았음을 알리노라. 이 땅에 영원한 복이 내렸도다.》

《뭐? 백두광명성!》

만춘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전에 없던 커다란 별이 하나 솟아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별을 바라본 만춘이의 온몸에선 이상하게도 힘이 뻗쳐났다.

그는 다시 금빛광채를 뿌리는 귀틀집을 내려다보았다.

신기한 일은 련이어 생겼다.

귀틀집을 웅위하여 둘러섰던 장수들이 기치창검을 번쩍 하늘높이 쳐들자 그것이 일시에 커다란 붓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붓으로 나무마다에 글을 쓰는 것이었다.

흰 수염발같은 송리가 실실이 드리운 분비, 가문비 나무들에는

《조선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리노라》라는 글발이 새겨졌다.

만춘이는 하도 놀랍고 희한하여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는사이에 하늘에서 내렸던 열여섯 신선들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하늘을 쳐다보니 백두광명성은 점점 더 밝은 빛

을 뿌리고있었다.

그 별은 날이 밝았을 때도 여전히 광휘로운 빛발을 누리며 뿌리었다. 아침해가 등실 떠오르자 백두산 하늘가에는 칠색령룡한 쌍무지개가 서서히 비끼었다.

이상한 천기조화에 머리를 기웃거리며 만춘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쌍무지개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그냥 비껴있었다.

쌍무지개는 그후에도 3일동안이나 내내 비껴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만춘이의 말을 듣고 천기조화는 범상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 백두산에 위인이 내리신게 틀림없다고 하였다.

바로 그날이 임오년인 1942년 2월 16일이요, 열여섯 신선이 내린것도 다 뜻이 있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며칠동안 백두산 날씨는 봄날처럼 훈훈하고 쾌청하였다고 하니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요, 천지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을 축복한 것이다.

이날 아득히 펼쳐진 백두의 메부리들과 더불어 정일봉은 억만구슬로 단장하고 하늘높이 키를 솟구쳤다.

무지개빛으로 물든 령룡한 눈가루가 축복의 꽃보라되어 밀영의 하늘가에 뿌러지고 서리꽃 핀 정일봉의 푸른 숲이 파도쳐 설레었다.

그후에도 해마다 2월이면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백두산밀영에 비끼곤하였으니 참으로 천기조화는 신기롭기만 하다.

위인 김정일

자베르 하이르 베트

한없이 인자하신분

숭고하고 고결한 넋을 지니신분

그이는 모든것을

나라와 인민 위해 바쳐가시기에

언제나 승리하시여라

그이는 지구상 모든 인민을 사랑하시기에

인류의 가장 친근한 벗

그이는 원쑤와의 대결에서 용맹하시고

항상 승리의 언덕에 전사들을 세워주시여라

그이는 역센 의지를 지니신분

그 어떤 비운이 드리워도 굴함을 모르시는분

그이는 가장 고결한 사랑을 지니신분

위대하여라

사상과 지식의 천재

그이는 태양과 같은신분

불행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봄비를 주시고

가난과 빈궁을 털어주시는

그이는 인민의 총복

인민을 위한 행복의 수호자이시여라

(필자는 수리아 시인임)

명제해설

《작가는 당이 내놓은 문학예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소설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소설이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 수준도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소설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명제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작가들앞에는 소설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을 다 쓸어버리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할 시대적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의 소설이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소설로 되여야 하는것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높은 문화수준에 맞게 소설문학을 따라세우기 위해서이다.

소설은 인민들속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문학형태이다. 소설문학의 사회적가치는 인민대중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난시기 우리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녀당원》, 《빈터우에서》, 《뜨거운 심장》, 《새봄》 등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소설은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있다.

일부 소설은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있으며 주인공이 리상화되어있으므로 독자들과 친숙감이 덜하다. 또한 전형적인 생활이 다양하게 펼쳐지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있다.

소설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식 소설의 본성적요구를 옹계 살려야 한다.

우리 식 소설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옹계 반영하고 소설문학의 특성을 잘 살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한 소설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수평관 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작품이다.

우리의 소설문학이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정책적

요구에 맞는 의의있는 문제성을 작품에 체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현실생활을 잘 반영하는것은 우리 식 소설의 문제성을 강화하는데서 기본담보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이어진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원천으로 하여 수령형상을 기본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소설문학을 창작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소설문학이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형상수준을 높여야 한다. 소설문학의 형상수준은 소설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창작에 옹계 구현할 때에만 이 보장될수 있다.

우리는 문학에 쓰이는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다 리용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옹계 살리면서도 묘사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넣어야 한다.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있으면서도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주인공의 성격형상도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도 묘사에 의하여 실현된다.

현시기 소설문학의 묘사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소설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일부 소설들에서 묘사가 약하고 대사를 마구 쓰면서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있는 부족점이 계속 가서지지 않고있는 사정은 우리 작가들이 묘사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창작실천에서 원만히 해결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소설문학을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소설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믿음

1990년에 우리 나라의 한 여성영화배우가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지 사흘째 되는 날 남조선에서 왔다는 나이지숙한 한사람이 조용히 만나자고 하면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먼저 여담삼아 미국에 온 소감을 물었다.

우리 녀배우가 같은 동포끼리 제 나라, 제 땅에서 만나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상봉하게 되니 반가움에 앞서 가슴아픔을 금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수궁이 되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정책을 하더니 《북에서는 이남출신들을 잘 믿지 않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듣자니 그쪽에서는 이남출신들 가운데서 몇몇 특정한 인물들만 신임한다던데요? 이걸 정치와도 통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김정일지도자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요?》하고 물었다.

물음이 매우 비위에 거슬렸지만 녀배우가 보기에 의식적인 도발인것 같지는 않고 남조선피뢰들의 악선전에 속고있는 사람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녀성배우는 한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을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그 사람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것을 시인하는가고 녀배우가 다시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당신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허두를 뻔 녀배우는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하였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예술부문 사업에 지도를 집중하시던 때에 있던 일이었다.

그무렵 영화예술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그이께서는 어느 한 영화촬영소에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생활하는 한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곡절이 있었다.

본래 남녘에 고향을 든 그는 8.15해방직후 서울에서 진보적인 예술단체에 망라되어 예술활동을 하다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탄압이 심해지자 지방으로 피신하였는데 그사이 적들은 본인몰래 그의 이름을 반동단체성원들의 명단에 올려놓고는 마치 그가 《사상전향》이라도 한것처럼 세상에 공개하였

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피신해있던 지방에서 의용군에 탄원하였고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배우로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다. 하지만 남조선주구단체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었던 그 루명만은 벗을수 없었고 그로하여 남모르게 고뇌에 싸여있는 때가 많았던것이다.

이런 내막을 아시게 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날 영화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그 배우의 이름을 외우시며 **《그 동무가 평시 생활에서 웃음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었다.

해당 일군이 평소에 그가 쾌활한 편이 못된다고 대답을 드리고나서 그의 매력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이미 다 알고있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었다.

그 배우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본인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가 심장이 나쁘다니 주저된다고 걱정하시며 줄곧 무엇인가 생각하시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배우를 몸가까이 부르시었다.

난생처음 그이의 접견을 받게 된 배우는 영광이 너무도 커서 그만 눈물부터 앞섰다. 더구나 남다른 처지에 있는 자기를 찾아주신것이 꿈만같이 고마와 그는 좀처럼 진정을 못하였다.

《심장이 나쁘다는데 너무 이리저 마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정한 어조로 달래시었다.

하지만 그러실수록 그는 더욱 어깨를 세게 들먹이며 그냥 흐느끼기만 하였다.

그가 끝내 울음을 그치지 못하자 그이께서는 **《동무와 이야기나 좀 나누자고 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면 어찌겠습니까.》** 라고 하시며 오히려 안타까와하시었다.

그가 종시 진정을 못하자 그이께서는 그럼 이야기는 다음기회로 미루자고 하시며 그의 팔을 잡으시고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심장이 좋지 않은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극력 삼가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시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이께서는 그 배우를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몸결으로 부르시었다.

《전번에 나한테 왔다가 심장때문에 혼났다는 말

을 들었는데 이젠 일없습니까?》

그가 방에 들어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다정히 물으시며 반겨맞으시었다.

그가 그날의 일이 죄송스러워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자 그이께서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친근히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흥분하지 마시오. 그래, 올해 나이가 몇 입니까?》

그가 나이를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목소리도 아끼고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까.》**라고 이르시었다.

그이께서는 이윽고 조용한 음성으로 동무가 지난 날에 있는 일때문에 고민하고있는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었다.

그는 정중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처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고나서 고개를 떨구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사실 저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참가할 자격이...》** 하고는 다음말을 잊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를 자리에 눌러앉히시고 미제와 그 주구들은 해방직후 남반부에서 어용단체를 조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본인도 모르게 그 명단에 올려놓고는 그들이 **《전향》**한듯이 날조하였다. 놈들은 바로 동무의 이름도 거기에 적어넣었다. 동무는 그후 리승만정치를 반대하고 수령님의 품으로 들어왔다고 하시며 선언하듯 말씀하시었다.

《나는 동무를 믿습니다. 믿기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무효요!》

그러시면서 나는 동무를 나 자신처럼 믿는다, 그렇기때문에 동무는 나와 끝까지 생사를 같이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자고 오늘 동무를 불렀다고 하시며 그의 어깨를 으스스리게 부여잡으시고 세차게 혼드시었다.

그 순간 배우는 오열을 터뜨리었다.

그자리에 있던 일꾼들은 걱정을 참으면서도 그 배우의 울음만은 오래도록 막지 않았다.

모두가 령도자의 다함없는 믿음속에 안긴 그의 행복한 눈물을 소중히 아껴주었다.

...

너배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러한 믿음과 신임 속에서 그 배우는 그후 공화국예술인의 가장 높은 명예칭호인 인민배우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고 오늘도 예술창조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고있습니다.**

선생, 이 이야기는 남의 말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속에 안겨사는 그 배우는 다름아닌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여기 미국 땅에 와서 당신들의 면전에 당당히 나타난 나는 바로 그의 딸입니다.》

남조선에서 온 사람은 놀라운 눈으로 그를 쳐다 보았다.

너배우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지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그는 한 귀국공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다.

...

어느 한 중앙기관에 평범한 사무원으로 일하고있는 한 귀국공민이 있었다.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와서 대학공부를 하고 자기 지방에 따라 중앙기관에 배치받아 사업하고있는 사람이었다.

어느날 그는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청탁으로 그이의 집무실에 가서 텔레비존수상기를 수리하게 되었다.

그가 텔레비존수상기내막에 밝다는것을 아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그를 청하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는 텔레비존수상기를 손질하였다. 여러가지 소자도 바꾸고 납땜도 하면서...

그가 수리를 마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담배를 권하시며 수고했다고, 텔레비존다루는 솜씨가 대단하다고, 전자자동화계통과 약전계통에 능통한 기술자라고 대견해하시었다.

뜻밖의 치하에 그는 어찌할줄 몰라하며 자기는 별로 기술이 없다고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텔레비존수상기속내에 대해서는 자신께서도 어지간히 알고있는데 이번의 고장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었다고, 그런데 동무는 고장원인을 제격 알아맞혔을뿐아니라 수리하는 기술이 또한 놀랍다고, 그것만 보아도 실력을 가히 알수 있다고 하시며 거듭 치하하시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그 귀국공민의 이름을 외우시며 칭찬하시었고 때로는 본인에게 직접 중요한 일도 맡기시였으며 외국출장에도 그를 자주 내보내시었다.

언제인가 중요한 설비일식을 어느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구입해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그 나라로 말하면 우리 나라와 적대관계에 있었을뿐아니라 남조선피괴도당의 끄나불들이 우글거리고 걸음마다 회유와 유혹이 뒤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적구나 다름없는 나라였다. 그런것만큼 일꾼들은 가장 믿을수 있는 사람을 그 나라에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슴없이 그 귀국공민에게 설비일식을 사올 막대한 당자금(외화)

을 주어 그 나라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도록 하시였다.

령도자의 그 크나큰 신임에 접한 날 그는 이국살이를 하다가 조국에 온 자기를 것처럼 믿어주시는 그이의 은정이 하도 고마와 온밤을 가족과 함께 뜬 눈으로 새웠다.

...

너배우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나서 말하였다.

《그 귀국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마운 믿음을 안고 그 나라에 가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이렇게 사람들을 철저히 믿는분이십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복반부

에서는 누가 누구를 믿고 안믿고 하는 편협한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수 없고 온 사회가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였습니다.

선생, 그래 이래도 당신은 남조선피뢰들의 악의에 찬 허위선전을 끝이들겠습니까?》

너배우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런 반문으로 끝마쳤다.

그의 이야기를 시종 경탄속에 듣고난 남조선사람은 《정말 소설같은 얘기군요.》, 《여태 속고 살아온것이 분해요.》 하고 감탄과 분격이 엇갈린 착잡한 심사를 연해 토하더니 하늘을 우러러 《아, 우리 이남민중도 언제면 온 우주를 그리안을 그런 위대한 령도자의 품안에서 살아보겠는지...》 하고 부러운 심정을 터치였다.

백두산 대문소리

전계승

천리수림을 벗어나
무두봉대지에 올라서니
신기하여라
내리던 모진비 씻은듯이 멎고
하늘의 비구름이 갈라지는
쿵, 쿵 우뢰소리...

하루에도 열스무번 변한다는
이 고장 날씨라고는 하지만
답사길 근심하던 내 마음 열어주며
꿈에도 그리던 백두산모습
순간에 꿈처럼 펼쳐주는
우뢰소리 듣노라니

...그날 여기서
친애하는 그이
구름발을 휘거느린 백두웅자를 바라보시며
마치도 고향집 대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서는데 것 같다시던
그 목소리 들려오는듯

하늘을 떠인 령봉은 고향집
천리광야는 뜨락이라 부르시며
썩-열리는 구름대문을 향해 걸으시던

그 호방한 기상이여
그 높은 뜻이여
따르는 내 심정 송엄하구나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을 따라
오늘은 나도 한평생 그리던 그 뜨락에 들어서는데
혁명의 고향이여 백두산이여
누리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발
한껏 뿌리는 그 웅자가
나를 반겨 맞아주는가

내 어디에 태를 묻었건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내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여기를 혁명의 고향으로 간직하고
영원한 청춘으로 살고픈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나니

백두산을 우러러
조선의 아들됨을 자랑하는
머리높이 쳐들고 당의 전사됨을 자랑하는
내 심장 흔들며
쿵 쿵 우뢰소리, 무두봉의 우뢰소리
《백두산의 대문소리》로 울리는구나

특별열차의 기적소리

김근엽

△ 때: 무산령의 철도전기화가 한창이던 시기
 △ 곳: 평양과 북부철길의 어느 역
 △ 나오는 사람들
 두현: 철도부 부국장
 철문: 철도부 국장
 성결: 역장
 설희: 두현이의 처
 명석: 두현이의 아들, 철도전기화돌격대 중대장
 송옥: 성결이의 딸, 러객지도원
 기타

제 1 장

△ 무대: 철도부의 정문이다.
 우측으로 본청사가 보이는데 그앞을 가리우게
 지은 접수실이 있다. 좌측으로는 차들이 드나
 들게 된 큰 철문이 달린 길이고 그 뒤로는 나
 무들이 켜는데 아래에는 꽃이 활짝 핀 긴 화단
 이 길게 지나갔다.
 △ 밝은 음악속에 막이 열리면 접수실에서 수화기
 를 든 설희가 말을 하고있다. 그의 곁의자에는
 소포꾸레미가 놓여있다.
 설희: 아 당신이세요? 저예요. 정문으로 좀 나왔다
 가 가세요. 당신의 출장준비품을 가지고 왔어
 요. 기다려요. (수화기를 놓고 밖으로 나온다.)
 접수원: 들어가보실걸 이렇습니다.
 설희: 아니예요. 여기서 만나고 가겠어요. (서성대
 며 기다린다.)
 △ 두현이가 나온다.
 두현: 오늘 출장길에는 당신이 웬일이요?...
 설희: (출장품과 함께 소포꾸레미를 내민다) 출장
 을 가시는 길에 명석이한테 이 소포를 줘?...
 두현: 응?... 그애한테 소포는 뭇하려?... 돌격대에
 서두 다 보장해주는데? 지난날 그애한테 버릇
 을 잘못 굿혀서 그만큼 애를 먹었으면 됐지. 아
 직두 모자라서?
 설희: 당신은 참... 이제는 그애가 철도전기화돌격
 대 중대장이라는것을 아시면서두... 그애가 편
 지에 발파때 쓰는 기발감전을 구해서 소포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현: 그건 다 소포질을 바라는 귀맛좋은 소리야.
 그러구 또 내가 그애를 찾아가라는거요?
 설희: 그애가 이제는 제앞처리를 해내는데 좀 찾아

본다구 안될것두 없지 않아요.
 두현: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지난날
 자식교양을 잘못해서 가정혁명화문제까지 제
 기되었던 우리가 아니요?
 설희: 그야 지나간 일이구.
 두현: 지나간 일이라구 벌써 잊겠소? 또 우린 애와
 약속하지 않았소? 훌륭한 일을 하기전엔 휴가
 도 오지 말구 일체 면회도 안가기로 말ियो.
 설희: 당신은 너무 모질어요.
 두현: 우리가 약해지면 그애를 단련시키지 못해.
 설희: 여보! 우리야 그애가 돌격대의 중대장이 되
 도록 아직 한번 찾아보아준 일도 없지요?
 두현: (가슴이 아프나 참는다) 그리구 이번 출장은
 무산령철도전기화공사의 마감단계에서 중요역
 인... 바루 그애네가 가있는 역의 문제때문에
 내려가는데... 자기의 사사일때문에 시간을 때
 낼순 없단말ियो.
 설희: (말없이 들으며 생각하다가) 여보 나두 시간
 이 바빠서 가겠어요. 그러니 출장길에서 그애
 가 일하는 공사장을 지나면서 이 소포를 떨궈
 만 주면 돼요.
 두현: 정 보내겠으면 우편으로나 보내오.
 설희: 당신은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학교를
 나오기 바쁘게 그 먼 북부산간지대로 쫓아보내
 시더니 흐-흑...
 두현: (걸다가) 아무일도 없던 우리 가정은 그 애의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흐린날이 된다니까. (출
 장품만 손에 들고 가려고 한다.)
 설희: 여보?!-
 두현: 여보! 대학강좌장선생님이 왜 아이들처럼 이
 러오? 우리 명석이가 중대장이 되었다는 소식
 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았겠는줄 아
 오? 그애가 부모들의 행동을 비쳐주는 훌륭한
 거울이 되도록 단련시킵시다.
 설희: 그저 단련 단련...그 말뿐이지...
 두현: 아버지로 되기는 쉽지만 아버지의 구실이 얼
 마나 힘겨운것인지 당신은 리해못해주는구
 만... (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 이때 승용차소리.
 △ 안으로 향하던 두현이 돌아선다.
 △ 국장인 철문이 나온다.
 철문: (설희를 띄여보고) 아, 이거 강좌장선생님이

부국장동무의 출장길을 바래우려 나온게 아닙니까? 하하...

설희: (황급히 눈굽을 닦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동지!

두현: 국장동무! 그런건 아니구...

철문: 아니긴요? 우리 부국장동무 안해의 살뜰함이 야 온 철도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하... 참, 아들 명석이한테서는 편지가 온다지요?

설희: 예.

철문: 이제는 뽀뽀하게 만나줘야지요.

두현: 국장동무, 그애는 아직...

철문: 하긴 귀한 자식에게 모진 부모의 사랑이 더 뜨겁다고 하지요...

설희: (소포를 내민다.) 명석이 아버지! 이걸 꼭... 전 시간이...

두현: 여보! 그만큼 말해주는데두?... (짜증어린 투로 말한다.)

설희: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자리를 뜬다.)

△ 설희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는 철문.

두현: (화제를 바꾸며) 국장동무! 난 곧 무산령철도 전기화공사에서 수송이 걸린 그 역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역장동무 문제도 재확인할겸...

철문: 부국장동무! 동무에겐 더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성혁명사적지로 현지도도를 떠나시는데 그이의 이번 특별철차운행을 부국장동무가 보좌해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두현: 제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철문: 그이께서는 동무를 알고계시는것만큼... 또...

두현: 제가 그이를 모신 회의에는 여러번 참가했지만 직접적인 접견은 없었는데...

철문: 동무의 사업열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두현: 예?... 저의 가정혁명화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심려를 끼친것만...

철문: (웃는다.) 우리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난 그이께서 부국장동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실때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두현: (생각이 깊어진다.)

철문: 이제 특별철차로 그이를 직접 모시고 보좌해드리면서 무산령철도전기화공사에 대한 실태 보고를 드리십시오. 자, 어서 운행표를 짜고 최대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겠습니다.

두현: 알겠습니다. (감격한다.)

철문: 참, 아주머니를 만나고 떠나도록 하십시오. (안으로 들어간다.)

△ 무대 잠시 사이, 설희가 나온다.

설희: 여보! (소포를 또 내민다.)

두현: 당신은 정말... 내 돌아와서 그애의 문제를 심중히 의논해봅시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설희: (안으로 막아선다.) 여보?!- 너무해요, 너무해요...

두현: 정 이러겠소? (마주본다.)

△ 무대 어두워지는데 렬차의 긴 기적소리, 차바퀴 소리가 무대를 가득채우며 울린다.

제 2 장

△ 무대: 북부도시의 어느 역.

좌측으로는 역보조청사인 역장방이 있다. 무대 뒤로는 한가운데에 특별렬차가 역구내를 가리우고 섰다. 우측으로 역사의 일부가 보이고 그 뒤로는 전철가들이며 역명판이 보인다.

△ 때: 전장에서 저녁때.

△ 특별렬차의 기적소리가 웅엄하게 울리더니 역사령의 목소리가 구내확성기로 울려온다.

소리: 48급행렬차 출발시켰다. 인성역! 렬차를 받으라 렬차 받으라!... 뒤따라 특별렬차 통과한다.

△ 무대 밝아지면 역장 성질이 자기 방에서 쌓아놓은 《역운영일지》를 펼쳐가면서 연필로 밑줄을 긋고 또 긋고있다.

△ 송옥이가 코노래를 부르면서 나와 역장방으로 뛰어든다.

송옥: 아버지!-

성결: 송옥아! (류다른 감정이다.)

송옥: 아버지! 제가 글썽... 우리 역에 특별렬차로 머무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닐줄이야...

성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역에 머무르신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일이야. (하며 《역운영일지》를 다시 살핀다.)

송옥: (함께 보다가) 아버지는 오늘따라 왜서 수십년동안 기록해둔 《역운영일지》들을 꺼내놓구... 뭘 하시려구?

성결: 음 내 인생총화를 하는중이다.

송옥: 예? 갑자기 그건 왜?...

성결: 음, 두현부국장동지가 우리 역의 수송운행실태를 료해하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를 드리게 된다더구나.

송옥: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째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역에 모실 때 부역장동지를 앞에 내세우시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시었어요?

성결: (대답이 없다.)

송옥: 하긴 아까 보니까... 두현부국장동지두 부역장동지를 앞으로 내세우는걸 제논으로 보긴했어요.

성결: 이제야 젊구 패기있는 일군을 내세울 때도 됐지.

송옥: 그럼 아버지는 벌써?... 아버지?!...

성결: 됐다. 넌 구내를 떠나지 말아야지. 객지도 원이 이런 때 역장방에나 와있으면 되겠냐? 특히 특별렬차가 구내에 멎어있는데...

송옥: 예, 그런데 아버지두 오늘같은 때야 구내에 붙어있어야지요.

성결: 두현부국장동지가 나를 만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송옥: 부국장동지와 담화를 하게 되나요?

성결: 음...

송옥: (심상치 않게 느끼며 자리를 뜨지 못한다. 그의 귀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향으로 울려온다.)

성결: (서있는 딸에게) 참, 요새 철도전기화동격대 중대장 명석이는 왜 통 보이지를 않냐?

송옥: (당황하여)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결: 오면 그저 자갈방통을 내라고 성화더니? (딸을 본다.)

송옥: (그리움에 잠긴다.)

성결: 송옥아! 너두 기다리지?... 이 애비의 눈은 못속여.

송옥: 몰라요 호호...

△ 송옥이 방에서 나오는데 명석이 나타난다.

명석: 송옥동무!-

송옥: 아이 명석동무! (달려간다.)

명석: 그새 잘 있었소?

송옥: 왜 요새는 까딱 나타나지 않았어요?

명석: 기다렸소?

송옥: 기다리긴? 호호...

명석: 좀 바빠 보냈소.

송옥: 하긴 무산철도전기화가 마감단계인걸 모르는 않지만...

명석: 이 역에서 수송물자만 더 빨리 날라두 속도를 더 냈겠는데...

송옥: 지금 부에서 리두현이란 부국장동지가 내려와서 료해하고있으니 해결대책이 설거예요.

명석: 이제 뭐? (얼결에) 아버지가?...

송옥: 예? 아버지라니요?

명석: (당황하여) 음? 아, 아니요... 동무의 아버지 생각을...(하며 순간을 넘긴다.)

송옥: 혹시 명석동무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예요?

명석: 우리 아버지? 아니요.

송옥: 명석동무는 알다가두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두 자기네 집에 대한 소리는 한마디도 없지... 또 몇해씩 돌격대에 나와있으면서 휴가를 한번 가길 하나 집에서두 면회를 한번 안오니?...

명석: 그렇게 됐소. 참 송옥동무! 저 렬차는 보통차

같지 않은데?...

송옥: 아니 모르고있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특별렬차로 지나시다가 우리 역에 머물러주세요.

명석: 아니 뭐라구?... (혼자말로) 아니 그래서 아버지지도 오시였구나...

송옥: 아이 참 아까부터 왜 자꾸 아버지는 찾으셔서?...

명석: 음? 아 아니요. 그래 리두현... 부국장... 동지는 지금 어디 계시오?

송옥: 렬차에 계시겠는데...

명석: (저도 모르게 구내쪽으로 가려고 한다.)

송옥: 그리로 막 가면 안돼요.

명석: (흥분하여 렬차를 지켜본다.)

송옥: 참, 아까 특별렬차승무원 한동무가 무슨 소포인지 하나를 동무에게 주라면서 화물원에게 맡겼어요.

명석: 그렇소? 어머니가 보내셨는가?... 가만, 내 화물에 가보구 오겠소. (달려나간다.)

△ 송옥이 자리를 뜨려는데 두현이 나온다.

두현: 객지도원동무?

송옥: 예, 안녕하십니까 부국장동지!

두현: 역장동무 방에 있소?

송옥: 예, 부국장동지를 기다리했습니다.

두현: 음 (하며 역장방으로 들어간다.)

△ 송옥은 불안을 안고 지켜보다가 나간다.

△ 성결이 두현이 앞에서 일어선다.

두현: (앉으며) 오래 기다렸습니다까?... 안됐습니다.

성결: 일없습니다.

두현: (책상우에 쌓여있는 《역운영일지》들을 바다가 그러니 이것들이 《역운영일지》들이겠습니다. 음, 50년대! 60년대! (들추듯이 보다가) 음 70년대에두 기록이 잘됐구만요... 아니 이걸 다 가지고있었습니까?

성결: 예, 궤도우에서 제가 산 한생이 다 적혀있는 셈이지요.

두현: (대수롭지 않게 살펴보며) 역장동무두 한때는 쟁쟁했는데... 일을 하기가 이제는 힘이 들지 않습니까?

성결: (대답이 없다.)

두현: 이제는 쉴 때두 되었지요...

성결: (눈길을 떨군다.)

두현: 하긴 세월이 갔으니... 열정과 패기도 다 한도가 있는 법이니까...

성결: (듣다 못하여) 부국장동지,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섭섭하기야 하지요. 저는 한생 철도에 복무했지요. 로동생활로부터 시작하여 역장사업까지 해오다가 이제는 당의 뜻대로 보답 못하는... 성 쌓고 남은 돌처럼 되고마는구나 하구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두현: 사실 저두 이런 일에 부닥칠 때마다 안타까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모든 역들에서 자기 앞에 맡겨진 수송과제만 책임져준다면 아무리 늘어나는 국가적철도수송이라두 무서운것이 없겠는데...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성걸: (비청거리다가 앉는다.)

두현: 하여튼 이번 일이나 끝내고 국으로 올라오십시오. (방에서 나간다.)

△ 승용차소리.

△ 철문이 나온다.

두현: 아니 국장동무는 왜 또 이렇게 뒤따라왔습니까?

철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운행표에 계획도 없는 이 역에 머무르시었다기에... 특히 보다는 그이께서 이 험한 무산령철길로 렬차운행을 변경시키셨다는것을 알구 더욱 놀랐었습니다.

두현: 이번에 떠난 온성길에서 이 무산지구의 현지 지도는 예견에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이께서는 달리는 렬차에서 이 무산령철도전기화형편을 료해하시다가... 이 역의 수송문제가 제기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문: 그러나 두현동무가 보좌해드리면서야 어떻게 이 험한 길로 가시게 한단 말입니까?

두현: 사실은 그이께서 달리는 렬차에서 벌써 운행표를 보시더니 온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라진으로 돌아야만 가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길을 리용하는 청진-온성행은 무산령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말씀올렸습니다.

철문: 지금 무산령 일대의 철길은 철도전기화를 하면서 보수중이 돼서 길이 험하다고 보고를 드릴것을 그렸습니다.

두현: 물론 말씀은 드렸지요. 일반려객렬차들만은 통과를 시키나 그이를 모신 특별렬차는 통과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그이께서는 인민이 다니는 길이니 우리도 무산령을 통과해서 가자고, 단순한 안전문제때문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시며 인민을 만나러 가는 우리가 인민이 다니는 길로 왜 못가겠는가고 하시었습니다.

철문: 그레두 무작정 처음에 짠 렬차운행표대로 에 돌아갔어야 합니다.

두현: 그이께서 인민을 위한 철도전기화공사에 그토록 마음을 쓰실줄은 저두 미처... 글썽 렬차가 한참 달릴 때 저는 그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제가 지난 시기 가정혁명화문제때문에 무척 애썼다는것을 국장동무에게서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아들 명석이가 이제는

돌격대중대장까지 한다니 기쁘겠다고 고무줄 주실 때 저는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다심하신 인정에 끌려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야말았습니다.

△ 그의 마음의 노래가 울린다.

위대한 사랑의 그 품에 안겨
언제나 행복의 눈물 지었네
어머니 그 사랑 그 어데 비기랴
전사는 우리러 감사 드렸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위대한 아버지사랑이여

△ 성걸이 밖에서 나오다가 듣고 선다.

두현: 국장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철도 전기화공사에 그처럼 마음 쓰시는데 여기와서 보니 역장동무는 로쇠현상이 와서 일을 제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서 잘 도와줬더라면...

철문: (같이 걱정을 한다.) 정말 옛날엔 여기 역장이 일을 제졌는데...

두현: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철문: 부역장이 젊었으니 두사람이 손을 잘 맞잡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두현: 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젠 나이도 있는데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어 본때있게 해제끼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를 만나 초보적인 암시를 주었습니다.

철문: (놀라며) 벌써?

두현: 저도 따분하지만 그 인정이라는것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 성걸은 머리를 떨구며 절망속에 나간다.

△ 이때 뒤로 소포꾸레미를 찾아든 명석과 송옥이 나온다.

명석: (송옥이에게 꽃수건을 주며 말한다.) 우리 어머니는 내 편지에서 애인이 있다는 암시를 받으신것 같아. 그러니 이 꽃수건을 넣어서 보냈지.

송옥: 아이... (수집어하며 목에 건다.)

명석: 역시 어머니들이란!... 우리 아버지는 일하 나밖에 모르시니까...

송옥: 그게 얼마나 좋아요.

명석: 그야 물론...

송옥: 우리 아버지두 우리의 관계를 알고계세요.

명석: 어차피 알려야 할것을...(하며 나가는 송옥이를 따라 자리를 뜬다.)

△ 두현과 철문이는 이 모든것을 지켜보며 한쪽에 서있다.

두현: 내 저녀석이?! 국장동무, 저게 어디 돌격대 중대장입니까?

철문: 평가를 서두르는것 같습니다. 하... 명석이두
이제는 나이로 보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명석이 다시 나오다가 반긴다.
명석: 아버지! 국장동지! (인사한다.)
철문: 명석아! 이젠 릉름한걸! 하하... 가슴두 바위
벽같은게 중대장다워, 영웅중대장이 돼야지.
명석: 예, 그런데 어떻게... 온다는 소식도 없이 이
렇게 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휴가를 갈 자격
도... 부모들의 면회를 받을 일을 다하지 못했
는데요?
두현: 듣기 싫다. 인젠 속이려드냐?
명석: 예? 아버지?!... (어리둥절해한다.)
△ 뒤로 나오던 송옥과 성결이 지켜서서 듣고있다.
송옥: 아니 아버지라니... 그럼...
성결: 가만 있거라... (듣고있을뿐)
명석: 아버지! 제가 뭘 속이겠습니까? 저는 부모님
들과 한 약속대루 큰공을 세우기전에는 휴가도
가지 않고 면회도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살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두현: 그런데 중대장이라는게 이 바쁜때 처녀와 어
찌니저찌니 하면서 돌아쳐?
명석: 예?
두현: 더 할말이 있냐?
△ 뒤에서 보던 송옥이도 난처해진다.
명석: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철문에게 인
사를 한다.) 전 작업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달
려나간다.)
철문: 부국장동무! 뭘 그럼니까? (하며 명석을 뒤따
라 나간다.) 명석아!-
두현: 국장동무!- (찾다가 나간다.)

△ 무대에서는 송옥과 성결이만 남는다.
성결: 송옥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있지?...
그 사랑이 굳건하리라 믿냐?...
송옥: (놀란다.) 예? 아버지...
성결: 내가 이제 역장의 자리를 내놓게 되면...
명석이 그 사람두... 생각이 달라질수 있지...
송옥: 아버지! 역장자리를 내놓다니요?
성결: (대답이 없다.)
송옥: (힘을 잃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역운영일
지》 들을 내놓구 인생총화를 하시겠는가요?...
성결: 너두 보다싶이 내 요새는 발전하는 현실에 따
라 놓아지는 수송의 요구대로 일을 제끼지 못
해서 말을 듣고있지 않느냐.
송옥: 우리 역의 제한된 구내선으로는 차방통을 더
받을수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 구내선을 더 늘
이기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비판거
리로만 되니...
성결: 그야 물론 역장의 책임이지...
송옥: 아버지야 구내선을 늘이기 위한 새 공사계획
두 설계를 해서 국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결: 그것두 이제는 늦었지.
송옥: 한때 아버지는 일을 제끼는 역장이라고 소문
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야...
성결: 지난날은 그랬지. 그러나 중요한것은 앞으로
가지있게... 얼마나 일을 할수 있는가에 달려있
지. 앞으로 말이다. (구슬퍼진다.)
송옥: 아버지! 아버지는 할수 있지 않나요? 예?...
아버지! (애원한다.)
성결: 아!- (먼 하늘만 지켜본다.)
송옥: 아버지!-
성결: (움직이지 않는다.)
△ 서서히 무대 어두워진다.

제 3 장

△ **무대:** 전장과 같은 장소다.
특별렬차의 불빛은 밝다.
△ 승업한 음악속에 무대 밝아지면 고요한 구내에
신호등을 든 성결이와 송옥이 특별렬차의 불빛
을 우러르며 서있다. 마치 초병마냥.
송옥: 아버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많은
《역운영일지》 들을 다 보고계신다니
성결: 글쎄 수십년을 기록한 그 자자구구를 전부 보
아주시였구나. 철도전기화공사장을 찾아보시
느라고 무척 피로하시련만...
△ 이때 구내에서 갑자기 기관차가 움직이면서 차
갈이를 하는 떠들썩한 소음.
성결: (놀란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정속을 보장하라
고 했는데?... (하더니 역장실로 뛰어들어가 마
이크를 잡는다.) 사령실! 나 역장이다. 구내에
정속을 보장하라! 차갈이작업을 중지할것! 빨
리 중지하라!
△ 사령원의 대답소리.
소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구내가 왜 조용
한가고 물어오셨다. 자신께서는 조국의 동맥을
지켜선 철도가 뚫고있어야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시였다. 그래서 차갈이를 하고있다.
성결: 아니 뭐라구?... (목이 메여 수화기를 놓고 밖
으로 나온다.)
성결: (렬차의 불빛을 우러러 선다.) 송옥아! 너도
어서 가서 네 일을 하거라.
송옥: 알겠어요. 아버지! (나간다.)
△ 성결이도 구내로 간다.
△무대 잠시 비는데 두현이 나와서 역장의 방으로
급히 간다.
두현: 음? 역장동무 어디로 갔나?
△ 철문이 급히 나온다.
두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장동무를 찾고계
십니다.
철문: 특별렬차를 출발시켜야했는데 그이께서 기어
이 역장동무를 만나시겠다요?

두현: 몇번이나 말씀을 올렸는데 꼭 만나시고 가시겠답니다.

철문: 그럼 어서 찾으십시오.

두현: (역장방으로 뛰어들어 수화기를 든다.) 사령실! 역장동무를 찾아서 빨리 보내시오. 역장방에 있겠습니까.

소리: 알았습니다.

철문: 부국장동무! 낮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동무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현: 예?

철문: 부국장동무는 이 열차를 타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아들을 만나보도록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두현: 예? 그러니 그이께서 우리 명석이가 여기 공사장에 와있는것도 알고계십니까?

철문: 예.

두현: 우리 가정문제까지 그이께...

철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이께서는 철도 전기화돌격대 정치부를 통해서 명석이가 일을 잘한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만족해하시면서 이 역에 오셨던 또 하나의 큰 기쁨을 안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두현: 아!- (머리를 떨군다.)

철문: 그리구 아들에게두 자신의 기쁜 마음을 꼭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두현: (더는 참지 못하고)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그의 마음의 노래가 울린다.

친부모도 못주는 그 사랑에
목메여 뜨거운 눈물 흘렸네
어머니 그 품에 안겨 살수록
고마운 은정 더해만지네
아, 지도자동지
위대한 아버지사랑이여

철문: 그리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시더니 아들의 교양을 위해 취했던 아버지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동안 아들을 건설장으로 떠나보낸후 부모자식간의 정까지 떼놓고 지낸 것은 잘 안된 일이었다고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두현: (머리를 들지 못한다.)

철문: 부국장동무! 그이께서는 또 아들의 입당문제도 곧 심의된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개척하던 그때 받은 진정한 방조와 절절한 조언이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는것만큼 그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가 여기에 남아서 꼭 도와주라고 신신당부하시였습니다.

두현: 아!-

△ 음악.

△ 송옥이 뛰어나온다.

송옥: 부국장동지!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화기를 주저한다.)

두현: 일단말이요?

송옥: 예, 다 찾았는데두...

△ 두현이 철문이를 본다.

철문: 이러다가 특별열차가 언제 떠나게 되겠는지?... 두현동무! 내 아무래두 다시 보고를 올려야겠습니다. (하며 열차로 달려간다.)

△ 무대 사이.

두현: 려객지도원동무! 아버지가 시내에 가면 대체 어딜 가군하오?

송옥: 기관차수리공장이나... 기계공장에 다니시겠습니까.

두현: 그럼 거기에두 가봐야지.

송옥: 알았습니다! (달려나간다.)

△ 전화종소리.

두현: (수화기를 든다.)

△ 철문의의 목소리.

소리: 역장동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소리: 못찾았다...

두현: 어찌겠습니까. 이제는 잘 말씀을 드리여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역장이 구내에 있지 어디에 갔겠는가고 하시면서 역구내로 나가시었습니다.

두현: 예? 그럼 그이께서도 역장을?...

소리: 부국장동무!

두현: 역장동문 마지막까지...

소리: 부국장동무! 속단하지 마시오. 그이께서는 이 역의 《역운영일지》를 모두 보시었는데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시였습니다.

두현: 예?

소리: 역장이 일을 더 하지 못하고 인계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고 하시면서 그냥 떠나시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꼭 찾아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두현: 예?... (더 말을 못한다.)

소리: 부국장동무! 어서 찾으십시오.

두현: 알겠습니다.

△ 이때 역원이 뛰어들다.

역원: 아무리 찾아도 역장동지는 없습니다.

△ 다음은 두사람, 세사람이 련이어 뛰어들면서 없다고 보고를 한다.

두현: 계속 찾으시오!

△ 모두 다시 달려나간다.

△ 명석과 송옥이 나온다.

명석: 아버지! 다 들었습니다. 다... 흐-흑...

두현: 명석아! 난 너에게 똑똑한 사랑 하나 주지 못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명석: 아버지! 저는 언제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오직 당을 따르는 충성의 궤도우에서 효자로 살겠습니다.

두현: 자식두! (아들을 껴안는다.)

명석: 아버지!- 이 동문 역장동지의...

두현: 알고있다. 송-옥이!...

송옥: (머리를 떨군다) 부국-장-동-지-!...

△ 송옥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두현.

△ 여기로 나오는 철문과 성결이.

철문: 부국장동무!

성결: 부국장동지! 이렇게 소동을 부려서... 안됐습니다.

두현: 아니 어데로 갔됐습니까?

성결: 전... 차갈이를 하는 기관차를 타고있었습니다.

두현: 예? 그럼 구내에요?

철문: 그런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내시었습니다.

두현: 그이께서?!... (자책한다.)

철문: 그이께서는 역장동무를 만나시고 《역운영일지》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일군의 티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보았다고 기뻐하시었습니다.

두현: 역장동무!... (손을 잡는다.)

철문: 인간이 사회정치적생활에서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는것을 알고 사는것처럼 서글픈 일은 없다... 그러나 앞에 닥친 늪음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몸부림과 필사의 노력을 《역운영일지》에서 보았을 때 자신께서는 힘을 다시금 가다듬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송옥: 아버지!- (안겨 온다.)

철문: 그러시면서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역장동무의 《역운영일지》의 기록도 해마다 달라져있었다고... 자신께선 그것이 몹시 기뻐했다고... 이 역의 운영과정을 력사적으로 다 볼수 있게 한 그 갈피에는 새롭게 비약적으로 높아만지는 수송세계를 탐구하고 전진하려는 고심이 력력했다고... 거기에서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 비상한 각오와 눈물겨운 노력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 《역운영일지》를 읽지 않았더라면 아까운 일군 한사람을 잃을번했다고 가슴아파하시었습니다.

두현: 역장동무!- 제가... 그만...

성결: 부국장동무! 이러지 마십시오... 그이께서는 지금 철도에서도 현대화, 과학화가 본격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 자신이 열성과 욕망만으로는 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느끼고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배우면 된다고 배워서 알면 별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두현: (더욱 머리를 숙인다.)

성결: 그이께서는 차갈이를 하는 기관차에 오른 그것만 보아도 제가 도태되지 않으려고 한 증거로 되었다고... 사람이 사상정신적으로 늙으면 30대, 40대라고 해도 쓸모없이 된다고 타일려주시었습니다.

두현: 역장동무!...

성결: 그리구 우리 역의 구내선을 빨리 더 늘이고... 그러면 차방통도 더 받게 될것이니 늘어나는 수송량도 처리될수 있다시며 제가 국에 제기한 구내선확장공사안도 지지해주시었습니다.

두현: 국장동무! 난 이 역의 걸린 문제를 사람이나 바꾸는것으로 풀려고 했으니...

철문: 부국장동무! 그이께서는 모든 해결책을 세워주시며 역장동무가 앞으로 일을 하다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말고 꼭 부국장동무를 찾아가라고 하시었습니다.

△ 두현이는 말을 못하는데 모두 웃는다.

철문: 부국장동무! 우리 그이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목이나 구부러든 애가지를 보면 꺾어버리는 그런 원예사가 아니라 열번, 백번을 생각하고 되살려내는 그런 원예사가 되라고 하신 그 뜻으로만 일합시다.

두현: 국장동지...

철문: 인간사랑의 궤도에서 탈선해서는 사람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고 하신 친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일해갑시다.

두현: 아, 인간사랑의 정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저에게 일군들이 지녀야 할 근본 원칙과 사업방법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별렬차를 우러른다.)

△ 특별렬차의 기적소리,

철문: 부국장동무!

두현: 특별렬차의 안전을 바랍니다.

철문: 그럼... (렬차로 달려간다.)

△ 두현이도 뒤따르고, 성결이는 푸른 신호등을 켜고 따라선다.

△ 송옥이와 명석이도 머리에 손을 올려붙이고 배아는데 두현이 나온다.

△ 멀어지는 렬차.

두현: (렬차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그의 마음의 소리 울린다.)

이 땅 끝간데없이 뻗어간 궤도를 따라 인간의 삶을 끝없이 꽃피워가시는 아, 친애하는 그이의 인간사랑의 정치!

△ 더욱더 메아리쳐오는 특별렬차의 기적소리.

△ 렬차가 달려가는쪽으로부터 붉은 노을이 떠오른다.

주체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적질을 튼튼히 담보하는 강령적문헌

-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발표 20돐에 즈음하여 -

방연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74년 12월 6일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는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적질을 튼튼히 담보해주는 강령적지침이다. 오늘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로작 발표 20돐을 맞이하고있다. 지난 20년간 우리 문학의 발전과정은 이 로작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20년전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주객관적요구를 통찰하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사상전선의 위력한 무기인 문학예술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유감없이 다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포착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모든 지침들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구현을 위한 창작사업을 몸소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자기 발전의 대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그 전성기면모를 계속 높은 경지에서 꽃피워나가고있다.

그러면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가 우리 주체문학의 개화발전을 담보하는 강령적문헌의 하나로서 자기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떨치고있는 그 정당성과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로작이 무엇보다먼저 창작과 창작품의 본성으로 되며 독창성을 담보하는 작가의 개성, 창발성을 살리는 문제에 대하여 독창적이고도 심원한 사상리론적해답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줌으로써 작가들과 창작일군들로 하여금 창작적개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자세와 립장, 개성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올바른 방도를 가지고 창작실천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의 창발성을 억제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수 없습니다. 소설이란 하나의 창작품인데 창

발성을 누르면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작가들의 창작적개성, 창발성을 살려야 할 필요성은 창작과정과 창작품의 본성과 관련된다.

창작과정은 본성에 있어서 작가의 독창성, 창발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며 작품은 그 산물이다. 작가와 작품은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 존재로 되지 못하면 자기의 존재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쓴다면 100가지 같지 않은 작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100명의 작가가 필요 없다.

작가의 개성, 창발성을 살려야 할 필요성은 또한 창작의 창발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창작실천에서 류사성과 도식성에 나타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 요인은 한편으로는 창작가 자신이 창작의 본성에 맞게 창작적개성을 형성하고 높이 발양시키지 못하는 개별적작가의 미숙에 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사업에 참여하는 편집원들과 지도일군들이 작가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데 있게 된다.

창작적개성, 독창적인 창발성은 창작과정의 어느 한두 계기나 요소에서 발휘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종자로부터 구성은 물론 언어구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과 모든 계기, 요소들에서 한결같이 통일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그러면 창작적개성과 그 특성을 살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제멋대로 《창작을 자유화》한다거나 창작에서 주관주의를 허용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창작의 주인은 창작가이지만 창작된 창작된 작품은 인민대중의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작품은 인민대중의 지향, 요구, 리익을 대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 로선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작품은 백해무익하다. 이것은 창작적개성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고 발현되어야 참다운 당적이며 인민적인 창작적개성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창작적개성의 형성과 그 특성의 발현이 참다운 것으로 되자면 또한 그것이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집체적지혜에 의거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창작적개성과 작품이 제멋대로의 자유주의와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고 당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현실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한 참다운것으로 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창작에서의 자유화》와 주관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개성형성과 발현의 합법칙적요구 조건에 맞게 창작적개성이 당과 인민, 현실과 집체적지혜와 굳게 결합된 참다운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독창적인 창발성을 살린다는것을 말한다. 여기에 그 본질이 있다.

창작적개성의 특성을 살린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힌 과학적인 정식화와 그 독창적인 사상은 창작적개성과 그 특성의 형성과 발현에서 작용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통찰하여 내린 규정의 정당성과 완벽성으로 하여 창작적개성의 형성과 발현을 담보하는 방도상의 원칙적요구와 창작방법상의 형상원칙까지 밝혀주고있다. 그 방도상의 원칙적요구는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는것이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는것이고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 창작방법상의 형상원칙은 독창성의 원칙이며 진실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작가가 신봉하는 세계관의 선진성과 높이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담보된다. 그러므로 창작적개성과 그 특성을 참답게 살리게 하는 방도는 현실반영에서 혁명적세계관의 가장 높은 발전단계를 의미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성과 진실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가장 높은 발전단계를 의미하는 주체사실주의방법에 의거하여 현실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것이다.

고전적로작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창작적개성을 살리는 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전일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줌으로써 창작적개성과 관련된 온갖 좌우경적견해에 철추를 내려 극복하게 하고 문학예술발전의 주체적요인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강화하게 하였으며 주체적문학과 예술의 다양하고 참신한 개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게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지난 20년간 우리 작가들이 창작적개성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으로 무장하고 적극 구현함으로써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창작실천을 통하여 참답게 형성하

고 꽃피울수 있었다.

70년대에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이룩하고 그 개화기의 휘황한 면모를 80년대, 90년대로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심화발전시켜나간 대화원속에는 각이하고 비반복적인 개성들이 얼마나 많이 꽃피어나 독특한 맛과 향기를 풍기는 다양하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풍만하게 주렁지게 하였던것인가.

우리 식 영화의 참신한 진면모와 조선영화의 독창적인 얼굴을 빛내인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비롯한 극문학은 더 말할것 없고 로작에서 강조된 소설문학만 보더라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 장편소설들인 《뜨거운 심장》, 《생명수》, 《새봄》, 《평양시간》,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 《영원한 미소》, 《붉은기》 그리고 《축원》, 《로동가정》, 《대지의 아침》(1부), 《행복》, 《탄생하는 계절》, 《청춘송가》, 《야금기지》, 《탄부》, 《환희》, 《높새바람》, 《감오농민전쟁》 등만이라도 상기하여보자.

사회주의현실을 취급한 작품만 아니라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력사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들이 한결같이 독창적이고 창발적인 개성을 높이 발현함으로써 주체사상으로 관통되고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있으며 주체성이 뚜렷이 구현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식 소설의 면모를 참으로 다양하고 비반복적이고 참신하게 빛내이고 있음을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수 있다. 종자와 인물성격, 구성과 언어표현에서 모두가 제나름으로 각기 독창적이고 참신하여 우리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얼마나 백화만발하게 풍부화하고 다양화하고있는것인가. 이것만 보아도 본 로작의 위대성을 현실적으로 표상할수 있다.

본 로작의 정당성과 위대성은 다음으로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들인 현실주체창작에서 나서는 부정선 취급문제, 들끓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데서 문학이 선도적사명을 다할데 대한 문제, 후대교양을 담당한 아동문학분야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줌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튼튼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을 제시한데 있다.

현실주제에서 부정선을 잘 취급하는것은 작품의 구성상 중추적인 고리로 나서는 인간관계를 문제성 있게 잘 맺어주고 푸는 문제인것만큼 작품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정이 지배적이고 부정이 말초적인 우리 사회에서 공정적모범을 내세우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여

부정선을 그리는것을 삼가한다면 그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현실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당의 긍정감화교양방법의 본질을 모르고있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을 모르고 부정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작품은 현실을 미화분식하는 리상화에 떨어질수 있게 되며 견인력을 잃을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부정선을 그린다고 하여 부정투성으로 그리거나 부정을 개조극복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폭로하는데 머무름으로써 사회주의제도자체에 문제가있는것처럼 외곡하는 참을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로작은 이 모든 편향을 범하지 않고 부정선을 옳바로 취급하게 하여 사회주의현실발전의 진면모를 사실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게 하는 지도적 지침을 밝혀줌으로써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적질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여기에 그 정당성이 있다. 영화문학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 《보증》, 《자신에게 물어보라》, 《열네번째 겨울》, 《군대책임비서》, 《평범한 사람》, 《려단장의 옛상관》, 《숲은 설레인다》를 비롯한 수많은 성과작들과 장중편소설들을 상기할수 있다. 이 작품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사회현실의 진면모를 힘있게 긍정하고있다. 이 전진운동과정에서 있게 되는 지배적인 긍정과 말초적인 부정과의 인간관계를 문제성있게 맺어주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극성이 넘치게 풀어보임으로써 작품의 사상에술적질을 얼마나 높이 보장하고있는가 하는것만 보아도 로작의 위대성을 잘 알수 있다.

작가들이 들끓는 사회주의현실과 밀착되어 창작활동을 벌려야 하는것은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의 본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작가가 들끓는 사회주의현실과 밀착되어야 현실이 요구하는 참신하고 심오한 인간학적인 종자를 짚수 있으며 충신효자의 원형에 기초한 전형화도 원만하게 할수 있다. 또 예술적환상의 원천인 생활체험과 생활적인 언어수련도 쌓을수 있다. 또한 사색과 탐구에 몰두할수 있는 충격과 불타는 열정도 가질수 있으며 인간수업도 할수 있고 로쇠도 극복할수 있다. 현실과 떨어지면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초미의 절실한 문제를 들고나올수 없게 되며 탁상문학을 하게 되어 도식과 류사성, 추상성과 인위성을 범하게 되며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필승불패의 생명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비상한 속

도로 전진하는 우리의 들끓는 현실속에 뛰어들어 인민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인간수업과 현실체험을 쌓으면서 작품을 쓰는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창작활동방식으로 삼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질이 높은 문제작, 성공작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생명선이다. 여기에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그 정당성이 있다. 여기에서 시대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길동무로 되는 서정시들과 노래만이라도 상기해보아도 그 위대성을 확인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드린 리인모동지의 헌시들과 《나의 조국》,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명시들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그이의 한생》,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우리의 김정일동지》, 《고향집 추억》, 《우리를 보라》, 《사랑의 미소》, 《김정일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못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우등불》을 비롯한 수많은 명가사들이 창작되어 우리 나라가 명가사, 명곡의 조국으로 칭송받고있는것이 바로 로작의 위대성의 증시로 된다.

좋은 아동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후대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데 더욱 대담하게 달려들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소설, 동요,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하겠습니다.》

아동문학작품을 많이 훌륭하게 써야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대를 이어가며 완성해야 한다. 새 세대들이 날을 따라 더욱더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더 발악적으로 우심해지고있다. 새 세대들을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지 못하면 혁명을 말아먹는다는것을 이전 소련과 동구라과 나라들의 실태가 뼈아픈 교훈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초미의 과업으로 나선다. 여기에서 아동문학이 맡고있는 사명과 임무는 아주 크고 중요하다. 그런데 아동문학은 아동의 시점으로 묘사대상을 형상하는것만큼 성인문학보다 창작하기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을 홀시하는 폐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는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 사회주의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질이 높은 혁명적아동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대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사상주제적내용을 아동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형상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문학작품을 쓰는데서 나서는 방도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준 여기에 로작의 또하나의 정당성이 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지난 20년간 우리 아동문학이 질량적으로 개화만발하고 있는 실태가 그 위대성을 말하고있다. 장편소설 《불구름》, 중편소설 《1학년생》, 《순천소녀》, 서사시 《흥하는 나라》, 동화 《해우와 갈매》, 동요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를 비롯한 많은 성과작들이 나왔다는 사실만 상기하여도 그 높은 질적수준을 표상할수 있다.

고전적로작은 이밖에도 창작의 주인인 작가의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며 넓히는 문제와 작가들의 창작사업을 지도하는 문화예술부와 작가동맹의 사업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푸는데서 나서는 지도적지침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문학과 예술의 전성기를 담보하는 추동력을 튼튼히 마련해주고있다. 여기에 또한 로작의 정당성과 위대성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주체문학의 개화기적면모를 보다 심화발전시키고 우리 당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다하여 나아갈것이다.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박 철

가슴에
이 가슴에 안겨지는
당의 은정 뜨거울수록
내 마음속에 먼저 어려오는 모습

날마다 달마다
우리는 행복이 커질수록
내 먼저 우리르는 영상
아, 밝게 웃으시는
김정숙어머님

존귀하신 그 영상
빛나는 그 영상...
당이 안겨주는 그 모든것
그 하나하나를 헤아리면
깊어지는 생각
어머님을 그리는 이 마음이어

그래서
한낱한시
온 나라 아이들 새웃으로 단장시켜주는
당의 사랑에 목메일 때면
보여드리고싶어 그 모습 보여드리고싶어
우리 마음 어머님께로 달려갔어라

풍과사나운 이 세월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을 사열하실 때
더더욱 간절히 어머님이 생각나
어머님을 부르며 어머님께
이 감격 아뢰고싶었어라

이 나라의 성산 백두산에서
사랑을 다해 사랑을 다해
향도의 태양
내 조국의 하늘가에 반들어올리신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

그 태양의 빛발아래
나라에 온갖 기쁨이 꽃피도
마음속엔 어머님
그 태양을 따르며
나라에 크고작은 경사가 생겨도
마음속엔 어머님

세상을 둘러보며
참된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해
강대하던 나라가 무너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며
다시금 사무쳐 다시금 그려보는
우리 어머님

아,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당의 위업
빛나고 빛날수록
더더욱 빛을 뿌리는
어머님의 모습이어!

빛나시라 영원하시라
무궁한 세월의 한끝까지
아, 어머니
혁명의 어머니시여!

조국의 천만년 세월에

김영길

드르릉-

장엄한 력사의 대경륜을 알리는가
비에 젖은 안개 걷히는
이 나라 조종의 백두성악우에
우뢰가 지동친다
삼천리 강토를 뒤떨치며
폭풍을 일으킨다

가슴터지는
민족의 대곡성이 밤낮으로 그칠줄 모르던
그 슬픔의 포도석우에서
분연히 눈물땀고 일떠선 인민
수령님 높이 손길들어 가리키시는
광휘로운 새 세기의 하늘가에
천하를 짓태울듯
이글거리며 불타는 태양을 우러른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력사와 인민의 총의우에 더 높이 모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전설의 신화가 깃든
백두의 성지에 내리신 천출명인!
영명하신 수령님의 천품을
넋과 의지로 지니고 솟아오르신
위대한 태양의 계승인

만산야를 굽이치며 모여든 강줄기는
바다로 이어지고
바다는 끝없이 격랑치듯
후세에 불멸할
성스러운 태양의 위업
무한대한 태양의 그 빛발 그 열도로만
찬란히 꽃피울수 있나니

아 세기의 위인 **김정일**동지!
그이는
이 나라 반만년 력사가
다시 높이 받들어올린
민족의 태양!
지구우에 자주의 새 세기를 펼쳐가시는

주체의 태양!

김정일 김정일!
그이 아니시고
누가 사회주의의 붉은기치
세월의 끝까지 들고갈수 있으랴
그이의 령도가 없이
수령님 평생토록 바라신 조국통일
주체위업의 최후승리
그 생전의 유한을 다 풀어드릴수 있으랴

그이이시다!
그이 한분뿐이시다!
하늘같은 품에 인민을 다 품어안으시고
삶을 꽃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천하대적도
백두의 담력으로 길들여 무릎꿇게 하시는
희세의 령장!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
먼 해외에서도
수령님을 잃은
민족최대의 그 슬픔 그 절통함에
땅을 치고 몸부림치며 울던 겨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끓어솟는 심장의 맹세 다지고다지나니

오호-
백년 또 백년
무궁한 년대속에 모시리라던 수령님
못다 이어드린 그 세월을 합치고합쳐
못다한 충성과 효성을 더해
김정일장군님을 길이 받들어모시려니

인민은 력사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길가의 구호만으로써가 아니라
천만의 심장과 심장 다 바쳐 받들리라
전사의 사명과 본분을 생명으로 지켜
경애하는 그이의 만수무강
조국의 천만년 세월에 이어 이어가리라

영생의 언덕에서

윤대중

《기사장동지 방이 비었습니다.》

《기사장동지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전화가입자들에 대한 교환수의 대답이나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기요원 처녀의 말을 서로 다르지만 사무실에 없다는데서는 언제나 일맥상통했다. 한쪽다리에 부정맥이 오곤하여 몇달째 지팡이 신세를 지면서도 오직 인생의 락은 일밖에 없는듯 온 공장안을 메주밭듯하며 다니는 기사장을 가리켜 교환수나 기요원은 없다는 말을 자기들의 《대명사》처럼 간주한듯싶다.

그래서인지 한번은 찾아온 손님에게 현장에 나가고 없다는 말을 하는찰나에 기사장이 방문을 열고나와 기요원처녀가 얼굴을 싸쥐고 몸을 피한다는 것이 위생실로 뛰어가 사람들을 웃긴 일도 있었다.

《랑해해주오, 내가 늘 방을 비우다나니 버릇이 돼나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사장 정혜국은 이런 사람이다.

비교적 길쭉한 얼굴에 하루가 멀다하게 수북하니 돌아나는 구레나룻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 모르게 뻥뻥하고 엄엄한 인상을 남기나 기술문제앞에서는 대방이 누구든 허심하고 진지했다.

오늘도 그는 날개직장 장비작업반의 엄동무가 새로 창안한 5만키로와트화력발전기 타빈고속단날개가공지구에 대한 현장협의회와 새형의 발전설비드람동체말이지구에 대한 기술협의회를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역시 대안사람들의 심장이 뜨겁거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대한 립장이 투철하단말이야.)

그는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만 생산에 도입되면 가공주기를 3분의 1로 줄이고 발전설비생산의 결린 문제가 풀리는셈이다.

이제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발전기 한대분의 여유자재탐구와 새형의 발전설비제작설계만 끝나면 사람들은 참호를 차고일어나 돌격으로 나갈것이다.

혜국은 어제저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 안고 신심에 넘쳐 열변을 토하던 자재과장 양창길과 설계사업소 실장 차효철의 모습이 떠오르자 가

슴이 뿌듯했다.

《기사장동지, 12시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존에서 중대방송이 있습니다.》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가던 혜국은 기요원처녀의 말에 《알겠소.》하며 작업복단추를 벗기었다.

시계를 보니 중대방송시간이 가까와왔다.

그는 텔레비존스위치를 넣고 자기책상에 마주앉아 사업수첩을 펼쳤다.

오후에 있게 될 발전설비 1기분예비탐구와 제작설계를 위한 협의회준비를 식사시간전에 끝내야 한다.

사업수첩에 협의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적어가던 혜국은 텔레비존방송원이 화면에 나타나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이어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향》이라는 방송원의 푹 갈린 목소리가 사무실안에 울려퍼졌다.

방송원은 비애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전체 인민을 불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알리었다.

정혜국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린가?)

갑자기 눈앞이 어질어질해오더니 앞에선 바람벽이 움썽움썽 뒤채이는듯한 환각에 도무지 몸의 중심을 다잡을수가 없었다.

그는 책상모서리에 두손을 짹 눌러잡고 눈을 홑뜨쳐 방송원의 얼굴만 억이 막혀 바라보다 밀등잘린 나무처럼 오금을 꺾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망막속에 짹 안겨오는것은 어제그제 자기를 앞에 불러앉히시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었다. 련합기업소 기사장 정혜국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행기로 현지에 도착한것은 새날이 밝기 시작한 7월 6일 바로 사흘전 아침이다.

한 일군의 안내로 어버이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회의장이 정돈된 후였다.

이어 요란한 박수소리와 함께 자나깨나 뵈고싶던

아버이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정정하신 걸음으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를 사회하시고는 언제나와 같
이 소탈하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현국제국내정세에 대하여, 인민경제발전과 인
민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기쉽게 가르쳐주시었
다.

혜국은 그이를 모시고 진행되는 회의때마다 받아
안게 되는 감정이지만 이제는 꼭 쉬어야 할 80고령
의 나이에도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기울이신다고 생각하니 그이를 받들어야 할 일
군의 한 사람으로서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누가 왔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차근차근 적어가던 정혜
국은 갑자기 대안중기계라고 하시는 그이의 부름에
굳어진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세웠으나 선뜻 대답
을 올리지 못하였다.

《누가 오지 않았소?》

인자한 음성으로 거듭 찾으시는 그이의 부름과 옆
에 앉은 일군의 권고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자각
한 그는 《기사장 정혜국이 왔습니다.》하고 대답
올렸다.

《왜 뒤에 앉았소? 여기 좀 나오오. 내앞에 가가
이.》

혜국은 정무원의 책임일군들이 앉아있는 앞좌석
에 감히 나설수가 없어 주춤거렸다.

《나오라는데 어서, 나오오.》 그이께서는 멀리에서
온 자식을 귀중히 여기는 친아버지처럼 몇번이나
손짓을 해보이시였다.

그러시고는 바로 앞에 앉은 혜국이를 향해 철도와
함께 전기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가
르치심을 주시였다.

당면하게는 원가가 적게 들고 효율이 높은 원유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안중기계
에서 한해에 발전기를 몇대씩 생산할수 있는.

그것을 생산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하나 물
으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힘있게 밀어주겠으니
대안중기계가 발전기생산을 본때있게 내밀어보라
는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알았습니다. 아버지수령님!》

혜국은 온 대안땅이 떨쳐일어나서라도 수령님께
서 심려하시는 전력문제를 기어이 풀고야 말겠다고
몇번이나 거듭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제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제기된 문제를 건당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이 무슨 당치않은 소린가. 어
떻게 그토록 강의하고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출
수 있으랴. 혜국은 믿고싶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졌다거나 지구가 깨어졌다면 몰라도
아버이수령님의 부고만은 믿을수가 없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 머리를 번쩍 들었다.

혜국은 방송원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을 부를
때만 해도 뭐가 뭔지 도무지 견잡을수가 없었다.

그러다 수령님의 질병과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인 감정결과를 알려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아픔을
느끼며 사무실바닥에 의식을 잃고 나동그라졌다.

무척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공장기
술협의회는 자정이 가깝도록 계속되였다.

문제의 주역을 담당한 자재과와 상사, 설계사업소
가 좀처럼 무거운 침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협의회는 공회전만 거둬할뿐 전진이 없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한 마음들이여서 심분리해는 가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소심해질수가 있는가.

기사장 정혜국은 하루이틀사이에 몰라보게 자란
구레나룻을 쥐여뜯다말고 자재과장을 불러세웠다.

《어서 말해보오.》

양창길은 기사장의 부름에 일어나기는 했지만 머
칠진 것처럼 정열에 넘치던 모습은 어디로갔는지
축 처진 자세로 기사장을 쳐다볼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혜국은 자재과장의 탁 풀어진 눈가
를 바라보다 못해 짐짓 엄한 소리로 물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자재는 아직 타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애당초 수령님의 교시를 접할 때는 무엇을
믿었댔소.》

《탐구중입니다.》

창길은 더 서있기가 힘에 부친듯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무너지듯 앉아버렸다.

《자재상사!》

《찾아보는중입니다.》

상사쪽에서는 일어서는것조차 힘겨운지 앉은자리
에서 대답해버렸다.

여느때같으면 일떠세우고 무섭게 닦아세울 혜국
이었지만 왜서인지 오늘날은 그러고싶지 않았다.

생산에 자재를 앞세우는것은 기업관리의 초보적
인 상식이라는 판에 박은 말로 첫째 문제를 마무리
하고 말았다.

《설계실장동무, 새형의 발전기설비제작설계는 어
느정도 됐소?》

설계실장 차효렬은 응당 이번 발언권은 자기에게
차례진것이라는듯 짐짓 시간을 두며 일어서더니 다

짜고짜로 제기할것이 있다고 하였다.

《어서 말해보오.》

《위낙 설계가 까다로운데도 있지만 작업량적으로 볼때 도무지 기일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여보.》

혜국은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설계든 제작이든 맡겨만주면 기일을 앞당기겠다고 탕탕 큰소리를 치던 당신네가 몇칠이지났다고 벌써 그 모양이요. 그 모양이.》

글쎄 예비탐구는 어떻게 보면 눈감고 헛손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라는것은 철저히 과학인데 큰소리칠 때는 무슨 타산이 있었을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과학적타산이 며칠새 리치가 변해... 이것은 단순히 비애의 감정이 아니다.

그러나 진단을 바로하면서도 처방을 내릴수 없는 의사처럼 혜국이 자신으로서도 이상할 지경으로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있었다.

이윽고 어떤 알수 없는 힘에 떠받들리우듯 벌떡 일어나기는 했지만 목소리는 예상외로 조용했고 회의 역시 조용히 끝나고 말았다.

안타까웠다. 기사장자신이 조직한 회의가 이처럼 결과없이 끝을 보기도 처음이었지만 참가자들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되기도 보기도된 일이였다.

혜국은 비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당장 시작해야 할 발전기생산이 점점 오를수 없는 험산처럼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수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모르게 솟구친 눈물이 두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오늘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론 영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혜국은 사무실을 나서서 퍼붓는 비줄기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수령님의 동상으로 또다시 향했다. 아침저녁으로 때없이 뵈고싶은 걸음이었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받들어모신 위대한 태양을 잃은 그 통곡소리 하늘땅에 넘쳐나고 쏙고쏙는 슬픔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백날 아니 천날을 기원하여 우리 수령님 심장의 박동 다시 울리고 해빛처럼 밝고 환하신 그 모습을 다시 뵈울수 있다면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하랴.

혜국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을수 없어 대돌에 몸을 던지며 부르짖었다.

《수령님. 것처럼 위대한 심장도 멈춰선단 말입니까?》

수십여년전 눈내리는 대안의 구내길을 걸으시던

그 옷자락이 오늘은 비바람에 흩날린다.

수령님께서서는 대안의 로동계급과 이밤도 나라의 전력생산문제를 의논해주는듯싶었다.

그렇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시지 않으시였다.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속에 그이께서는 어제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비오나 눈이 오나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는데 잠시나마 마음의 동요를 안고산 자신에 대해 솟구치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혜국은 분연히 몸을 일으켰다.

슬픔과 비애를 힘과 용기로 바꾸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려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대안의 로동계급이 있는 한 새형의 발전설비는 기어이 앞당겨질것이었다.

혜국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계단을 내렸다.

사흘후였다.

기사장을 찾아왔던 자재과장 양창길은 제깎에 성이 돌아 버럭 소리쳤다.

《동무는 말끝마다 현장현장하는데 기사장동지가 어디있단 말이요?》

의자에 앉아 글을 쓰던 기요원처녀는 그 서술에 흠칫 놀라며 몸을 솟구었으나 이내 사람단련에 익숙한 그 상냥한 웃음으로 과장을 곱게 바라보았다.

《과장동지도, 공연히 큰소리네.》

《큰소리치지 않게 됐소. 발전설비 기본예비를 찾았는데 이게 어데 큰소리에 비길거야, 기사장동지 더러 대포를 쏘라고 해야지.》

《하지만 사무실에 없고 현장에 없는걸 제가 어떻게 하릅니까.》

처녀는 여전히 오목눈에 웃음을 찰랑거리며 대답했다.

《그럼 기사장동지가 하날로 올라갔소, 땅으로 찾았소?》

《요즘엔 어두워야 사무실에 들어오십니다.》

창길은 후-하며 모두숨을 내쉬더니 무작정 기사장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털썩하니 장의자에 주저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어지간히 지친듯한 그의 몸이건만 눈에서는 사뭇 정열이 번쩍거렸다.

그제밤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조의를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창길은 그대로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어 현장으로 나왔었다.

철강재창고를 지나 일반창고로 향하던 그는 어둠속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들려와 무작정 달려갔다.

《누구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일도 아니요. 그만 발을 헛디뎠아서.》

그러면서도 발을 헛디뎠었다는 사람은 일어설 줄 몰랐다.

《가만 이 어방어디에 내 전지가 떨어졌었는데》

창길은 자기의 손전지로 넘어진 사람을 비쳐보았다.

뜻밖에도 기사장이었다.

기사장은 창길이 비치는 전지불아래서 펼쳐놓았던 수첩과 손전지를 찾아들더니 《아무래도 내가 늙었는가 봐.》 하며 허구프게 웃었다.

《여보 과장동무. 내 지금껏 공장안의 직장창고를 돌아보았는데 모르긴하겠지만 예비가 있는것만은 확실하오. 대상별자재는 내놓고서라도 발전설비에 북중시킬만한 자재들이 있드라니까.》

혜국은 예상치 않았던 장소에서 저만이 소중한 보물을 얻은듯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기사장동지, 그런 일이야 우리 실무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편치 않은데...》

《공연한 소리. 내몸이 뭐요? 나는 텔레비존에서 그토록 수척해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올때면 가슴이 찢기는것만 같소. 그래 어떻게 하나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교시를 하루빨리 관철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것이 그이의 만수무강을 위하는 전사의 도리가 아니겠나.》 《기사장동지, 저를 질책해주십시오.》

창길은 자신을 그렇게 질책했고 자재과의 모든 성원들을 예비찾는 사업에 충동원했었다.

《뭐 발전기 1기분예비를 찾았다면서.》

갑자기 문이 벌럭 열리더니 구레나룻의 기사장이 불이 일게 들어 섰다. 창길은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자재명세가 적힌 문건을 기사장의 책상우에 내놓았다.

혜국은 앉을념도 하지 않고 문건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됐소 됐소. 이것이면 한대분은 충분하오, 수고했소 과장동무.》 하고 창길의 손을 잡아 끌며 의자에 앉았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했으면 어버이수령님께 1기분의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올렸을걸... 그랬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소. 나는 일군의 자격이 없소.》

창길은 뼈아프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기사장의 말을 듣느라 가슴이 저려움을 어쩔수 없었다.

《과장동무, 역시 우리 대안사람들이 재간둥이들이요. 주강직장에서는 주강사를 재생해서 쓸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창안했소. 내 지금 시운전을 보고 오는길이요. 나라의 부담을 덜게 됐소. 로동과장의 말에 의하면 출가해서 기대를 놓았던 가정부인들

이 너도나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관철에 한모퉁이를 맡겠다고 떨쳐나섰소, 우리 대안사람들은 바로 이렇소.》

혜국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고 전화로 기술부 기사장을 찾았다.

《부기사장동무, 날개직장장비작업반의 엄동무가 창안한 날개장비는 제작에 넘겼소?》

《아직 확고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망설이고있습니다.》

《여보, 자재과장이 한기분의 예비를 찾았소. 우리 로동계급은 돌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데 망설이고있다는게 뭐요?》

기사장은 극히 실무적인 어조로 사업요구를 따졌다.

《드람굴곡장비는 어떻게 됐소?》

《아직 설계사업소에서 원도가 넘어오지 않아 대기중입니다.》

《뭐요.》

기사장은 치튼 두눈을 한쪽으로 이그러트리더니 움푹패인 두볼을 부르르 떨었다.

아직도 원도가 어찌구저찌구 하는걸 박서는 차효렬이 앉아몽개는 모양인데 도대체 교시관철을 하자는 사람인가 말자는 사람인가 가슴이 가질 않았다.

기사장은 일어서더니 자재과장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듯말듯 움죽거리다가 문을 열고 나섰다.

혜국은 설계사업소 계단을 힘든줄 모르고 뚫아 올랐다.

그는 숨돌릴새없이 설계실의 문고리를 당겼다.

순간 그는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고말았다.

사무실을 떠나 이 문턱을 넘어설때까지 들쭉날쭉하게 쌓아지던 노여움이 줄지에 무너져내리는것이였다.

제도판에 매달려 연신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의 선이라도 더 그으려고 자대를 놀리는 설계원들의 작업모습을 보느라니 가슴이 알알해왔다.

《실장동무는 어디 있소?》

앞탁에 서서 제도자를 놀리던 중년의 설계원이 가볍게 눈인사를 하더니 《저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녀자설계원이 가리킨곳에서는 사람들 서넛이 책상에 모여앉아 금방 내려놓은듯한 도면을 놓고 논쟁을 하고있었다.

《검토중이요?》

코등에 안경을 걸쳐 올려놓고 도면을 내려다보던 차효렬이 꺼꺼부정한 허리를 가까스로 펴며 아는 인사를 했다.

혜국은 실장의 어깨우에 손을 얹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며칠새에 입술이 터갈리고 눈확이 폭 꺼져들어진 모습을 일별하자 그의 고심어린 낮과 밤이 눈앞에 그려지며 눈굽이 아릿하게 젖어들었다.

역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전투는 제도판우에서도 치렬하게 진행되고있었다.

《나에게도 일감을 주오.》

《지원포사격입니까?》

《이를테면 그렇소.》 기사장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비판은 후에 하고 사무실에 가십시오.》

《실장동무,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공장의 총돌격준비는 다 됐소. 로력도 자재도 설비도... 그런데 파녀이 아직 바로서지 않아 그러질 않소.》

기사장은 공장 로동계급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창 의고안 합리안들을 자랑스럽게 손을 꼽아 이야기했다.

《자, 한시간이라도 앞당기지요.》

기사장은 제도판옆에 다가가 제도자를 들었다.

《아!-》

갑자기 외마디 신음소리가 조용한 설계실안의 분위기를 휘저었다.

몸의 중심을 잃기 시작하는 기사장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고 설계대와 장의자들이 부딪치는 삐걱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린다.

긴의자에 앉은 그는 안간힘을 쓰는지 이발을 사려 물고 으스러지게 주먹을 쥐었다. 부정맥이 온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리를 주무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으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그칠새없었다.

실장 차효렬은 못볼것이라도 본듯 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다리가 저모양이 되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하는 사람에게 돕지는 못할망정 엇드레질을 한 자신이 일군은 커녕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량심도 없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죄어들었다.

한참이나 눈을 감고있던 기사장이 몸을 가누며 일어났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연한 소동이요. 난 일없소.》

《얼마간이라도 안정해야 합니다.》

모여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사장을 만류했다.

그러나 혜국은 결연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제도판으로 다가갔다.

《그러다가 정말 병원신세를 지려고 그러니까?》

효렬은 아직도 몸의 중심이 바로서지 못한 기사장의 한쪽 겨드랑에 자기손을 넣어 부축하며 제도판을 막아섰다.

《실장동무, 효자는 아버지 령전에서 통곡은 할지 언정 쓰러지지는 않는법이요. 아버지의 유훈을 가슴에 안은 자식이 그 아버지앞에 쓰러진다면 그건 벌써 자식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추물이요.》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을 절대로 부실한 자식으로 키우시지 않았소.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만 놓고봐도 그렇지, 우리 대안은 벌써 슬픔과 비애를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결연히 일떠섰소.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고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벌써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 발전설비생산의 큰 걸음을 내디뎠소.

자 어서 마지막설계를 다그치자구.》

혜국은 모여선 사람들에게 신심과 환희에 넘친 눈길을 보내며 제도판앞으로 다가갔다.

정혜국기사장은 추도대회장으로 가고있었다.

금방 기요원처녀가 설계사업소에서 새형의 설비설계를 완전히 끝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8월달부터 시작하라고 하던 발전설비생산전투를 위한 준비는 끝난셈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결하는 애도의 10여일간, 그것은 결코 슬픔과 비애의 나날만이 아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갈 때 우리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있는것이다.

추도대회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생전의 위대한 수령님과 대안로동계급과의 영결은 엄숙한 비애의 감정이 차넘치는속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저기에 흐느낌소리가 그칠새없다.

혜국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빛나는 위대한 주체시대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고있었다.

어머님앞에

-항일혁명투사를 대신하여-

김선지

거울앞에 자주 설 나이도 아니건만
머리 희여진 오늘에 와서
내 때없이 거울앞에 서노라

그러면 주름깊은 내 목에
아동단시절의 그 붉은넥타이가
생생히 비껴오고
풀물 오른 군복속에 피끓던
백두산시절로 이 마음 달려가노라

그러면
아 그러면
마음엔 다시 청춘의 나래 퍼는듯
단발머리 곱게 빗겨주시던
김정숙어머님앞에 서보는 이 마음

친언니, 친어머니처럼
참된 인생의 결음을 떼여준 어머니
부모잃은 교아의 설음을
원쑤치는 성전에 용기로 바꿔주신 그때처럼
수령님을 잃은 오늘의 슬픔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백배의 힘을 내여 나아가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는것 같아

내스스로 마음속에 묻노라
들판에 풀대같이 연약하던 이몸을 안아
장군님전사로 억세게 싸우자고
내 마음 단장시켜 내세워주신
어머님앞에 땀땀이 오늘도 사는가

한창나이 그 시절
땀에 젖고 포연에 물든 모습
이름없는 밀림속 내물에 비쳐보며
싸움길 천리 만리 달리던 그 심장
오늘도 정녕 이 가슴에 뛰는가

어머님앞에 이 마음 세워볼 때면
이 가슴의 영웅메달
송구하고 무겁기만 하노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안겨주신
그 믿음에 사는 오늘
티없이 살자고 채찍을 엮노라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한 오늘에는
날마다 더더욱 그리워지는 어머니
우리가 더 뛰고 일하지 못해
어머님 념원 못지킨것 같아
죄스러운 이 마음

내 거울앞에 설 때면
이 머리 빗겨주시던 백두산시절처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오늘의 백발도 다시 빗겨주시여라
죄스러운 이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시며
절절한 당부도 다시 하시여라

이런 때면 이런 때면
어버이수령님 유혼이
어머님 말씀과 함께 울려
머리 희여진 오늘에도
다시금 철이 들듯
심장도 새롭게 뿔뿔여라

우리의 운명
조국의 운명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위해
백두산시절처럼 살라고
한생의 끝까지 빛나게 살라고
어머님은 오늘도
이 마음을 단장시켜주시여라

조선의 힘

김만영

내 지금껏

마음껏 노래했노라

우리 당

우리 군대

우리 인민을

당을 노래할 때면

당을 옹위하는 군대가 떠오르고

인민을 노래할 때면

군대와 인민들 속에 함께 있는

우리 당의 모습에 보여오더라

오만한 제국주의자들로 하여

이 땅에 준전시가 선포되던

그때 그 나날

내 무엇을 보았던가

쇠물을 끓이던 용해공들

봄철이라 밭을 갈던 농민들이

한손에 더욱 굳게 잡던 총을!

고등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병사로 탄원하던 비장한 모습을!

나는 들었노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놀래우려고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파도마냥 일떠서던 심장의 웨침소리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그 소리는

존엄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뢰처럼 더 커지는 소리

다치면 다칠수록

김정일장군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지는 소리

그 소리앞에

핵광풍을 몰아오며

으르릉대는 원썩들의 무한궤도소리도

악을 쓰는 비행기의 동음소리도

산산이 부서져나갔거니

태양이 있어 태양계가 있듯

최고사령관동지 계시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

당이며 군대여 인민이며

우리 힘 당할자

이 세상에 누구랴

찬바람 불어치는 동란의 이 시기

따뜻이 품어주고

승리로 이 끌어주며

존엄높이 내세워주는

그 사랑 그 령도가

이 생명체의 피가 되고

열이 되고 숨결이 되었나니

제국주의의 화산이 열백번 일어나도

더 높이 부르며 가자

당이며 군대여 인민이며 영원한 승리의 노래

김정일동지의 노래를

온 세상에 떨치는

이것이

력사를 바로잡아나아가는

조선의 담력

조선의 위대한 힘이여라

늘어나는 이름

김종원

얼마전 나는 어느 한 극장에서 참으로 인기있는 공연을 보았다.

시내의 근로자들, 군인들로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막을 연 군민련환공연!

병사들과 사회의 예술인들, 학생소년궁전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출연한 이 공연은 정녕 흥분과 걱정없이 볼수 없는것이였다. 물론 나는 이날 이때껏 포전머리에서, 건설장에서 군민이 함께 펼친 오락회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군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이름을 달고 이렇게 큰 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군민련환공연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녀성군인이 종목을 소개하면 소년궁전의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회의 예술인이 소개를 하면 병사들이 무대에 나와 자기의 특기를 보여주었다.

작품들도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매봉산의 노래》, 민요제창 《우리 학교-우리 초소》 등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일편단심 따르며 받들여갈 군민의 신념과 군민일치의 주제를 기본으로 관통하고있었다.

참말로 공연이름도 새롭고 형식 또한 새로와 볼수록 크나큰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그 시각 나에겐 몇달전 취재길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강원도의 어느 한 산간마을에서 있는 일이다.

무대와 농장마을을 사이에 두고 그리 크지 않은 강이 흐르고있었는데 장마철이면 거기에 놓인 나무다리가 자주 물에 떠내려갔었다. 그런 때면 병사들은 다리가 없어 찬물에 발을 적시며 포전으로 갈 농장원들을 생각했고 농장원들은 강건너 훈련장으로 다니길 불편해할 군인들을 생각했다. 하여 그들은 저마끔 저희들의 초소와 마을을 연결하는 영구적인 다리를 놓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날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다리건설전투장에서 만나게 되였다. 그날부터 군민이 함께 다리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민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무한한 힘이 되어 마침내 군민일치의 결정체인 훌륭한 콩크리트다리를 일떠세웠다. 그들은 이 다리를 《군민다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군대와 인민의 한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군민다리》!

참말로 이렇게 군민의 뜨거운 정을 담아 지은 이름이 어찌 이뿐인가.

《군민포전》, 《군민양어장》, 《군민жат나무림》...

날에 날마다 늘어나는 이름, 그 이름들을 듣노라면 《우리 학교-우리 초소》라 부르며 군민의 정을 두터이하는 남포시의 한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얼굴이 안겨오고 그들이 친형, 친오빠처럼 따르는 초소의 군인들의 얼굴도 보인다.

이 이름속에는 훈련길에 농장의 활창대를 수만대 켜이나 해다주고 봄철이면 여러가지 남새종자를 마련하여 초소에 안고오는 친근한 모습들도 보인다. 초소에 눈보라가 세차면 마을에서는 군인들에게 안겨줄 장갑과 배띠를 누비는 재봉기소리가 노래처럼 울리고 봄날에 농장벌에 찬서리가 내리면 애기모를 지켜 군인들이 지핀 불무지들이 대지를 따듯이 녹여준다.

참말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나는 이름들에 간직되어있는것인가.

군민이 서로 돕고 이끄는것을 무한한 자량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인민의 생명재산을 위해 타래치는 불속에 몸을 던진 군관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해 사품치는 물속에 뛰여든 군인이 그 얼마인가, 군인들을 위해 품들여 돼지를 기르고 인민군창건절이면 지성어린 위문품을 안고 친아들들을 찾듯 초소로 가는 사람들의 수를 그 어찌 천으로 만으로 헤아리랴.

늘어나는 이름!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며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서 나날이 붉게 피는 꽃이며 우리 혼연일체의 화원속에 자기의 그윽한 향기로 풍기는것이리라.

군민의 정이 담긴 이 이름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을수 없는 오직 위대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군민이 땀과 땀수 없는 친혈육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이름인것이다.

이 이름속엔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움없이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끝까지 함께 싸워갈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다.

그러니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결합된 힘을 당할자 세상 어디 있으랴.

그렇다.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래일에도 영원히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따르는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이 있기에...

봄씨앗

황정일

무서리가 내린 늦가을 아침이다. 리만섭은 대문을 나서다 말고 새들이 유난스레 우짖고있는 돌배나무를 쳐다보았다. 해별에 보기 좋게 탄 거무스레한 얼굴에 까닭모를 웃음이 비꼰다.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부엌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찼싸게 그릇들을 부시고있는 안해의 모습이 엿보인다.

《헛참, 점점 제 정신이 아니라니까... 깜빡 잊을 뻔했군. 어보 어제밤에 우리 반을 담당한 새 소조원이 왔소!...》

《그래요?! ...》

안해는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녁에 집구경을 좀 시키자는건데...》

《데려오세요. 그런데 저- 또 총각대학생인가요?》

《허허, 꽃같이 생긴 처녀대학생이요!》

《처녀라고요? ... 에그, 그럼 처녀소조원이 또 당신의 옹고집때문에 속개나 태우겠군요.》

《허허,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릴... 이젠 뭐 속태울 일도 별루 없소... 그저 열매만 따먹다 가면 될거요.》

리만섭은 어깨를 들썹이며 꺾꺾 웃고나서 대문을 나섰다. 벌써 해뿌리가 빠졌다. 무서리가 해빛에 녹으면서 가시처럼 눈을 찌른다. 리만섭은 눈을 가느스름히 뜬채 마을을 한바퀴 빙 둘러보았다. 첫 3대혁명소조원이 이 마을에 나타난 그때로부터 2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마을은 그동안 천지개벽을 한셈이다. 오늘은 여섯번째 소조원이 사업에 착수하는 날이다. 소조원들이 여섯번이나 바뀌도록 파수반장을 해오는 리만섭이니 어찌 이 아침 기분이 들뜨지 않겠는가.

리만섭의 앞으로 염소고삐를 쥔 50대의 몸집이 뚱뚱한 녀인이 다가왔다.

《저 아주머니, 소조원동무가 일어났수다?》

리만섭이 물었다. 바로 어제밤 그 녀인의 집에 소조원이 들었던것이다.

《아유 벌써 파수밭으로 나갔수다. 글썽 날이 밝기바쁘게 흰둥이란 파수밭이 어데 있는가 묻습디다.》

리만섭은 어안이 빙빙해지고말았다. 작업조직이나 하고 소조원을 데리고 흰둥으로 가려던 계획은 다 뒤틀어졌다. 처녀소조원에게 선고를 떼운듯한 어처구니없는 생각도 갈마든다. 뭇때문에 그가 신새벽부터 파수원에 나갔는지 궁금한 생각도 든다.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끝낸 리만섭은 얼마후 생각에 잠겨 스틱스틱 흰둥으로 향했다.

흰둥이란 흰 모래등성이란 뜻이다. 여기 바다가의 무연한 들판에는 바다의 물결작용에 의해 모래부리, 모래둔덕들이 수많이 생겼는데 흰둥도 그중 하나였다.

흰둥은 리만섭일가의 피맺힌 사연이 깃들어있는 땅이었다. 해방전 어느해 봄엔가 황해도땅에서 지주놈에게 소작지를 빼앗긴 한 어리숙한 농민이 이곳 흰둥을 찾아왔었다. 흥남 로동관에서 바다가에 가면 내버린 땅이 있다는 꿈만 같은 희한한 소문을 얻어들었던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락타등같은 허여멀쭉한 풀 한대 없는 모래둔덕이 펼쳐져있었다. 그는 이웃마을 구장네 집에 가서 콩종자를 꾸어다 씨를 뿌렸다. 마침 씨앗을 묻자 비가 내려서 그는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웬걸 비가 몇자 메마른 갈퉁이 터지는데 순식간에 모래땅이 말라서 온통 시누런 먼지구름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련사흘 바람이 지동치듯 불고난뒤 흰둥에 가보니 새노란 콩알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있었다. 그것들은 이미 뜨거운 모래불에 닳아졌었다. 그는 비로소 그 몸쓸 모래등성이가 노고지리 부리 데운다는 불모의 땅이란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렸다. 결국 그 콩종자 한말이 빛이 되어 그는 구장네 머슴을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가 바로 리만섭의 아버지였다.

이 마을에 첫 혁명소조원인 김진구가 왔을 때 리만섭은 프락포르운전수였다. 마을엔 논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일이 나기 시작하면 한 20리쯤 떨어진 향봉리로 과일을 얻으러 가곤했다. 락아소, 유치원 아이들의 새참정도면 별문제였지만 아낙네들까지 반장을 들쭈서 과일을 실어오라고 조르는판이여서 리만섭은 뻔질나게 향봉리로 드나들었다.

한창 농번기에 밤낮 차를 굴려도 일감이 산더미처럼 쌓이는판인데 한나절 통탕거리며 과일 실으러 갔다오면 녹아나는건 리만섭밖에 없었다.

하루는(그날은 추석전날이었다.) 프락포르를 수리하느라 다 뜯어놓고 갑자르는데 반장이 또 과일 실으러 가라고 말했다. 리만섭은 잠깐 망설이다가 당장 가을갈이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이번엔 좀 그만두는게 어떤가고 사정해보았다. 반장도 할수 없었던지 입맛을 다시며 물려서버렸다.

그때 누군가 리만섭의 옆에 쭈그리고 앉더니 부속품을 닦아주며 넌지시 말을 걸어왔다.

《이보우 운전수동무, 그럴것 없이 우리 한번 제

과수밭을 만들어보지 않으려우?...》

그사람은 뜻밖에도 며칠전에 농장에 파견되어온 김진구라 부르는 소조원이었다.

《글쎄말이요. 제 과수밭을 만들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소. 난 밤낮 일해도 힘들것 같지 않아요...》 하며 리만섭은 기대어린 눈길로 소조원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내 어제 돌아보니 거 뭐 흰둥이라는 모래등성이 가 있더구만. 한번 개간해보지 않으려우?》

《하참, 난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 소조원동무, 우리 아버지가 룡농사 짓던 이야기 들어봤어요?》

리만섭의 말에 김진구는 껄껄 웃었다.

《아버지야 그때 혼자였지만 우린 여럿이 해보잔말이요. 땅을 깊이 파고 진흙과 퇴비를 듬뿍 묻어주면 될게 아니요. 어떻게 남에게 손을 내밀겠소. 온전수동문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저 흰둥에 진흙과 퇴비만 끌어올려주오. 우리 소조에서 한번 해볼테니...》

그리하여 강서리가 내린 늦가을 아침, 리만섭은 김진구와 함께 과일나무모를 실으러 갔다.

헌데 도중에서 뜻밖에 트랙토르가 고장이 났다.

나무모가 있는 과수농장까지는 퍼그나 더 가야했다. 김진구는 먼저 걸어가서 나무모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였다. 리만섭은 그를 만류했다.

《아니 뭇때문에 걸어가겠소. 내 제격 고칠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인차 수리를 끝낼줄 알았는데 변속기 치차가 두개씩 나가는바람에 사흘이나 한지에서 고생하게 되었다. 리만섭은 지금도 자기를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강냉이를 구워주던 김진구를 잊지 못한다. 그때 소조원이 먼저 나무모밭에 갔더라면 혼자서 큰 고생을 했을것이다. 그후 흰둥에 과수밭이 생겨나자 리만섭은 작업반장이 되었다...

과일수확으로 흰둥은 법석 들끓고있었다. 어깨에 수확바구니를 둘러멘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꼬리를 물고 발가운데 멈춰세운 자동차끼로 다가왔다.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청년이 수확바구니를 받아 상자에 쏙군한다. 그는 앞가슴이 폭 퍼진 한 녀인의 수확바구니를 받아들며 흰소릴 쳤다.

《에라 또 한바구니 넘어간다. 셋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꿀배로다! 참 뿌돌이 어머니, 이 배가 다 없어지기전에 뿌돌이 큰상이나 차려주구려...》

《아따, 그럼 그 집 뿌돌이와 함께 큰상을 받는다?...》

기술지도원 성팔이도 입심이 보통이 아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들이 터져오른다. 리만섭은 농립모를 벗어 부채질을 하며 과수밭을 둘러본다. 모두들 신바람 났다. 과일을 다 따버린 배나무들은 보기만해도 거뽀하다. 리만섭은 눈을 감고서도 이 흰둥의 어느 구석에 어떤 품종의 배나무들이 자라고있

는가를 다 알고있다. 어느 나무가 언제 어느때 무슨 병에 걸렸었다는것도! 그는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이른봄, 조용히 뿌리가 뻗는 소리며 나무가지들에 물 오르는 소리도 들을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미처 특별한 감각기관이라도 가지고있는듯이 생각하기도 한다.

태양은 흰둥의 상공으로 높이높이 솟아오르며 따스한 해빛을 퍼붓는다. 모래땅이 달아오르고 아지랑이같은 파르스름한 운무가 피여오른다. 사방엔 들크무레한 과일향기가 떠돈다. 지어 어데선가 시큼털털한 발효주냄새까지 풍겨온다. 리만섭은 습관적으로 코를 벌름거린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나무 밑등새로 과수밭을 휘휘 살펴본다. 저쪽 발머리에 며칠전에 무쳐놓은 락과무지가 보였다. 일손이 딸려서 미처 가공공장에 실어못갔더니 저절로 발효되고있다. 수확바구니를 멘 처녀 하나가 그 락과무지 앞에서 서성대다가 이리로 걸어왔다. 걸어올린 하얀 종다리, 모래불에 푹푹 빠지는 신발...

배나무에 가리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굴가?

저렇게 하얀 종다리는 처음 본다. 과일바구니가 무거운지 가느다란 종다리는 씹없이 새끼를 꼬며 온다. 그 종다리의 입자가 배나무가지들을 헤치며 불쑥 앞에 나타났을 때에야 리만섭은 새로 온 소조원을 알아보았다. 멧을 부려 지은 연회색잠바는 땀에 젖었고 배나무잎에 뿌린 흰 농약이 묻어 얼룩덜룩했다. 리만섭은 마주나가며 그가 멘 수확바구니를 받아들었다. 목직했다.

《허허 참...난 또 누구라구!...》

윤희는 앵두처럼 발깃발깃 익은 얼굴에서 땀을 씻으며 생긋 웃었다.

《호호... 흰둥의 배가 유명하다길래 먼저 나와봤어요! 밤에 아이들처럼 과수밭을 찾아해매는 꿈까지 꾸걸요...》

《하 그래요?!...》

리만섭은 눈귀의 잔주름을 활짝 펴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긴 언젠가 평양에서 너기자가 취재를 왔었는데 그도 흰둥의 배를 맛보고나서 남방의 꿀이나 바나나 따위가 왔다 울고가겠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윤희도 역시 기분이 들떠있는것 같았다.

《정말 새벽에 나와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날이 밝기 시작하자 울망줄망 시누런 배들이 주렁진 나무가지들이 저의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황홀해서 가만 섰노라니 어데선가 푹 하고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토끼풀속에서 떨어진 배를 찾아냈어요. 익어서 저절로 떨어졌더군요. 얼마나 향기롭던지!... 이런 모래불에 어쩔 그런 열매들이 열렸을가요?》

(허 이 처녀 감정이 보통이 아닌걸!)

리만섭도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했다.

《모래땅엔 해빛반사률이 높지요. 그래서 과일들

이 더 달게 익는것ियो!》

과일을 다 실은 트랙포트가 발동을 걸었다. 뒤이어 어데서 나타났는지 자동차가 트랙포트가 떠나기 바쁘게 콩무리를 들이댄다. 운전칸에서 점잖게 생긴 녀인 하나가 나오더니 성팔이와 수군거린다.

얼마후 그 녀인은 성팔이를 앞세우고 리만섭이 네한테로 걸어왔다.

《허 이거 런포목장유치원 원장이 어떻게?...》

리만섭은 이웃손님을 알아보고 반색을 했다.

녀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방긋 애리나는 미소를 지어보인다.

《반장동무, 저장용으로 쓰려는데 다섯톤만 주세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장동문 반장동무에게 알아보다더군요.》

리만섭은 성팔에게 묻는듯한 눈길을 던졌다. 성팔은 딱한듯 두팔을 벌려보인다.

《글쎄 이젠 딸것이 얼마 없다니까요. 우리 농장탁아소, 유치원 공급이나 계획대로 하겠는지...》

그러자 녀인은 성팔이와는 상대를 안하겠다는듯 리만섭의 턱밑에 다가들며 애원하였다.

《저 반장동무, 우리 목장 아이들도 생각하세요. 당의 뜻대로 매일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자면 내년봄까지 다섯톤은 꼭 있어야 해요.》

《여보게 기술지도원, 한 뿔톤 예비가 없을가?》

리만섭은 두눈을 끔찍해보였다. 그는 녀인들의 이런 사정에는 마음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었다.

《글쎄 무슨 예비가 있겠어요. 사실 정보당 스무톤씩은 나야 요구하는대로 줄수 있는데...》

성팔은 어찌할수 없다는 식으로 반장을 바라보며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리만섭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어머니 우리 당을 레년에 없는 과일대풍으로 받들자고 이른봄부터 과일나무비배관리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은 그들이 아니었던가.

자급비료도 구멍이가 넘어나게 뚝뚝뚝 났고 약뿌리기도 전해보다 세번은 더했었다. 농약이 떨어지자 태봉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박새풀파위의 독풀들을 채취하여 식물성농약까지 만들어쓴 리만섭이네였다. 모래땅이란 정말 사람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것 같았다.

리만섭은 딱한 표정을 지으며 성팔에게 말했다.

《어쨌든 빈차야 어떻게 보내겠나. 다문 한두톤이라도 따주세나. 이제 또 읍유치원에서 울걸세.》

녀인은 할수 없었던지 어깨를 떨어뜨린채 자동차계로 걸어갔다. 리만섭은 녀인의 뒤통수를 지켜 보고있는 소조원에게 한마디 했다.

《과일수확 마감날이면 늘 이렇다우. 그래 해마다 레년에 두구 보자. 내 한번 과수밭에 온 사람들의 소원은 다 풀어주리라 하거든요. 허지만 어디 뜻대로 됩니까. 허허 과일농사란...》

그러나 윤희는 대답이 없었다. 잠깐 다리심을 하

던 사람들은 다시 과일수확에 달라붙었다. 윤희도 수확바구니를 메고 농장원치녀들속에 섞여 과수밭으로 사라진다. 어디선가 선들선들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능금나무 황금나무 산에 심었소》라는 노래가 실려온다. 리만섭도 수확바구니를 얻어 들고 과수밭으로 들어갔다. 문득 리만섭은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배나무꼭대기에 기여올라갔다.

가느다란 나무가지가 휘친거린다. 그 가지끝에는 배가 한두알 매달려 간들거렸다. 리만섭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것은 이미 보름전에 수확을 끝낸 배나무였는데 누군가 손을 넘기어 배 한두알이 남아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이삭주이를 하는 모양이었다. 차들이 꼬리를 물었는데 이삭주이를 하다니... 리만섭은 누구냐고 소릴 치려다가 슬금슬금 배나무앞으로 다가갔다.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뜻밖에도 소조원이었다. 윤희는 새노랑게 무르익은 배를 향해 손을 뻗치었다. 그러나 아직 한뿔이나 모자란다. 보는 사람이 더 안타까웠다.

《소조원동무! 거 나무를 흔드시오.》

그러나 윤희는 그의 말을 못들었는지 한치두치 계속 배밀이를 해나간다.

《헛참 위험하오. 흔들어 따라는데...》

리만섭은 속아 달아 뒤흔다. 소조원이 떨어질것 같아 간이 콩알만해졌다. 드디어 윤희는 배를 손에 넣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그제서야 리만섭은 소조원이 열매가 상할가봐 그런 모험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윽고 윤희는 나무우에서 내려왔다. 그는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배를 닦았다.

《어찌나 익었는지 다치면 막 물이 터져나올것 같아요! 반장아바이 이게 <길주>배가 옳지요?》

윤희는 호기심 많은 소년처럼 물었다.

리만섭은 말없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수를 전공한 소조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희는 수확바구니에서 지금 수확하고있는 《청단》배를 꺼내들었다. 그는 향손바닥에 《길주》배와 《청단》배를 올려놓고 서로 무게를 가늠해보다 생긋 미소를 지었다.

《<길주>배가 더 무겁군요. 아마 50그램은 더 나갈것 같아요!》

《옳소!...》

리만섭은 소조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면서 맛장구를 쳤다.

《저의 짐작이 틀림없는것 같아요. 이 모래땅에는 확실히 <길주>배나 <신천>배들이 다수확품종이에요. 이 품종들을 주품종으로 과수밭을 만들었다라면 지금보다 열톤은 더 생산할수 있었을거예요.》

리만섭은 놀란 눈길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도두룩한 이마, 상큼하게 들린 코마루, 빨간 물이 흐르는듯하는 자그마한 입술... 정말 그 모습은 잘 익은 앵두처럼 울되고 당돌해보였다. 윤희는 잠시 배나

무들의 사이를 휘둘러보더니 아쉬운 소리를 한다.

《그리고 배나무들의 렬간거리도 너무 넓어요. 정 보당 400본은 더 심을수 있었어요.》

리만섭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속에는 과수기사에 대한 경탄의 감정도 없지 않았다. 그 별 같이 총총한 두눈에 이제 무엇이 또 걸려들지도 모른다.

《허허 이제 품종이니 렬간거리니 해야 무슨 소용 이요? 우리와 같은 벌방농장들이 이 흰등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군침 을 흘리지요. 게다가 여러차례 왔다 간 소조원들의 투쟁으로 김매기며 약뿌리기, 거름주기작업을 다 기계화했으니 부러운것이 없지요. 내 그래서 이번 소조원은 좀 호강을 시키다 보낼 결심이요. 이 리만 섭이가 여태껏 소조원들의 덕을 너무 봤거든!...》

《아이참 호강을 시켜요? 호호호...》

윤희는 허리를 까부리며 웃기 시작하였다. 그는 가가스로 배나무가지들 휘여잡고서야 마음을 진정 한듯 웃음을 그쳤다.

《저는 그러잖아도 여태껏 호강스럽게 공부만 해 온걸요. 그래 이젠 막 일을 하고싶어 몸살이 났답니 다. 그런데 야단이군요. 할일이 없다니?...》

웃음은 그쳤으나 윤희의 두눈은 새물새물 웃고있 었다. 그 모습은 밋지 않았다. 그래서 리만섭도 제 껍 말머리를 돌려댔다.

《허허, 뭐 일감이야 없겠소. 내 한번 해보는 소리 요... 잘 도와주시요.》

배나무들 저편에서 성팔의 걸걸한 목소리가 날아 왔다.》

《자, 또 한상자 올라간다. 이 배가 가면 어디로 가는고 하니...》

그다음 뒤소리는 아낙네들의 떠들썩한 말소리때 문에 들리지 않았다.

《허 그녀석 오늘은 기분이 좋았는걸 !》

《정말 쾌활한 동무군요!》

《이제 지내보우, 우리 흰등을 가꾸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지요.》

윤희도 감심한듯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우며 고개를 까딱이었다.

×

리만섭은 해종일 머리가 핑 돌아갈 정도로 과수 밭으로, 관리위원회로 드달려다녔더니 아래다리가 장작개비처럼 뻣뻣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또 흰등으로 가려고 행길에 나섰다. 어느덧 하루해 도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그는 마을어귀에서 마침 돌아오는 비육분조의 윤령감을 만났다. 윤령감은 소고삐를 걸써 잡고 건드러진 목소리로 《군밤타 령》을 부르며 걸어왔다. 비육분조에선 늪에서 수 초나 잔새우를 건져 돼지먹이로 리용하고있었다. 리만섭은 그를 보자 아침에 고기를 좀 잡아보라고 부탁했던 일이 생각났다.

《아바이, 무얼 좀 잡았수?》

《허허, 오늘은 운수가 좋았네. 팔파시같은 잉어 를 세놈이나 낚았지... 고기다래끼를 들여다보게.》

리만섭은 손가락으로 비늘이 막 벗겨질 정도로 살찐 잉어의 잔등을 건드렸다. 잠자코 있던 잉어는 고기비늘을 번뜩이며 와닥닥 요동을 썼다. 리만섭 은 하마트면 잉어꼬리에 귀썹을 얻어맞을뻔했다.

《에크, 그놈 만만치 않은걸! 마을에 가면 우리 집 사람더러 찬물에 단단히 담궈놓으라고 알려주시 우...》

얼마후 윤령감의 군밤타령이 석양이 비긴 동구길 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과수밭에 당도한 리만섭은 기술지도원 성팔이부 터 찾았다. 누군가 성팔이가 소조원과 함께 배나무 실태조사를 하더라고 말했다. 리만섭은 그들을 찾 아 과수밭을 헤매다니다가 흰등마루로 올라간 밭자 국들을 발견하고 그리로 향했다. 흰등마루에 세워 놓은 풍속계의 바람개비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면 이곳에 세번째로 왔던 박 필규소조원의 번듯한 이마가 먼저 떠오른다.

그는 흰등에서 계절에 따르는 바람의 속도와 그 것에 의한 피해를 연구하느라 저 풍속계를 세웠었 다. 그는 바람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사업 을 진행하였다. 당시 흰등에서 토지보호는 사활적 인 문제로 제기되었던것이다. 한해동안에 바람에 날려가버리는 땅겉데기가 수백톤에 달한다는 소조 원의 말에 리만섭은 깜짝 놀라 아무런 주저도 없이 소조원이 하자는 일들을 해제끼었다.

바람막이숲의 조성, 흙갈이, 토기풀재배... 이런 것들은 바람의 광란으로부터 흰등의 모래땅을 믿을 직하게 보호해주었다.

풍속계아래의 잔디밭에 무슨 도면말이같은것을 펴놓고 두사람이 앉아있었다. 윤희와 성팔이었다. 성팔이가 무슨 수자들을 불러주면 윤희는 열심히 전자수산기로 계산을 하고있다. 계산을 다 마친듯 윤희가 고개를 들었다.

《보세요. 수자들이 증명해주는것처럼 흰등엔 <청단>이나 <모란>, <원산>배 계통은 적합하지 않 아요. 그런데 이런 품종들이 주품종을 이루고있으 니 문제군요. 이런 품종들은 내병성과 가물, 추위견 딜힘이 약합니다. <신천>배나 <길주>배는 빈그루 가 얼마 없는데 <청단>배는 과수밭 조성당시보다 250본이나 없어졌군요. 아마 병에 걸렸거나 가물피 해를 입어 죽었을거예요.》

《하긴 이 흰등이 가물이 심해요. 광포에서 오는 관개수는 논과 밭을 적시면 물량이 적어서 흰등에 까지 충분히 먹이지 못하거든요.》

안타까움에 젖어 윤희를 바라보는 성팔의 두눈엔 그 어떤 기대의 빛이 번뜩이었다.

윤희는 한동안 명상에 잠겨 과일나무들을 바라보 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온 나라의 과수밭들을 백과주렁지는 과일동산으로 만드시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을 생각하면 우린 정말 할일이 많은 새 세대 기술자들이예요. 대학때 우린 북청군 룡전리로 실습을 나갔댔어요. 그곳 과수밭의 한그루한그루의 과일나무들엔 친애하는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었어요. 어느해 무더운 삼복철이었어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덕길을 오르시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맞은편 과수밭의 한그루 사과나무를 가리키시며 다른 사과나무들보다 이상한데가 있지 않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었어요. 아닌게 아니라 그 사과나무는 알릴락달락 잎에 노랑기가 돌고 사과알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이 사과나무는 얼핏 보기엔 정상인것 같지만 축파병이 들어 앓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일나무들이 축파병에 걸리게 된것은 관수를 잘하지 않고 과일나무관리를 과학적으로 주인답게 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군들은 가슴 저미는듯한 자책감과 함께 그이의 비범한 관찰력과 과수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하루에 몇번씩 그 사과나무앞을 지나치면서도 누구도 축파병에 걸린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리만섭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처녀소조원이 무엇때문에 흰등에 과일나무를 두고 안타까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는지 깨달았던것이다. 사실 해마다 가물피해를 받아 적지 않은 과일나무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갔어도 자신은 어쩔수 없는 일인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가. 처녀소조원은 벌써 단번에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발견한것이였다.

윤희의 목소리는 흘러가는 시내물소리처럼 다시 도란도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이께서 일찌기 과수부문의 과학기술서적들을 체계적으로 탐독하셨을뿐 아니라 수령님과 함께 정원에서 몸소 여러가지 과수재배방법을 연구하시었어요. 그후 주체적인 과수재배방법은 온 나라의 과수밭들에 활짝 꽃피나고 수백년 불모지로 버림받던 여기 흰등에도 열매를 맺게 했어요!... 참 기술지도원동문 언제 여기에 왔어요?》

《뭐 저도 울어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온지 한달밖에 안돼요. 사실 우리 반장아바인 저더러 뭐크게 할일이 짬짬이 대학공부나 더 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소조원동문의 말을 듣고 보니 생각되는게 많아요. 우선 흰등에 우리자체로 관수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연구해보겠어요...》

《옳아요. 대답하게 접어들면 방도는 꼭 찾게 돼요.》

리만섭의 얼굴에는 느슨한 웃음이 비겼다. 지금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좋은 시절에 살고있는가!

생각이 곧 벅찬 희망으로 되고 손만 뻗치면 그

희망을 당장 현실로 만들것 같은 힘이 뿜어번지는 청춘시절! 그러나 이들이 과연 어떻게 알것인가.

벌써 오래전에 이 흰등에 관수를 하려고 아글라글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는것을...

리만섭은 그들의 이야기를 방해하고싶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자기가 불쑥 나타나면 무안해할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래 제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눈치빠른 윤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과일나무뒤에 서있는 리만섭을 알아보았다.

리만섭은 할수없이 그들한테로 다가갔다. 윤희는 몸가짐을 바로하며 자기가 앓았던 따스한 풀밭을 내어준다.

《앉으세요.... 오후엔 관리위원회에 가셨다더니...》

《지금 오는 길이지요.》하며 리만섭은 담배를 불여물었다. 그는 파르스름하게 피어오르는 담배연기 새로 덩덩히 앉아있는 두 젊은이를 엿보았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는데 선뜻 말쑥지름 때가 힘들었다. 그런데 더뭉이같은 성팔이가 제먼저 입을 열었다.

《반장아바이, 래년봄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흰등에 관수체계도 바꾸구 품종교체도 해야겠어요...》

참 저 조개무리의 물을 퍼올리면 안돼요?》

리만섭은 놀란듯 두눈섭을 치켜올렸다가 인차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허허, 내 그러잖아도 한마디 하려던참이였네.

실은 이 배나무들을 심은 이듬해 여름이었었네.

우리 흰등에는 수백년래의 왕가물이 닥쳐왔지.

모래땅이 오죽했겠나. 그러자 김진구소조원이 저

조개무리의 물을 퍼올려 관수를 하자고 말기했네.

그래서 한쪽으로 양수장을 만들고 수로를 파면서 물의 수치를 알아보았지. 그런데 뜻밖에도 늪의 열도가 기준수치보다 높다는것이 판명되었네. 그제 관수용으로 쓸수 없는 바다물에 가까운 잔물이었다는것을 누가 알았겠나. 모두들 이제 다구나하고 손뼉을 놓고 주저앉고 말았네. 어느날 새벽 나는 흰등에 나왔네. 그런데 누군가 푸름푸름 밝아 오는 새벽 어둠속에서 배나무들에 물을 주고있었네. 그 사람은 물통의 물을 다 기울이고나서 다시 물지게를 지고 비칠거리며 언덕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 그는 바로 김진구였네.

나는 비로소 김진구가 온밤 마을에서 물을 길어왔다는것을 깨달았네. 글썄 주인이라는 우리들은 한숨만 쉬면서... 한심한노릇이었지. 나는 그만 뜨거운걸 삼키며 김진구의 뒤를 따라갔네. 그는 술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걸어가다가 별안간 조개무리쪽으로 발길을 돌렸네. 그는 늪가에 이르러 물을 한웅큼 떠서 마셔보고는 또다시 한웅큼 떠서 정신없이 들여다보는게 아니겠나. 옆에 물을 두고도 배나무가 말라드는것을 보자니 너무도 안타까와 그러는것이였네....

그날 아침부터 온 작업반이, 온 농장이 물통을 들고 흰둥으로 달려왔네. 배나무들은 김진구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가물을 이겨내구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네.》

리만섭은 갑자기 뜨거운것이 북받치는바람에 말을 끊었다. 그의 눈시울은 불것하게 젖어있었다.

윤희는 살며시 고개를 들더니 흰둥아래 고즈넉이 누운 늙을 바라보며 《저것이 조개무리란 늙인가요?》 하고 물었다.

《옳수다. 늙에야 정말 신수가 멀쩡하지요...》

윤희는 조개무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수면 위에 비낀 저녁라조, 설렁거리는 갈대숲, 낚시군의 한가한 밀짚모자, 조용히 물을 뜯고있는 송아지떼... 처녀의 눈가엔 한가닥 서글픈 미소가 떠돈다.

늙의 목가적인 정서가 처녀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것인가... 성팔은 움푹 잔디밭에서 일어서더니 《에라, 목이 킁킁한데 배맛이나 좀 불가...》 하면서 슬금슬금 과수밭으로 들어갔다. 얼마후 그쪽에서 《저 염소들을 잡아요!-》 하는 성팔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리만섭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며 몸을 일으켰다. 성팔이가 회초리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과수밭에 들어온 염소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한 여라문마리가 잘된다. 그것은 유치원에서 방목하는 염소들인데 아마 관리공이 방심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뿔이 안으로 휘여든 수놈 하나가 기어이 성팔의 회초리를 피해 과수밭으로 돌파했다. 아마 맛있는 토끼풀을 두고 돌아서기가 아쉬웠던지... 그놈은 아예 고삐도 없었다. 리만섭은 수염쟁이 염소를 붙잡으려고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놈은 새노란 눈알을 번뜩이며 리만섭이 다가오도록 토끼풀을 뜯어먹다가 배나무짊으로 빠져나간다. 리만섭이 나무가지들을 피해 에돌아가면 그놈은 다시 나무밑등사이로 슬쩍 빠져나오며 약을 올렸다. 나무가지에 걸려 그의 농립모가 벗겨져 땅에 나딩굴었다. 리만섭은 화가 나서 자기를 도우려고 달려온 윤희에게 말했다.

《그까짓 내버려두오. 이제 곧 무리를 따라갈거요...》

《아이참, 애써 심은 토끼풀을 다 먹는군요.》

윤희는 토끼풀을 한줌 뜯어쥐고 살금살금 염소한테로 다가갔다. 그놈은 리만섭을 경계하느라 윤희에겐 관심이 없었다. 윤희는 살금살금 접근해서는 토끼풀을 내밀었다. 염소는 이제 웬 떡이냐 하는듯 윤희가 내민 토끼풀에 주둥이를 갖다댔다. 염소의 말랑말랑한 혀바닥이 따뜻하게 윤희의 손바닥을 간지럽힌다. 윤희는 그놈의 목덜미를 쓸어주는척하다가 날쌔게 염소의 수염을 움켜잡았다. 순간 그놈은 와닥닥 놀라 발버둥질하며 매-애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반장아바이, 빨리요-》

염소수염을 붙잡고있는 윤희의 두볼은 온통 빨강

게 익어있었다. 성팔이가 어데선가 굵은 바오리를 얻어들고 힘떡거리며 달려왔다.

《허허, 소조원동무의 피가 보통이 아니구만! 그런데 어떻게 수염생각을 다했소?...》

《그럼 어떡해요, 잡을데라곤 수염밖에 없잖아요.》

윤희도 우스웠던지 입을 싸쥐고 껄껄거렸다. 리만섭은 가슴이 훈훈해지는것을 느끼며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거 여섯번째 소조원이 일화를 남기는군! 흰둥에 오자마자 염소수염을 틀어잡았던 말이지... 만만찮아!...)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러자 빨강고 누런 단풍든 배나무잎새들이 한잎, 두잎 리만섭의 머리에 날아내렸다. 그러자 리만섭은 목덜미에 선뜩한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마치 수염쟁이 염소한테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얼굴을 찌프렸다.

×

리만섭은 윤희가 온지 사흘만에야 그를 집으로 데려올수 있었다. 리만섭도 월말이 되어 바빴고 윤희도 저녁이면 소조모임에 가느라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던것이다. 하숙집에 들렀다 조금 늦어 방안에 들어서는 윤희의 손에는 종이로 포장한 길쭉한 물건이 들려있었다. 이윽고 리만섭의 안해가 두리반에 늙담비를 두개 놓아가지고 들어왔다. 잉어남비탕이었다. 리만섭은 윤희앞에 담비를 놓아주고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대변에 속을 후벼내는듯한 구수한 고기국냄새가 흘러넘쳤다. 리만섭은 양념장이며 고추가루도 쳐주며 《자, 어서 상머리에 다가앉소...》 하고 수선을 떨었다. 윤희는 웅색하게 앉아 머뭇거리다가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는 리만섭의 안해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저... 술잔을 하나만 가져다주세요.》

리만섭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종이포장을 뜯었다. 그러자 빨간 목도리를 두른 멧쟁이 술 한병이 나타났다. 《인삼술》 이었다.

《아니 이거 웬거요?...》

《전 어쩐지 이곳 과수반장이 아버지처럼 나이지숙한분일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사나 하자고 이렇게...》

멧모르고 술잔을 들고 올라오던 리만섭의 안해도 손님이 이런 법이 있느냐며 병마개를 못따게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윤희는 벌써 무릎을 꿇고 잔이 철철 넘쳐나게 술을 부었다. 리만섭은 가슴이 벌써 쩡-해오는것을 느끼며 아랫턱을 쓰다듬었다. 소조원이 자기를 위해 술을 가져오다니. 이야말로 처음 있어보는 일이었다. 윤희는 무릎을 꿇은채 두손으로 술잔을 받쳐들며 입을 연다.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

면 제때에 꾸짖어주세요...》

리만섭은 정말 친딸한테서 오랜만에 잔을 받는듯한 감개무량한것을 느끼며 대꾸했다.

《사실 여태껏 작업반에 왔다가 소조원들은 모두 우리와 한집안식구처럼 지냈소. 이제 식사나 끝내고 우리 집 사진첩을 보시오. 소조원들의 사진이 다 있지요. 그것은 우리 집 가보가 되었소.

김진구소조원이 애어린 배나무앞에서 우리 철남이를 안고 찍은 사진은 울여름까지 벽에 걸려있었는데 그녀석이 군대에 가면서 가지고 갔구만...

자, 어서 식기전에 드시다.》

윤희는 리만섭의 안내가 올라와서야 수저를 들었다.

《참, 잉어는 어디서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몇술 뜨던 윤희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리만섭을 바라보았다.

《뭐 어디서 잡을게 있소. 조개무리에서 잡았지.》

《정말이세요?》

《허허, 뭇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겠소.》

리만섭은 윤희의 두눈이 이상한 광채를 띠고 반짝이는것을 보았다. 식사를 끝낸 다음 윤희는 리만섭의 안내와 더불어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자리를 떴다.

담배를 피워뿜 리만섭은 퇴마루에 나앉았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동실 떴다. 달은 연회색 구름 더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면서 마을의 기와집들이며 탈곡장의 우뚝 솟은 스테이지붕이며 안개자욱한 저 멀리 들관끝까지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밤작업을 하는 트랙터의 발동소리가 창문을 뒤흔들며 지나간다. 밤의 대기는 맑고 청정한 유리창처럼 투명하다. 조개무리쪽에서도 무슨 소음이 들려온다. 뜰부기의 다급한 울음소리, 물장구소리...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게 분명했다. 누굴까? 밤낚시군들인지도 모른다. 이쯤되면 리만섭은 집에 앉아배기지 못한다. 그 역시 한때는 낚시질에 미쳐돌아가던 사람이니까...

늑가에 이른 리만섭은 낚시군들이 아니라 늑가운데 매생이가 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쏘아지는 달빛을 배경으로 한사람은 노를 젓고 한사람은 그물을 끌고있었다. 윤희와 성팔이가 틀림없었다.

윤희는 제법 멋지게 노를 젓고있다. 소조원한테서 그런 취미도 있었던가? 얼마나 열성적인가! 리만섭은 배가 기슭에 나오길 기다리며 풀숲에 쭈그리고 앉아 빠금빠금 담배를 피웠다. 그러자 불현듯 그의 머리속엔 혹시 이게 성팔의 장난이 아닐까하는 의혹이 불쑥 갈마들었다. 성팔은 종종 엉뚱한것을 하여 리만섭에게 꾸중을 듣곤했다. 리만섭은 순간 별똥 일어서며 성팔에게 소리치려다가 소조원을 생각해서 꼭 참았다.

얼마후 매생이는 빠른 속도로 기슭에 닿았다.

리만섭은 배전에서 뛰어내리는 성팔에게 한마디 했다.

《자네 지금 제 정신인가? 한밤중에 무슨 재구를 치지 못해 그러나?...》

《육은 후에 하시고 빨리 그물이나 당겨주세요. 소조원동무, 자 빨리-》

성팔은 리만섭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넘기며 서둘렀다. 셋이서 그물을 추었다. 그물을 기슭으로 다 끌어냈을 때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반장아바이, 용서하세요. 사실은 제가 먼저...》

《아 그랬댔소? 그럼 진작 터놓고 말해야지.》

윤희는 갑자기 《아!-》하고 짤막한 탄성을 내치르며 물고기들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미꾸라지와 버들치따위들이 좀 쉼이긴 했으나 대부분 붕어와 초어 그리고 한두마리 가물치새끼도 섞여있었다.

《이게 붕어들이 옳지요? 그러니 틀림없군요.》

윤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는 리만섭의 손을 덥석 잡으며 흥분하여 속삭거렸다.

《이젠 됐어요. 이 늑의 물을 흰등에 관수해도 일 없을것 같아요!...》

리만섭은 영문을 몰라 두눈을 깜빡거렸다.

《전 아까 잉어탕을 먹으면서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20여년전 소금기가 많아 관수를 못했다는 조개무리에 어떻게 민물고기들이 살고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젠 풀기 힘든 수수께끼처럼 저의 호기심을 자아냈어요. 신비한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제논으로 꼭 확인해보고싶어서 이렇게 기술지도원동무까지 데리고...》

《허 그거 참... 난 무슨 소리인지 쇠통 모르겠소.》

《아이참, 무얼 모르게 있어요. 아마 20여년전에는 이 늑에서 잉어와 붕어같은 민물고기들이 살지 못했을거예요. 저 늑의 하구가 바다와 통했거든요.》

리만섭은 입을 항 벌리고 놀라운 눈길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어정쩡한 가운데서도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아닌게아니라 옛날엔 이 늑에서 조개따위나 철따라 바다에서 오르내리는 황어나 뱀어를 잡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잉어나 붕어들이 언제부터 이 조개무리에서 살기 시작했을까? 이 무슨 변화란말인가?

윤희는 그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다시 말을 이었다.

《전 아까 바다로 통한 하구쪽으로 가봤어요. 짐작했던대로 늑의 입구가 막혀버렸더군요. 아마 어느 해엔가 강한 파도가 모래를 날라다 입구를 막아버린게죠. 그래서 해마다 내리는 장마비와 눈석이 물에 소금기함유량이 희박해진겁니다. 참, 기술지도원동무, 무슨 그릇이 좀 없을까요? 이 물을 가져다 염도측정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고기들은 도루 놓아줍시다...》

성팔은 아쉬워하며 고기들을 놓아주고나서 그물

을 접어 어깨에 둘러맸다.

《내 가서 얼른 물통을 가져오겠어요...》 하고 그는 성큼성큼 마을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찬데 소조원동무도 들어갑시다...》

리만섭은 저으기 얼굴이 새파래진 윤희에게 말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전 기술지도원이 오면 함께...》

《허 그까짓 물이야 래일 떠가면 될게 아니오.》

《전 오늘밤중으로 물분석을 해보고싶어요. 여기서 과수시험장까지 몇리나 될가요?...》

《원 거기가 어디라구. 40리가 넘는다고요.》

리만섭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다. 윤희는 생긋 웃어보이더니 그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갔다.

《흰등에 생명수를 줄수 있는 일이라면 그까짓 40리가 뭐겠어요. 전 오늘밤 이대로는 잠들수 있을것 같지 않아요. 저 반장아바이, 우리 다시 양수장을 짓고 흰등에 물을 대보지 않겠어요?》

《양수장이요?》 하며 리만섭은 흠칫거렸다.

과연 이제 어디 가서 변압기며 양수기를 얻어온단 말인가. 그리고 전기를 끌어오자고 해도 전주대며 동선들이 간단치 않았다. 저도 모르게 아득한 생각이 들어 그는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늙은것이 아닌가. 언제 일감을 두고 이렇게 타산을 해본적이 있었던가. 그는 윤희가 자기의 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싶어 스스로 얼굴을 붉히었다. 윤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반장동지가 시작을 하면 모두 따라나설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제 농장 아이들이나 과일을 먹인대구 만족할수 있겠어요. 온 나라 아이들을 생각하자요. 앞으로 그루바꿈을 하고 관수까지 하면 흰등에서도 정보당 30여톤은 수확할수 있어요...》

리만섭은 그 엄청난 수자앞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은 겨우 정보당 다섯톤 더 내지 못한것을 두고 섭섭해하지 않았던가. 그의 생각은 복잡해졌다. 년초부터 약뿌리기 회수니 김매기니 정파를제고니 하는데 신경을 썼으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선 생각을 못해본 리만섭이었다. 확실히 속이 트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불만스러웠다. 아득히 먼곳에서 울려오듯 윤희의 담담한 목소리가 고즈넉한 밤의 대기를 조용히 울리었다.

《며칠전 제가 소조원이 되어 대학을 떠나올 때였어요. 제가 탄 최대급행렬차는 어느 자그마한 산간역에서 멈춰섰답니다. 그 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어요. 성미 급한 길손 하나가 운전지휘원을 만나고 오더니 곧 특별렬차가 지나간다고 말했답니다. 모두들 긴장하여 기적소리가 울려오는 산골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글썽 그 특별렬차란 량강도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과일을 실은 특별렬차였어요! 그것은 친애하는 지

도자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실은 특별렬차였어요. 그이께서는 매일 어린이들에게 사과나 배를 꼭꼭 먹이도록 하시기 위해 과일운반을 위한 특별렬차도 편성해주시고 자동차기동대도 조직해주시고 자강도와 량강도 인민들에게 호소하시어 과일운반용기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저는 그 특별렬차를 바래우면서 뜨거운것을 삼켰어요.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더 먹이시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60년대에 벌써 북청을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어졌어요. 이 마을에 왔던 첫 혁명소조원들도 그이의 뜻을 받들어 흰등에 과일나무들을 심은거예요.》

윤희는 조용히 물가로 다가가더니 물을 한웅큼 떠올려 얼굴에 끼얹었다. 쪼르륵쪼르륵 물방울소리, 고요하던 수면에 파문이 생긴다. 건너편기슭에서 찹병 물고기가 뛰어올랐다가 사라진다. 윤희는 늪가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어디서 피어올랐는지 가벼운 안개가 처녀의 잘못된 허리며 칠혹같은 머리칼이 흘러내린 동실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안는다. 달빛은 또 거기에 푸른 옷을 덧입힌다.

그 모습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리만섭 흘린듯이 처녀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걸모습도 가슴에 품고있는 생각도!... 그는 소조원의 제의가 옳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리만섭은 그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루바꿈만은 할것 같지 않았다. 김진구의 부리부리한 두눈이며 파로로 하여 부르렀던 입술이며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던 그의 결결한 목소리들이 방금 귀전을 치는것 같았다. 그가 심은 과일나무들을 뽑는다는것은 리만섭의 가슴에서 김진구에 대한 추억을 영영 뽑아던지는것이 나 다름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나서 윤희에게 사정하듯 말했다.

《이보우 소조원동무, 내 부탁인데 그 그루바꿈만은 그만둡시다. 난 정말 그것만은 못하겠소.

만약 어느때인가 김진구가 이 흰등에 왔다가 자기가 심은것이 아닌 다른 배나무들을 본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소, 아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소... 어허 참...》

리만섭은 가슴속깊이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에 목이 뻐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감동되어 두눈굽이 뜨끈해지는것을 느꼈다. 윤희도 가볍게 어깨를 떨었다. 고개를 떨구는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번뜩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반장아바이 고마워요. 제가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한것이예요. 그러나 그루바꿈을 한다고 해서 당장 큰 나무들을 뽑자는 건 아니예요. 어린 나무모들을 따로 밀식해서 키우다가 바뀌심으면 된답니다. 이걸 꼭 해야 합니다. 또 능히 할수 있는 일이구요.》

윤희는 담배연기만 내뿜고있는 리만섭을 향하여 안타까이 되뇌었다.

《사실 이것은 김진구소조원의 뜻이기도 해요.》

《?...》

《그는 흰등에 과학적인 품종배치를 하지 못하는데 대해 일생 자신을 후회했어요. 아마 후날에야 그는 흰등과 같은 모래땅에 어떤 품종의 배나무들이 좋은것을 알게 된것 같아요...》

순간 리만섭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그것이 어찌 김진구의 잘못이었던말인가. 일생 자신을 후회하다니... 리만섭은 저절로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느꼈다. 김진구의 사람됨됨이를 잘 알고있는 그였지만 이제 아득한 옛일로 돼버린것을 가지고 가슴을 앓고있다니 그야말로 얼마나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란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처녀는 누구인가? 리만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조원동문 어떻게 김진구를 알고있소?》

윤희는 한발자국 다가서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허아래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예요...》

《뭐요? 어허 이것 참!...》

리만섭은 목이 꼭 메여 허둥거리는 손으로 윤희의 손목을 더듬어잡았다. 그제사 첫날부터 윤희가 해온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눈앞에 밝혀왔다. 얼마전 그가 무릎을 꿇고 술을 붓던 일까지도! 왜진작 김진구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지 한심한 생각도 든다.

《네가 정말 김진구의 딸이 옳단 말이나?!...》

걱정에 넘쳐 저도 모르게 너나들이로 부르짖는 리만섭의 두눈곱엔 어느덧 뜨거운것이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소조원생활을 끝마친후 집에 돌아와서 어린 저에게 늘 여기 흰등과 반장아바이에 대해 말씀하시곤했어요. 그래서 흰등은 어린 저의 마음속에 신비한 동화의 세계처럼 깊이 간직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과수학을 전공할것을 바랐어요. 저 역시 그것이 소원이였어요. 그래서 전 농업대학의 원예학부를 졸업하고 과수기사가 되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소조원으로 파견된곳은 여기가 아니였어요. 전 철없는 응석받이 소녀처럼 꼭 여기 흰등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답니다. 당에선 저의 그 소원까지 다 풀어주었어요!》

리만섭은 마치 오래동안 헤어져서 생사를 모르던 자기 살붙이라도 만난듯 자꾸만 윤희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래 아버지는 지금 무얼 하시요?》

《아버지는 우리 나라 농업기술자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땅에 가 계셔요!》

《아 그곳은 우리 흰등보다 더 불모의 땅들이 많

을테지. 아프리카의 황무지들을 개간하느라구 아버지가 정말 고생이 많을거요. 일생을 아버지인 개척자로 살고있구만!... 정말 한번 보고싶구려...》

리만섭의 가슴은 후터워올랐다. 김진구의 딸이 여섯번째 소조원으로 왔다. 세월은 얼마나 흘렀는가! 그러나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대를 이어가며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오고있다. 무엇이 두려운것이 있는가? 거짓을 모르는 저 맑은 눈동자, 지혜로운 목소리, 더 높이 날으지 못해 몸부림치는 저 열정! 바로 이들, 소조원들이 하자고 해서 못해낸일이 무엇이더냐? 지난 20여년간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하고있다. 김진구는 어찌하여 이 흰등을 잊지 못해서 사랑하는 딸까지 보내왔단 말인가. 이 리만섭이가 더 높이 날아오를 궁냥을 하지 못하고 앓아눕고있는것을 다 알고있었던 말인가? 아니 윤희는 당이 키워낸 새 세대 지식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시는 3대혁명전위다. 이 리만섭이가 맥을 놓고 주저앉을 때마다 그이께서는 소조원들을 보내시여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앞길을 터워주시곤하시였다.

당은 지금 우리를 《90년대속도》창조예로 부르고있다. 어떻게 구래의연한 사업방법, 사고방식, 생산활동으로 당의 의도를 받들수 있겠는가.

조개무리가 변한것도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노릇인가.

소조원들은 언제나 열매를 따러 오는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러 오는 사람들이였다. 윤희야말로 이 흰등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큰 열매들을 딸수 있는 봄씨앗을 품고 온 소조원이였다. 그 씨앗은 먼저 이 리만섭이의 가슴속에 떨어졌다. 그레 마음껏 묵은 발을 갈아엎고 대풍의 새 씨앗을 박아다오! 순간 리만섭은 그렇게 힘들게만 보이던 윤희가 내놓은 그 모든 제의들이 정당하게 느껴지면서 그 일들을 단숨에 해제껴버리고싶은 불같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늑가를 따라 이슬에 축축해진 풀숲을 헤치며 물통을 든 성팔이가 달려왔다. 윤희는 그를 향해 마주 달려갔다. 젊은이들은 서둘고있었다.

(그레 이 밤중으로 물을 분석해보겠다고 했지.

소조원동무, 걱정마요. 양수장은 내 꼭 자체의 힘으로 해놓겠소...)

리만섭은 신선한 늑의 대기를 한껏 들이켰다.

마치 그의 심호흡에 이끌려오는듯 늑에서 피여온 우유빛 안개가 서서히 기슭으로 밀려왔다.

안개가 걷히자 달빛이 비친 수면에는 배나무들의 등고선이 명확한 흰등의 자태가 우뚝이 비껴있었다. 그것은 분명 이제 새롭게 변모될 파원의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답사의 길 걸으며 외 1 편

장혜명

흘러간 수십성상을
사이에 두고
앞서간 항일대오의 자취를 따라 걷는
답사의 길

숲속에 편 한떨기 진달래를 보아도
투사들이 두볼에 비벼안고 눈물짓던
그날의 그 꽃갈아
가던 걸음 멈추고 다시 멈추고...

원췌치고 압록강을 건너갈 때엔
젖은 흙 한줌씩 싸안던 그곳에
내 발자국의 놓이는것만 같아
정녕 딛고가기조차 송구스러워...

아, 밀림우에 지나가는 저 바람처럼
세월은 흘러 수십년을 흘러갔어도
흘러간 세월속의 조국에만은

청청한 밀림과도 같이 여기 남아
가슴 세차게 흔들어주는 길이어

꽃 한송이 흙 한줌에도
투사들의 불타는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는 길
성스런 전적지우에 삼가 자욱 읊기는
내 마음속에 밀물쳐오르는 뜨거움이여

천년을 살아 행복이라
이름을 남겨야 값있는 삶이라
이 길을 앞서간 투사들은
너무도 일찍 떠나갔다면

아아, 행복한것이구나! 그네들의 삶은 조국청사에
언제나 지지 않을 꽃으로 피어났으니...
어머니 대지우에
이런 흙 한줌을 남겼으니...

상금

한해중에도 바쁜 년말의 어느날
공장부기부로부터
반갑잖은 전화가 걸려왔었네
급히 왔다가라는...

찾아간즉, 글썽
상금을 타가지 않아
그 무슨 문건인지를 집계못한다는
부기원처녀의 볼부은 소리

그의 책임성에는 리해가 갔으나
맹랑한 걸음에 뒤틀린 심사라
나는 한마디
통을 부리고야말았네

《처녀동무,
년말은 바쁜 때라오
이런 일이야
후날에도 할수 있을텐데...》

《하지만
로동법이야 자각적으로 지켜야죠.》
《!!》

처녀는 내쏘듯 대답했으나
왜서인지 나는 노엽지가 않았네
오히려 그 말에
몽클 가슴이 젖어들었네

차레지는 혜택을
제때에 누리지 않는다고
법의 이름으로 나무람하는 저 소리
아, 내 나라 내 조국이 아니고서야
그 어디 가서 들어볼것인가!

순간 내 머리속에는
가엾은 술한 얼굴들이 떠올랐네
어제는 나라의 주인이었으나
오늘은 길가에 덩구는 락엽마냥
실업의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한때는 앞가슴에서 번쩍였을
훈장과 메달들을
먼지이는 저자거리에 퍼놓고
한푼 빵값을 구걸하는 처량한 모습들...

불쌍한 사람들이여, 부디 오해 말아다오
내 그대들의 슬픔을 비웃고

속되게도 그대들의 불행앞에
내 행복 자랑하러는것 아니었노라

인민이 주인으로 사는 내 나라
사회주의 이 제도가 아니라면
나의 운명 또한 그대들과 다름없으리라는
고마움이, 사무치는 고마움이
그만 때없이 그대들을 떠올려서...

손에 든 상금봉투가 무거웠네
크지 않은 그 봉투우에
이날껏 다 모르며 받아온
어머니 조국의 사랑이 무겁게 실리어
한생토록 그 사랑 잊지 않으리라
뜨거운 감사의 마음도 함께 없히여

당과 함께 영원히

김봉운

머리 희여진 오늘에
스스로 인생길 돌이켜보아
부끄러운 흔적도 있다만
걸어온 길 굽이굽이
길을 잃지 않고
내 어떻게 오늘에로 왔던가

나이는 속일수 없어
피뿜던 시절과는 달리 마음도 여려져
큰길을 걸으면서도 징검돌 밟고가듯
조심어지는 때건만

내 이제는 아노라
먼길을 당을 따라 걸어오며
이몸에 폭 배인 걸음새
습관된 말투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참된지
내 알기에

그 뜻을 어길가바
그 사랑 잊을가바
아침에도 그 생각
저녁에도 그 생각...

외양쇠란 이름으로
태어나서부터 짐승같은 이몸이
바친것 없고
진것이 없어
그래서 더 귀중히 안아 나를 키워준
당의 그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가다니

단 하나 누이마저
주린 창자 움켜쥔채 얼어죽고
사랑을 모르고 자라난 이몸에
당이어 그대는
내 삶의 피줄기를 이어준 어머니
낮이나 밤이나 나를 껴안고

성장의 자욱을 떼여준 은혜로운 그 사랑

하기에 락동강 불타는 그 언덕도
주저없이 헤쳐왔고
눈덮인 태백의 준령 맨발로 넘어
기어이 그 품에 안겼나니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준 힘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그대가 준 지혜

나의 눈빛
나의 목소리
나의 발걸음에
어쩔수 없이 그대만이 비끼고
그대만을 위할줄 아는
나는 영원한 그대의 살불이

날이 갈수록 그 은정 덧쌓여
현질신 끝던 그발을 보며 목이 메이고
손자안고 행복의 층계 오르면서도
초지봉밀에 떨던 나를 생각하나니

아, 당이어
그대 사랑 이 가슴에 바다처럼 흘러들고
그대 믿음 하늘에 닿고
앞가슴에 훈장과 메달이 번쩍인다고
내 어찌 보답의 길 다 걸었다 하랴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래일도 나는 살리
가고가다 힘이 진하면
그대의 붉은 기폭에 안겨 새힘을 안으리
가고가다 쓰러져도
그대의 품속에 영생하며
당과 함께 영원히 나는 살리라

혁명전사들의 값높은 삶에 대한 예술적화폭

-텔레비존극 《좌우명》에 대하여-

리상복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무책임성, 요령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 관료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비관주의, 패배주의에 물젖어 당정책관철을 저해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비라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나가는 길에서 혁명전사로서의 값높은 삶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가고있다.

끝없는 혁명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참된 충신이다.

텔레비존극 《좌우명》은 어느 한 연합기업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삼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여기에 혁명전사의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높은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시청자들을 극세계에 길이 잠기게 하는 텔레비존극 《좌우명》은 오늘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변함없이 꿋꿋이 싸워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펼쳐주고있다.

참된 충신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좌우명으로 한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오직 그 대로만 일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전사들의 어길수 없는 신조로 되고있다.

텔레비존극 《좌우명》은 무엇 보다먼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전사의 사상적순결성을 지성근의 형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연합기업소 책임비서 지성근은 자신의 삶과 투쟁을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것과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주체형의 인간이다.

그는 이것을 혁명전사로서의 더없는 영예로 여기며 삶의 보람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의 사업노트의 첫장에는 자기가 지은 이런 시가 씌여져있다.

천상천하 유일무이 **김정일!**
일격필승 강철령장 **김정일!**
그이 계시면 나는 배고프지 않아

그이 계시면 나는 발벗지 않아
전생을 두고 후생을 두고
희망을 띠고관하네
세상일을 마음놓네

지성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이러한 신념이 항상 드높지 않고있다.

이것은 지성근책임비서의 인생관에 깃든 신념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전사는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순결한 사람이다. 탁월한 령도자를 따라 혁명을 하겠다고 결심품고 나선 혁명가의 심장속에는 오직 령도자의 혁명사상과 의도만이 짙 들어차있다.

지성근책임비서는 적들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말살하려고 그 무슨 《경제제재》에 대하여 떠들면서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있는 형편에서 지난날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오늘 당이 제시한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매 연합기업소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종이공장건설이 방대하고 자체로 해내기가

어려운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현시기 당에서 바라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투쟁일진대 그는 추호도 동요하지 않고 거기에 몸을 적시는것이다.

그는 종이공장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것은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당에 충성다하는 길이며 인민생활을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는 길과 잇닿아있다는것을 확신한다.

때문에 그는 당에서 인민생활에 이바지하자고 우리 연합기업소를 무어주었는데 우리는 우만 쳐다보며 계속 앉아뭇개고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다.

실로 지성근책임비서는 위대한 령도자의 충신으로서 인민을 위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러한 그것기에 보장을 들어올리는 날 그는 기종기운전공실에 올라 운전공 기철이와 함께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바라보면서 저 탑은 모진 광풍속에서도 세상에 솟아 사회주의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신념의 탑을 마음속에 든든히 세우라고 기철이를 고무한다.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전사는 신념이 투철한 혁명가이다.

이 텔레비존극은 오늘의 시대정신에 맞게 그 어떤 난관과 고난 앞에서도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해나가는 지성근의 혁명적신념문제를 훌륭하게 풀어내고있다. 뜻이 깊고 신념이 뚜렷한 인물형상은 일군들을 혁명투쟁으로 고무추동하며 대중을 교양함에 있어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책임문제를 두고 말할 때 지성근은 백번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할 때라야 일군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고 량심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책임! 이것은 지성근에게 있어서 위대한 령도자를 신념으로 받들고 죽어나사나 한길을 가는 일 본새였다.

지성근은 림재용이 종이공장건설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에 부닥쳐 갈팡질팡할 때에도 그에게 동무가 정직한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실천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진정에 넘쳐 말한다. 그러한 책임비서였기에 사고심의하러 나온 부부장에게 사고의 책임은 자기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나라고 법적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것을 그 어떤 가식이나 외교로 생각지 말라고 한다. 남순녀기사의 설계상착으로 사고가 일어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그렇다.

이때에도 지성근의 머리에 종이공장건설보다 먼저 떠오른것은 전화의 그날부터 일련단심 당을 따라 충실히 일해온 사람에 대한 문제였다. 때문에 그는 부부장에게 일손을 놓아도 될 나이가 지났으나 통일의 그날을 바라며 먼저 간 남편의 몫까지 합쳐 종이공장건설을 위해 아달타글 애쓰는 동무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때일수록 료해 사업을 심중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이다.

지성근책임비서는 이런 일군이였다.

한편 부지배인 박찬식은 종이공장건설에 나선 림재용에게 동무는 지금 책임비서가 법앞에 나서겠다고 한걸 알고나 해담비는가고 하면서 애당초 되지도 않을 일을 잔뜩 벌려놓은 허형심에 들든 동무의 행동이 오늘을 책임비서를 잡았지만 래일은 또 누구를 잡겠는지 모르겠다고 옥박지른다.

이 견디기 어려운 극적환경속에서도 지성근은 부지배인 박찬식이 가 례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일하도록 적극 도와나선다.

종이공장건설 마감단계때 보장을 들어올리는 문제에서도 부지배인 찬식은 보장을 들어올리는 일이 한달정도 늦어지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성근은 한달이 아니라 하루, 한시간도 드릴수 없다고 하면서 부지배인동무는 안전하게, 파오없는 인생경력만이 가장 보람있는것이라고 스스로없이 말하는데 당과 혁명에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인생이 무슨 빛이 나며 한순간이라도 당과 혁명 앞에 피와 땀을 아끼는 그런 인생경력은 공백으로 남아있는것이오 그게 곧 파오라고 준절히 말한다.

참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지성근책임비서의 일본새는 더없이 순결하다는것을 시대적조명속에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진심으로 받드는 지성근의 높은 정신세계에 깊이 감복된 기사장은 건설자들앞에서 순간도 인민을 잊지 않는 우리 당, 어머니당에 대한 헌신성이 없다면 오늘 적들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자력갱생,간고분투는 고사하고 중산예비를 동원하는데 단 한방울의 땀도, 피도 보래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숨짓는 패배주의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기업소 참모장으로서 종이공장건설을 앞장에서 밀고나가려 한다고 웨친다.

참으로 지성근책임비서는 부지배인 박찬식과 기사장 그리고 림재용을 비롯한 일군들이 확고한 혁명적인생관을 지니고 일하도록 꾸준히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러기에 텔레비죤극의 마지막에 부지배인 박찬식은 감습을 떠나면서 지성근책임비서에 나처럼 책임이 두려워 발뻘을 하면서 보신하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말해 줄것이 있으니 그것은 책임 그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투신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회주의길로 갈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의 신념이라고 말하는것이다.

드디어 옳은 인생관을 가지고 말하는 부지배인을 보면서 지성근이 옳은 자작시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뒤통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대 비록 낮지 않았어도
앞산이 무너지니
그대 더욱 높았음을
은 세상이 아느라!

정녕 이것은 지구의 앞장에 우뚝 솟아 나아가는 필승불패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량찬 웨침이었다. 참으로 창작가들은 시대에 대한 예리한 안목과 드높은 창조적열정을 가지고 주인공을 비롯한 일군들의 신념문제를 정확히 조명시켜 형상하여 보여주었다.

텔레비죤극 《좌우명》은 다음으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새 세대들의 아름답고 순결한 애정률리세계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료해하러 내려온 지방공업부의 부부장은 남순녀기사에게 동무가 기관책임일군들과의 인맥관계로 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설계까지 고쳐놓았다는 반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묻는다.

그에 대하여 남순녀기사는 기업소일군들이 우리 집을 도와준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래서만이 아니라 아무런 창조성도 없이 시키는 일이나 수직수직 해가지고는 당을 받들수도 우리 제도를 지킬수도 없다고 본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희생적인 일군, 사심없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그런 일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말은 해도 실지로 그렇게 살며 일하는 일군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바칠줄 아는 인간, 진실하고 헌신적인 일군들의 신상에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 불행처럼 감수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남순녀기사는 당장 책임비서에게 생길 일을 두고 급한 마음을 가진 너자로서 그렇게밖에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전사들 사이의 련계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적일치성이다.

남순녀의 눈에 보인 지성근책임비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과 령도자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의리심이 뜨겁고 열렬한 인간이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은덕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한데서 우리나라의 마음에서 남순녀기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것이다.

또한 이 텔레비죤극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관도 진실하나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순녀기사의 아들인 기중기운 전공 기철이와 부지배인 박찬식의 딸인 유치원 교양원 봉순이의 사랑은 진실로 때묻지 않고 그지없이 아름답다.

기철이와 봉순이의 사랑은 기철이의 어머니가 진행한 설계에서 사고가 났다는 그것으로 하여 또 봉순이의 아버지 박찬식부지배인이 리기적타산을 앞세운 간섭으로 하여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아버지 박찬식의 휘방으로 그들의 사랑에는 금이 갔으나 상처에 새살이 나와 아물듯이 사랑은 곧 회복된다.

봉순이는 20톤능력의 기중기로 30톤이나 되는 보장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기철이를 고무하여 그가 일하는 기중기운전공실안에 금실로 수놓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글과 꽃방석을 가져다놓으며 그의 성과를 진심으로 바란다.

새 세대들인 기철이와 봉순이 사이에 맺어진 애정관계를 생길랄랄하고 설득력있게 잘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을 더없이 기쁘게 하여 주고있다.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뚜렷이 형상하여 보여준것은 창작가들의 창조적열정과 깊은 탐구가 안받침된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텔레비죤극 《좌우명》은 다음으로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인간들도 미구에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합류되기 마련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부지배인 박찬식이 가지고있는 보신주의는 뿌리깊은것으로 하여 웅당 경계하여야 할 사상적병집이었다.

박찬식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한 사람, 파오 한번 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있었다. 사고심의로 실태자료를 료해하러 온 부부장이나 부국장도 그를 매사에 심중하고 중엄원들속에서 평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있는 보신주의사상적병집은 종이공장건설을 위한 행정에서 이러저러하게 나타났다.

종이공장건설을 위한 협의회담만 해도 그렇다.

부지배인은 기껏해서 포장지나 생산하고 방아간만한 제지작업반을 종이공장으로 둔갑시키는게 말처럼 쉬운가고 하면서 나도 하자는 사람이다. 하지만 착상은 착상이고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는 말자고 하면서 립재용이에게 한때 실수를 해서 곡절을 겪은 동무로서야 웅당 심사숙고해야 할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박찬식부지배인은 실태로 해하러 내려온 부부장에게 립재용은 단통초지기두 만들어놓았고 종이기계물체도 좀 안다, 그러나 한때 로동교양까지 받고온 사람으로 허영심이 보통 아니라고 하면서 일욕심이 많은 책임비서가 너무 허물없이 대해주니까 나중에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덕빈다고 은근히 귀뜸한다.

또한 부지배인은 기사장에게 책임비서가 종이공장건설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떨구지 않는가 보라고 말한다.

이처럼 극적사건은 처음부터 엉켜돌아가면서 보신주의병집이 얼마나 헤아리지 어렵게 집요한가를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박찬식은 지성근책임비서를 보고는 남순녀기사가 파오를 범할줄은 정말 뜻밖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일군들이 뭘하나 결심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어 부지배인은 립재용에게 지금 남순녀기사의 설계가 잘못된것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번져지는지 아는가고 하면서 남순녀기사도 문제이지만 그 때문에 지금 책임일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고 읊박지른다.

그러나 부지배인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심각한 사상적병집도 진리의 포화속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거세찬 대하의 흐름에 합류되고야 만다.

이 텔레비죤극에서는 기술혁신안까지 제기하나 혁명적인생관이 확고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도덕품성으로 하여 고충을 겪는 립재용의 형상도 매우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텔레비죤극 《좌우명》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좌우명으로 하여 고난도 시련도 뚫고나가는 혁명전사들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텔레비죤극의 특성을 옹기 살려

시대정신을 깊이있게 체현한 텔레비죤극 《좌우명》은 지금 시청자들의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훌륭한 텔레비죤극 작품일수록 인민들의 사랑을 받기 마련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시대의 요구와 지향, 진실한 생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여운을 주고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따르는 충신의 형상을 텔레비죤극의 특성에 맞게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하고 있기때문이다.

얼마전에 우리는 이 텔레비죤극의 연출을 담당할 연출가동무를 만났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 주체적연출리론과 《주체문화론》에서 텔레비죤문학을 문학의 한 종류로 처음으로 정식화하시고 그 형상적생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데 기초하여 텔레비죤극 《좌우명》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연출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텔레비죤극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창작집단의 아낌없는 노력을 깊이 헤아릴수 있었다.

대사에 의한 성격묘사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얼마나 찾아볼수 있다.

부에서 종이공장건설을 부결하더라고 하면서 기업소력량으로 보아 자체계획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후에 책임질수도 있다는 부지배인의 말에 책임비서는 부지배인 동무는 후날 책임이 두려워 그냥 내려왔는가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당정책에 맞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사에서 우리는 보신주의로 하여 은근히 자기 몸을 사리는 부지배인의 성격적면모와 함께 당의 사상과 의도라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한다는 신념에 찬 책임비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과거 군대복무도 책임비서와 함께 한적이 있는 로동파장이 그에게 친구의 진심을 받아달라구 하면서 하는 말은 그들의 성격적특징을 드러내는것으로 하여 매우 생동하다.

로동파장은 지성근에게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라, 스무톤 능력도 못되는 기중기를 가지고 30톤이 넘는 콘크리트보장을 들어올린다는게 어디 간단한가, 절벽우에 서있는 책임비서가 모험을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자 지성근은 창발성이 없이 보신하는 사람의 눈에는 무슨 일이나 모험으로 보이는 법이라고 하면서 자네는 인정도 무르지만 신념도 무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사속에는 서로 구별되는 성격적측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남순녀기사의 설계에서 착오가 났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성근책임비서는 기사장에게 설사 설계사고가 기정사실이라도 실제심사소에 같이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고, 수자나 과학도 인간을 위해 필요한것이구 뜨거운 심장속에서 우리나라 맹렬성만이 사물을 옹기 가려볼게 아닌가고 말한다.

여기서 시청자(관중)들은 인간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당일군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주체형의 당일군에 대한 마음속 믿음을 무한히 느낀다.

그리고 건설직장에 세포비서가 되어 내려온 지성근이 수십년동안 내버려진 땅으로 버림받아오던 곳을 찾아 폐수정화장을 건설하는 장면전환들은 대사와 결부되어 텔레비죤극의 특성을 한층 살려주고 있다.

화면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텔레비존극에서는 자연스러운 시공간의 구성과 장면전환, 사건과 장소의 병행적인 설정편집에 의한 구성조직이 적용된다.

텔레비존극 《좌우명》에서는 다양한 시점(화면나누기, 촬영가의 능동적역할)과 립체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장소)설정이 부단히 교차되면서 반복되는 장면구성이 효과적으로 탐구되고있다.

텔레비존극 《좌우명》에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연출가의 안목이 깊이 비껴진다.

극예술에서 배우의 몫은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때문에 어떤 개성을 가진 배우를 쓰는가 하는 문제는 작품의 사상에술적의의가 결정되는 문제라 아니할수 없다.

연출가는 텔레비존극문학 《좌우명》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성격에 대한 탐구를 깊이있게 한데로부터 현시기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난관과 애로가 겹쳐들어든 끝까지 해내는 충신인 지성근, 부드럽고 완강하면서도 도덕의리적으로 성근하게 일하는 남순녀, 그리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각이한 개성을 옮겨 보여주는데 적당한 배우들을 잘 선택하고있다.

그러나 어떤 책임이 두려워 발뻘을 하면서 보신하는 부지배인의 개성적성격에 맞게 배역을 선정함으로써 텔레비존극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연출작안목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것이 5부 장면이다.

화면으로 보이는 지구의.

장중한 우뢰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번개빛.

《김정일선집》을 학습하는 지성근책임비서.

굳센 신념과 불타는 의지로 충만되어 확대되는 그의 얼굴.

벽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

신심도 드높은 락관적인 음악이 기백있게 흐른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지성근책임비서의 혁명적수령관, 말하자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나가려는 내적충동과 심리세계가 격동적인 화면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함으로써 깊은 철학적 사색과 여운을 주도록 형상편집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이 화면을 통하여 사람들은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종이 공장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려면 모든 로동자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는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한다.

이러한 연출작안목은 10부의 마지막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강습을 떠나면서 부지배인은 책임비서 지성근에게 피가 흐른다고 하여 사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 이것은 우리 대에 못하면 아들대에, 아들대에 못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끝까지 해야 할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말.

놀랍게 변모된 부지배인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김정일**동지 그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히 충신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비서의 말.

그 뒤에 울리는 책임비서가 쓴 자작시.

책임비서와 부지배인의 모습이 근경으로 펼쳐진다.

이밖에도 촬영형상에서 번개치고 세차게 비오는 전경을 색온힐타를 써서 더 강조하여줌으로써 그속에서 우렁이 나타나는 주인공의 성격적모습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준것이라든가, 교양개조된 박찬식기와 함께 걸어가면서 자작시를 읊는 지성근책임비서의 궁지에 넘친 모습과 함께 그들앞에 쉬임없이 푸근하게 내리는 함박눈을 합성촬영하여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그들의 행동세계를 훌륭히 대변하여주고있다.

또한 화면마다에 신념과 의지에 대한 회화적화폭과 인물의 개성적성격,생활의 특성을 물동적이고 박력있는

촬영형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음악도 화면의 예술적정서에 맞게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의 깊이 있는 생활적세계를 훌륭하게 보여 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새롭고 독창적인 형상으로 커다란 사상정신적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텔레비존극 《좌우명》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체현시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텔레비존극의 특성을 옮겨 살려 개성있는 인간 문제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풍나무잎은 지는 순간에 더 불타다

예로부터 은혜가 크면 머리카락을 베어 신을 삼아 보답한다고 하였다.

그처럼 우리 혁명전사들은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뜨거운 의리심을 지니고있다.

죽어서도 절대로 버릴수 없는것이 우리 혁명전사들의 의리이며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당의 은혜에 보답하려는것이 혁명전사들의 불타는 심정이다.

텔레비존극 《좌우명》에서 부지배인 박찬식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종남동무역시 그러한 신념의 소유자이다.

그는 텔레비존극 《좌우명》에 출연하여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신념과 의지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훌륭히 보여주었다.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도 더 훌륭한 텔레비존극을 만들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오는 참기 어려운 모진 아픔을 느끼면서도 촬영기앞에 나섰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릴 텔레비존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기쁘게 할 텔레비존극만 만든다면 더 바랄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췌는듯한 동통을 느끼면서도 촬영장에 나와 자기가 맡은 역을 훌륭히 수행하고 순직하였다. 참으로 그는 값높은 일생을 마쳤다.

단풍나무잎은 지는 마지막순간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양을 세상에 남기게 된다.

이처럼 우리 혁명전사들은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자기 일생을 가장 빛나게, 의리있게 장식한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그와 함께 이 텔레비존극의 연출을 맡은 연출가와 이 텔레비존극에 출연한 배우들을 만났다.

그들은 김종남동무는 위대한 령도자의 전사로서 혁명적인생관을 지니고 깨끗한 한생을 살아왔다고 말하였다고

그는 역인물의 극중세계에 대하여 쉽이 사색하고 대사를 외우는 지칠줄 모르는 정열의 소유자였으며 생활에서는 더없이 락천적이고 성실하였다.

그가 이토록 끝없는 정열을 발휘할수 있게 된 정신적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예술인으로 키워주고 이끌어준 자애로운 당의 품에 보답하려는 의리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방석운(배우): 텔레비존극 《좌우명》의 어느 한 장면을 찍을 때에는 대한주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촬영장면은 여름이여서 여름옷을 입고 연기를 하여야 하였습니니다.

이제 얼마후이면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았으나 그는 입김이 나올가봐 입에 얼음덩이를 물었다가 연기를 하고 또 물었다가는 연기를 계속하는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였습니니다.

촬영현장에 나와서도 그는 모친 아픔을 느끼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고 이 텔레비존극을 잘 만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려 만족을 드린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우리를 고무하였습니니다.

예술일반의 연기들이 다 개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히 극예술에서 인물의 뚜렷한 개성은 작품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동무는 항상 역인물의 성격을 생동한 개성으로 그려낼 때라야만 생활을 옮겨 보여줄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간의 진면모를 진실하고 특색있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동무였습니니다.

김문옥(배우):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을 형상하는것은 작품을 특색있게 만드는데서 사활적으로 나서는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동무는 역세계에 깊이 침투되어 시청자들의 기억속에 오래 남게 되는 인물화상을 만들려고 사색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그가 수술자리에서 아픔이 오는걸 참으면서 또 자기의 육체적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고도 자기역 형상세계에로 보다 더 접근하려고 애쓰는걸 보면서 우리는 결에서 눈물이 나는걸 어쩔수가 없었습니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백옥과 푸른 소나무, 참대를 신념의 상징으로

삼아왔다. 백옥은 부서져도 그 빛을 잃지 않고 푸른 소나무는 눈속에 파묻혀도 그 푸름을 변치 않으며 참대는 불에 타도 그 끝음을 굽히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이름난 예술인도 아니였지만 김중남동무의 일상생활속에 차고 넘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숭배심이었으며 그이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 사람이였다.

이런 예술인들이 수없이 많음으로 하여 우리 예술인대오는 위대한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일심단결된 굳건한 집단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은 충성심과 사업성으로 하여 그에게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하시였으며 텔레비존극 《좌우명》 배역소개때에 명예칭호를 밝혀서 방영하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그리고 자녀들을 연극영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우리는 연출가로부터 김중남동무가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다년간 배우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으로 찾아갔다.

거기서 우리는 최태현과 김응수 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최태현(공훈배우): 김중남동무는 예술영화 《검사는 말한다》에서 백범걸역을 비롯하여 70여편의 영화에서 주단역을 맡아한 배우입니다.

배우가 담당한 배역의 성격적색을 찾아쥐고 세부 연기를 탐구하여 특징을 발휘할 때까지는 피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중남동무는 특기있는 세부연기를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한테서 자란 그는 당의 품을 아버지품으로 알고 그 품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성실하고 량심적으로 대바르게 일한 당에 대하여 헌신성으로 충만된 사람이였습니니다.

김응수(공훈배우): 우리 촬영소 구내에 세워진 사적비에는 그의 충성심도 깃들어있습니니다.

이 불멸의 사적비를 세우기 위하여 룡강군 화강석광산에서 돌을 운반해오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습니니다. 그때 중남동무는 여기에 자기도 망라시켜줄것을 당조

직에 제기하였으며 돌운반에서 자기의 모든 충성심을 다 발휘하였습니니다.

우리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최대의 소망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하고 땀땀이 총화할수 있도록 한생을 깨끗이 살아야 한다는것이 김중남동무가 지난 기간 사업과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준 가장 참되고 귀중한것이였습니니다.

우리는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를 떠나 생존시 그가 치료받은 의학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소를 찾았다.

과장: 그의 병은 몹시 심했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늘 생각에 잠겨 사색하였고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그리 많이 생각하는가고 물으면 그는 사람좋게 웃으면서 훌륭한 텔레비존극작품을 만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께 기쁨을 드리는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니다.

소위: 나는 그를 담당한 의사로서, 연구사로서 그가 처한 병상태로는 움직이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더구나 촬영장에 나섰다는것을 알고는 놀랍기만 하였습니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강한 정신력과 의지 앞에 감탄하였습니니다.

이런 예술인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주체문화예술이 찬란히 꽃핀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김중남동무의 한생은 참된 인생관을 지닌 혁명전사의 인생행로였다.

텔레비존극 《좌우명》이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여운을 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데는 바로 우리 시대의 지향과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으며 주체형의 당일군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일반화하였기때문이다.

창작가들은 시대에 대한 예리한 안목과 창조적열정을 가지고 주인공의 신념의 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실로 높은 시대정신을 체현하고 시청자들을 극세계에 잠지게 한 텔레비존극 《좌우명》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변함없이 곳곳이 싸워나아가는 일군들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잊지 못할 12월 14일

리호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첫 귀국선이 사회주의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난것은 35년전-1959년 12월 14일이다.

당시 고베조선중고급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나는 고급부 학생 세명과 함께 니이가다로 떠났다. 오사까까지는 전차로, 오사까에서 도쿄까지는 급행열차로, 도쿄에서 니이가다까지는 완행열차로...

니이가다역에 내린것은 14일 아침이었다. 니이가다의 겨울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계절을 착각한듯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부었다.

그러나 귀국선이 정박하고있는 중앙부두에 도착하는 마음은 역대 합실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여 손잡보관실에 려행용가방을 맡기고 역사로 나왔다.

택시 한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우리들앞에서 급정거하며 둥근 운전모를 쓴 운전수가 차문을 열었다.

《어서 타십시오.》

우리 넷이 차에 오르자 운전수는 뺨이 돌리듯 택시를 돌리고 패속으로 내몰았다.

택시운전수는 손님이 갈 목적지부터 알아보고 발동을 걸고 차를 모는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 운전수는 첫 공정인 손님의 목적지확인을 뛰어넘어 차를 패속으로 내모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아해서 물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자는지 알기나 하고 차를 모오?》

《그것도 모르고 차를 모는 택시 운전수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부두까지 태워다주면 되지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운전수는 손가락으로 모자채양을 밀어올리고 말을 이었다.

《첫 귀국선이 니이가다항에 닿을 내리자 조선사람들이 몰밀듯이 니이가다에 모여오지요. 그 사람들의 목적지는 뻔하지않습니까. 손님들의 외투섬과 단긴 옷깃에(나는 조선사람이다.) 하는 표식이 나붙어있지 않습니까.》

《눈이 밝구만.》

그제사 나는 우리 일행 넷이 초청 《재일조선청년동맹》 휘장을 달고있다는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택시는 거리와 거리를 지나서 중앙부두입구에서 벗어섰다.

나는 운전수에게 택시값을 물고 차에서 내렸다.

그렇게도 퍼붓던 비가 멎었다. 구름속에 숨었던 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중앙부두에는 립추의 여지도 없이 환송군중들이 빼곡이 서있었다. 여기저기 환송군중들의 머리로 람홍색공화국기들이 펄펄 나뭇기 고있었다. 나는 키돋음을 하여 목을 길게 뻗었으나 귀국선의 굴뚝만 보일뿐 신체는 보이지 않았다. (귀국선이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어서 빨리 귀국선의 모습을 보고싶은 생각에 몸이 달았다. 내가 발돋음을 하여 귀국선쪽을 바라보고있는데 《선생님!》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고급부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인파를 헤가르며 앞으로 나가면서 뒤따라오라고 손짓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서 앞으로 나갔다.

중앙부두 한복판에는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원을 그리면서 군중무용이 벌어지고있었다. 웅헤야춤이었다. 손뼉을 치며 춤을 추는 치마저고리차림의 자태는 그야말로 흥겹고 락천적이었다. 청춘들과 더불어 이따금 좋다 하고 쟁파리를 치며 흥겹게 발을 구르는 머리가 하연 로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유난히 눈길을 끄는 동포1세들의 춤은 배기가 넘치고있었다.

나의 눈앞에는 해방전 동포1세들이 산설고 물설은 섬나라 일본 땅에 끌려와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죽지 못해 살아가던 가련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에게는 죽어서도 문힐 땅마저 차례지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였기때문에 흥겹고 랑만에 찬 노래도 춤도 있을수 없었다. 있다면 《관부련락선은 지옥선》과 같은 망국노의 노래들이었다.

나의 머리에서는 동포1세들이 눈물을 머금고 부르던 그 노래가 방불히 되살려져 울리고있었다.

무엇을 원망하랴 나라마저 망했는데

집안이 망하는건 너무나도 응당하지

실어나를뿐 돌려보내주지 않네

관부련락선은 지옥선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갔다. 드디어 귀국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첫 귀국선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귀국선관간에 나붙은 구호가 바다바람에 펄럭이고있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

그 구호를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몇번이고 읽노라니 가까우면서도 먼 조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조국으로, 이국만리 이역땅에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꼭 안겨있다는 느낌이 심장으로 몸으로 체감되었다.

나의 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8년 9월 8일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에 대하여 하신 력사적인 교시내용이 떠올랐다.

《무련리와 민족적차별과 생활고에 신음하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올것을 희망하여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에서 살길을 잃고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오려는 그들의 념원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날로 통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 국내 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웅대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동포들을 넘겨줄것을 일

본정부에 요청했으며 재일동포들을 맞이할수 있는 준비를 다 끝냈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에는 쌍방간에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여러차례의 회담들을 진행했으며 1959년 8월 13일에 드디어 인디아의 칼컷타에서 귀국협정에 조인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귀국동포들의 귀국의 배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배길은 재일조선인들의 희망의 배길이며 재생의 배길이다.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대이동이라는 세계사적사변이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대승리인것이다.

《호인이 아니야!》

누군가 간이 떨어지게 등을 치기에 깜짝 놀라 깊은 생각에서 깨나 돌아보니 정동무와 권동무 그리고 박동무가 곁에 서있었다.

그들은 조선대학교 동창생들이었다. 대학졸업후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다.

《니이가다는 안부조차 몰랐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구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마가 홀 벗어진 정동무가 이렇게 허두를 떼고 동창생들을 소개하였다.

정동무는 도표에서 총련일군으로, 권동무는 나고야에서 관광업자로, 박동무는 규슈에서 현교회 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고 했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시간이 가는것도 몰랐다.

그렇게도 흥겹게 추던 군중무용이 짝 멎었다.

귀국자들을 태운 배스들이 중앙부두에 도착하였던것이다. 이어 귀국자들이 출사다리를 타고 귀국선에 승선하였다.

니이가다 중앙부두는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다.

환송군중들이 귀국선란간에 서있는 귀국자들을 향해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의 테프를 울려던졌고 귀국자들은 환송군중에게 테프를 내려던졌다. 순식간에 부두는 오색테프의 바다를 이루었다.

나의 가슴에도 련이어 테프가 날아왔다. 나는 테프를 잡고 귀국선란간을 쳐다보았다. 테프를 던진 사람은 다름아닌 조대 동창생 고동무였다. 그는 뭐라고 소리치며 자기곁에 애기를 안은 치마저고리차림의 젊은 녀인을 가리키며 새끼손가락을 세워보였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육감으로 젊은 녀인은 고동무의 안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귀국선이 배고동소리를 울리며 서서히 부두를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주악이 장중하게 울렸다. 귀국자들과 환송군중들이 손에손에 공화국기와 오색테프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975명의 귀국자들을 태운 첫 귀국선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실려 부두에서 멀어졌다.

항로를 바로잡은 귀국선은 사회주의조국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얼마후 귀국선이 수평선너머로 사라졌으나 환송군중들은 솟구치는 감격에 휩싸여 니이가다 중앙부두를 떠날줄 몰랐다.

귀국선이 아득한 점으로 사라지고 푸른 물결만 넘실거리는 수평

선을 바라보며 정동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동무들, 조선속담에 웃물이 많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 않소. 우리는 어데가 살던, 그 무엇을 하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조선대학교의 첫 졸업생이라는것을 잊지 말자구!》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으나 마음은 한결같았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아들답게 살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때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첫 귀국선이 떠난지 1년후에 51차귀국선으로 그처럼 그리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로 되고싶어하는 나의 소망을 헤아리시고 평양문학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였고 졸업후에는 기자로, 작가로 일하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 길에서 나는 여러편의 장중편소설을 창작하며 보람찬 생활을 누리였다.

내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어엿한 작가로 자라났듯이 첫 귀국선을 배래우며 니이가다 중앙부두에서 만났던 정동무와 박동무는 오늘 총련일군으로, 교육일군으로 꾸준히 활동하고있으며 권동무는 어엿한 애국적상공인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우리들의 환송을 받으며 1차 귀국선으로 귀국한 고동무도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영화연출가로 자라났다.

우리는 그날의 그 맹세를 지켜 조국에 있건 이국땅에 있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조선대학교 만이답게 살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비록 환갑은 다 넘겼으나 어제와 다름없이 매일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더없이 숭고한 생전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탁월한 령도자로 모시고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것이다.

교훈시

충고란 빠르게 살라고 드는
사랑의 매건만
어이하여 그 아픔
서로 다를가

정없이 드는 매

사랑과 충고

아무리 가벼워도 웃는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 남기고

정에 묻혀 드는 매
아무리 무거워도
마음속엔 고마움이

리득하

산을 이루네

충고를 주기전에
사랑을 먼저 주자
충고를 주기전에게
제 심장을 먼저 주자

영원한 추억

백의선

인생에는 웃음도 눈물도 있고
 생활은 쓰기도 달기도 하였으니
 세월이여
 너는 그 무엇을 물거품처럼
 씻어가고
 너는 그 무엇을 추억으로
 남겨두었느냐

추억을 남기며 생은 흐르고
 추억을 합쳐 생은 총화되리
 하거니 이야기해다오
 오늘도 나에게 값높은 삶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인가를

1

나에게는 추억도 많ारा
 조용히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그 얼마이더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추억이여 너는
 때로는 애뜻한 정을
 때로는 불붙는 열정을
 때로는 영원한 삶의 노래를 주나니

눈에 삼삼하여라
 내 정든 고향의 작은 시내물
 흰돌우에 어린 나를 세워놓고
 손발을 씻어주던 어머니의 젊음

모습
 뒤동산의 뺨간 산딸기를 따주던
 몽당치마의 소꿉친여애가

그리운 정 따듯이 불러주더라
 나의 손잡고 첫 글씨 배워주던
 쌍태머리 너선생의 다정한 미소
 달빛아래 첫사랑 속삭이며
 강물우에 뿌리던 파란 버들잎이

세월이 흐르고 흐르며
 기쁘고 즐겁던 날들은
 스러지는 노을처럼 희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영영 사라지기도 하더라

하나 내 마음속에 머물러
 생생히 살아있는 추억중의 추억
 눈물겹기도 하건만
 때없이 가슴속 이야기 나누고싶고
 거울처럼 마주서서
 내 량심을 비쳐주는 추억

그 추억은
 고난을 띠고 삼고
 투쟁하며 이긴 추억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당을 옹위하며 따라온 추억

혁명은 얼마나 준엄하였더냐
 안팎의 원수들
 우리 당에 악랄히 도전하던 그 시절
 재무지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느냐
 그러다 짓밟히는 노예가 되고
 끝내는 조국도 다시 잃어버리느냐
 그날의 시련은 그리도 엄혹했던것

말해주렴 추억이여
 전선에서 돌아 못은 아버지의
 사진이
 흙벽에 걸렸던 허술한 토포집
 네식구가 두리반에 모여앉아
 통강냉이밥을 놓고 먹으며
 마음속으로 저마다 눈물 삼켜도
 어이하여 얼굴엔 미소지었던가를

말해주렴, 말해주렴
 가슴속에 그 무엇이 있어
 치마허리에 수건을 탄피처럼 두르며
 어머니는 묵묵히 복구장으로 나갔고
 중학을 갓 졸업한 애된 이몸도
 아버지의 큰 옷 입고
 따라나섰던가를

왜 그리도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느냐

허리에 찬 주먹밥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벽돌을 섬기던 두손이
 꿈꿨던 그날의 그 겨울

어머니도 잠시 일손 멈추고
 나의 두손을 품으로 녹여줄 때
 찌릿이 감촉되던 가슴우의 당증

온몸에 흘러들던 그 따스한 온기는
 왜 오늘도 피속에 스며 가서지지
 않느냐

잊지 못하노라
 나어린 두 동생 새옷 입고 학원으로
 떠나던
 봄빛에 새 잎이 움트던 아침
 그날만은 나도 어머니도 숨길수
 없던
 뜨거운 눈물을 잊지 못하노라

혁명의 난국
 조국의 재난
 그 모든 중하를 떠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거창한 손길에
 아, 내 한가정의 운명도 받들려있지
 않았던가

의지까지 다 잃었던 우리 집
 식구에게
 단 하나 남아있던
 마음의 품
 운명의 집
 당이여 고향의 당이여

우리에게 그 품이 없고
 그 집이 없다면
 가정도 없고
 조국도 없고

우리 그 품을 잃고
 그 집을 떠나면
 세상이 아무리 넓고 풍요해도
 우리에게 어디가나 쓸쓸한 빈터
 쪽박차고 헤매일 신세임을 알았거니

가장 어렵던 그날에
 우리에게 당이 없으면 못산다는것을
 어려울수록 당을 따라야
 살수 있고 이길수 있고
 조국도 미래도 우리의것임을
 생활의 철리로 새겨안으며
 폐허를 헤쳐온 그 한자욱 한자욱을
 내 인생과 갈라뒀질 소중한 추억
 억척같이 당을 따라온 신념의 길

그 길이 걷기 힘든 진펄이라고
 마른 땅을 끌라 디디며 왔더냐

그 길에 두터운 얼음장이 깔렸다고
따스한 덧신을 찾았더니

절전이였더라
판가리였더라
시련이 두려워
량심을 팔고 지조를 내던진자들
부귀와 벼슬을 탐내며
동상이몽하던 역신들
력사의 오물로 쓸어버리며
우리는 결사의 투지로 부르고
불렀더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의 당중앙을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하여 엄혹했던 강선의 12월을 거쳐
신념의 백양나무 온 나라에
푸르렀고

소박한 농촌할머니의 작은
가슴속에서도
태성의 목소리가 터져올랐거니

아, 우리는 그 구호를 선창한 세대
우리는 그 정신의 구현자
오늘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채우며
우리는 피뎀은 심장을 터치노라
목숨으로 사수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

보라
세월과 세월을 이어
당을 옹위하는 방패가 되고
당을 받드는 고임돌이 되어
이 땅위에 자랑스럽게 펼쳐놓은
홍하는 로동당시대!

파로 찾지 마시라
우리 생의 흔적을
우리 당 력사의 빛나는 장에
그 자욱자욱이 다 새겨져있어라

파로 묻지 마시라
우리 당의 력사를
값높은 추억을 수놓으며
인민이 걸어온 그 행군길우에
우리 당의 자욱자욱이 다
빛나고있어라

아, 우리 당의 위업에 바쳐진 삶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것이니
추억은 한동안 비껴다 끼지는
생활의 단순한 노을이 아니여라

우리 당의 붉은기에 물들어
시대와 더불어 내려치는 불굴의 녀
당의 품에 영원히 향기를 풍기는
인생의 꽃

하거니, 추억이여
언제든 이 가슴에 남아다오
물속을 가든 불속을 가든
믿고 따를것은 우리 당밖에
없다는것을
한생의 신념으로

내 심장의 박동에 실어준 그
세월이여
이 마음에서 영원히
흘러가지 말아다오
흘러가지 말아다오

2

먼 세월이 흘렀어도
내 가슴속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은
조국이 우리에게
주고싶은 많은것을 다 주지 못하던
그때
내 그 조국의 주인임을 떳떳이
자부하고
우리가 살길 우리가 개척하며
모든것을 다 바치며 살아온 추억

내 하는 평범한 일이
나라의 한몫이고
혁명의 한몫임을
건설의 불바람속에서 깨우치며
나는 한가정의 세대주가 되기전에
혁명의 주인임을 자각하였나니

그 자각이 나에게
새벽잠 많던 그 나이에
우등불가 쪽잠의 단맛을 알게 했고
간고분투하고 자력갱생하며 사는
그 진맛을 주었던가

말해보자 추억이여
이제는 록음길은 강변에
밝은 집이 내게 있고
백화원에 꽃들이 만발하건만
어이하여 낮과 밤을 이어
질통을 지고 달리던 그 나날이
아직도 두눈에 밝혀오는것이나

어이하여 아 어이하여
건설장에서 땀뺐으며 바라보던
별들이

그리도 아름답게
내 마음의 하늘에서 빛을 뿌리고
우등불에 끓여먹던 땀물이 그리도
달게
오늘도 가슴가득 출렁이는것이나

지금도 가만히 손을 얹어
닭알같이 굳어져 풀리지 않은
어깨살을 만져볼 때면
귀에 쟁쟁하여라
어기영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희열에 찬 그날의 목고장단소리

내옆에는 뒤집의 단발머리 처녀가
앞에는 지배인이
또 앞에는 당위원장이
저벅저벅 울리던 발자국소리
하얀 입김을 뿜던 숨결소리...

내 좁은 어깨우에도
장정의 큰 어깨우에도
빈터우에서 일어서는 조국의 대업이
무겁게 놓여있던 그 나날

고삭은 노전우에
궤짝은 하나 놓고 살면서도
그 누가 제 가산을 늘이고
제 혼자 잘 살자고
뛰어다니는 사람 있었던가

무너진 벽체밑에서
하나하나 불맛은 못을 골라
쓰면서도
타발 한마디 한 사람 어디에 있었고
야장간의 풀무로 송풍기를 대신해도
한숨쉬며 주저않은 사람 어디에
있었던가

생활은 내 몸에 굳혀주었더라
힘겨웁고 고달파도
한몫 내대며 벅차게 사는 맛을
보수와 명에는 생각조차 없이
다같이 어깨를 들이밀며 사는 맛을

건설장너머 넓은 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밝은 웃음 피여났더라
앞에서는 너인들이
누렁소를 끌고
뒤에서는 남정들이
보탑을 잡고...

첩첩 시련이 막아서도
몰랐더라 비판과 절망을
건설의 삽을 총대처럼 거머쥐고

크게 웃고
 썩썩하게 노래하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온 우리

아무리 없는것 많아도
 그 누구의 신심
 애초부터 바라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 빌붙어 살아볼 생각
 꿈에도 없었거니

우리는 믿었더라
 피땀으로 공들이는 이 땅우에
 꽃이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꽃들이 피고
 웃음이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웃음이 필것을
 믿었더라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건설하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었더라

하여 력사의 주체로 나선
 인민의 가슴속에서 터진
 천리마대교조의 우뢰소리여

그 장엄한 생활의 울림속에서
 나의 가슴도 세차게 흔들어주며
 평양의 첫 다층집에 웃음이 피고
 기양의 트랙포르가 고고성을
 울렸으랴
 멀리 푸른 들 한끝까지
 협동화의 종소리가 메아리쳤더라

조용히 귀기울여보라
 조국이 잊지 않는 그 력사의
 메아리속에
 들리지 않느냐
 우리의 발자국소리
 숨결이 흐르는 소리
 뜨거운 피가 굽이치는 소리

우리의 추억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택하고 건설한
 억년 끄떡없는 사회주의 성벽밑에서
 오늘도 끝없이 메아리치는
 그 생활의 울림
 그 환희의 울림

아, 오늘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의
 음향으로
 그 메아리는 이어지고있는가
 아이들을 부르는 교정의 종소리
 무병장수하는 로인들의 웃음소리...

도시도 좋고
 산촌도 좋아
 어디가나 정복고 살고싶은
 주체의 사회주의가 꽃핀 내 나라

그 하나하나의 억센 기둥밑에
 그 하나하나의 기름진 이랑밑에
 우리 땀을 고이고 마음을 고였기에
 당당히 말할수 있구나
 그 모든것의 주인은 나
 그 모든것의 주인은 우리

어느때든 물어보라 량심에
 어느때든 세워보라 시대앞에
 우리 값높은 삶을 돈으로 샀더냐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재부로
 얻었더냐
 우리의 추억은
 조국에 심장을 바치고서만 지닐수
 있는
 빛나는 삶

제 났을 바쳐
 제 땀을 흘리며
 건설하고 창조했기에
 조국앞에
 후손앞에
 살아온 나날이 긍지롭고
 추억은 그리도 아름다운것이거니

흐르는 세월도 씻어가지 못하는
 한없는 그 궁지
 우리의 값높은 생의 흔적은
 조국의 추억으로 새겨지고
 시대의 추억으로 빛나고있어라

×

내 가슴속 깊은곳에
 소중한 안고온 추억이여
 세대와 세대는 바뀌어도
 너는 그리도 아름답더라

지금은 그날의 상처자욱
 어디서나 찾아볼수 없어도
 오늘 위해 태일을 위해
 추억이여
 너는 잠재울수도 없고
 또 잠들어서는 아니되리

썩은 탕이 거창하고
 생활이 근심걱정 없다고
 어제를 잊고 가던 길 버리면

그 모든것 황량한 빈터가 됨을
 력사는 얼마나 쟁쟁히 경종을
 울리는가

하여, 우리의 추억은 일어서며
 심장에 웨치노라
 평화로운 날에 백번 만세를
 부르기보다
 어려운 날에 충실히 당을 따를줄
 알고
 힘겨운 날에 진심으로 조국을
 섬길줄 알아야
 한생을 참되게 살수 있다고

나는 오늘도
 평온치 않은 이 세계를 굽어보며
 그날의 추억을 부르노라

추억이여 너 언제든
 그날의 정신으로 맹세로
 내 심장을 들끓게 해다오
 내 마음속에 언제나
 그날의 목고소리 울려주고
 재무지 밝고 일어서던 그 의지를
 곳곳이 세워다오

위대한 명도자
 위대한 당파
 뜻을 같이 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오오, 아름답다 우리의 삶
 아름답다 우리의 추억

신념을 저버린 비겁한자들은
 백년을 살아도 못가지는 생의 추억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지켜
 우리 당을 따라온 사람들은
 쓰러져도 숨이 저도 빛나는 삶의
 추억

그런 추억으로 해를 엮고 달을
 무으며
 참되게 살려 값있게 살리

함께 가자 추억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끄시는
 주체혁명의 길
 우리 운명 당파 함께
 우리 어머니당을 따라
 굴함없이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자

우리의 승리는
 승리로 이어지리니
 승리자의 추억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 아름다우리

옛 사람을 다시 깨워

리수덕

세상의 만물이나 모든 사물현상은 그 어느것을 불문하고 다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지만 사람의 생각이란것은 흡사 끝없는 대공을 종횡무진 활개치는 산매의 날음과도 같이 자유분방한것이어서 과거나 현재, 미래의 그 어떤 한계에도 구애됨을 모른다.

생활속에는 금시 눈앞에 벌어진 일을 놓고 생각에 골몰하다가도 세기와 세기를 주름잡아 아득한 미래나 머나먼 과거에로 불현듯 사색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죽이나 많고 많은가.

내 얼마전에 대동강하구의 어느 한 계선장에 나갔다가 문득 고려시기의 옛시인을 다시 깨워 오늘의 행복상을 그에게 보이고싶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일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봄과 초여름이 손과 손을 맞잡은 절기여서 신록이 한결 짙은 서해명승 와우도유원지의 풍치가 어느때없이 아름답고 날씨조차 쾌청한 어느 일요일이었다.

동무들과 함께 야유회의 하루를 즐기며 유원지의 포장길을 거니는 나의 마음은 사뭇 흥그러웠다.

아카시아꽃, 정향나무꽃들이 취하도록 진한 향기를 풍기는 공원속에서 록음기의 음악에 맞추어 원무를 펼친 어느 공장 노동자들의 활기띤 모습도 볼만했지만 산뜻한 옷차림을 한 처녀들과 총각들, 어른들과 아이들이 울긋불긋한 뽕트에 올라앉아 힘있게 노를 저으며 푸른 물결우를 서로 엇갈려 돌아가는 배놀이장 정경은 말그대로 한쪽의 아름다운 조선화를 방불케 했다.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와우도수영장과 대동강을 가르며 곧추 뻗은 긴 방죽길에 이르렀다.

바로 여기에 계선장이 있었다. 행복한 삶의 숨결은 계선장에도 뜨겁게 고동치고있었다.

서해잡문과 와우도 사이를 쉬임없이 오고가며 참관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유람선 《영광》호가 노래한배 기쁨 한배 가득싣고 금시 떠나갔는데 이번에는 남포-평양행 려객

선이 나들이를 왔던듯싶은 젊은 부부들과 나이 지숙한 사람들 그리고 실습차로 왔다가 돌아가는 대학생들과 견학왔던 소년단원들을 태우고 배고동소린 정답게 울리며 계선장을 벗어난다.

떠나는 사람들, 잔교와 방축에서 내려여주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의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이 모든 정경을 흐트러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의 가슴속엔 행복이 물결쳐 설레는 계선장의 이 화폭을 시줄에 담아보고싶은 충동이 샘솟아났다.

나는 시상을 더듬으며 다시한번 계선장을 굽어보았다. 화강석을 자름자름하게 다듬어서 돌포장을 한 긴 방죽길 양여가리에 새파랗게 깔린 잔디, 그리고 어리광치듯 밀려와 다가는 석축에 부딪쳐 푸른 구슬을 빛는 대동강의 맑은 물결...

나는 내 눈의 망막에 비껴드는 그 하나하나가 류다른 정서를 띠고 내 마음의 금선을 뒹겨주는것을 의식했다.

이찰나 나의 뇌리엔 마치 번개의 푸른 섬광처럼 떠오르는 시구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착상한 시가 아니라 이미 이전 고려의 시인 정지상이 쓴 시 《대동강》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시를 음미해 보았다.

비땀은 언덕
풀빛 더욱 짙었는데
남포에서 님 보내니
노래도 구슬퍼라

대동강 저 물결이
어느때나 마를소나
해마다 님 보내니
눈물 쏟아 더욱 붓네

비록 몇줄 안되는 짧은 시이지만 여기에는 비땀은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대한 시적묘사와 함께 남포에서 벗을 떠나보내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복잡한 심정이 얼마나 생동하게 그려져있는가.

시를 곱씹어 읊어볼수록 백성들에 게 가난과 고통, 슬픔만을 강요하는 모순되고 야속한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민적감정이 시인의 기지있고 섬세한 필치에 의해 시구의 글자 한자한자에 그대로 배여 있음을 절감할수 있었다.

자고로 대동강은 그 풍치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으로 하여 조국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착취와 압박, 지배와 피지배가 횡행하던 과거의 그 불합리한 사회에서는 이 강이 눈물의 강, 슬픔의 강으로 되어왔으며 대동강기슭의 술한 나무터에서 흘러는 백성들의 눈물로 하여 강의 물결은 더해만갔다.

어찌 옛시인이 살던 그 당대뿐이었으랴.

조선봉건왕조의 그 장구한 세월에도 일제식민지통치의 암운에 찬 시기에도 대동강은 여전히 설음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이었다.

그런데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수수천년 수난과 고통, 비운만이 드리웠던 이 대동강의 류역에 위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세기의 념원이 대동강기슭의 만경봉우에 주체의 태양을 높이 받들어올린 력사의 그 날에서 비롯된 천지개벽이었다.

눈물과 슬픔의 강이었던 대동강은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일신했다.

랑림산줄기의 주봉인 랑림산의 남쪽기슭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양덕과 맹산, 덕천과 순천을 거쳐 주체의 봉화가 높이 솟아 빛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용자를 비껴담고 흘러내리는 천리 대동강!

그 하많은 굽이마다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얼마나 위용차게 일떠섰는가.

강기슭 그 어디를 가도 위대한 사랑과 은정, 행복과 기쁨만이 넘쳐흐른다.

과연 그 어느 한 구석에선들 지난날의 가난과 슬픔, 눈물의 흔적을 찾아볼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불현듯 옛시인을 다시 깨워 오늘의 이 락

원의 강기슭에 세워보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를 행복과 기쁨, 노래와 웃음이 어우러진 와우도 유원지의 저 계선장에 안내하고싶었다.

한것은 비그친 방축의 이슬젖은 봄물과 구슬같은 강물조차 눈물속에 감수하며 복락할 래일을 회구하던 옛시인이 오늘의 환희에 찬 계선장에 선다면 진정 어떠한 시를 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이때 어디선가 여럿이 부르는 명량한 노래소리가 귀청을 물리는통에 나는 그만 환상의 세계에서 깨어났다. 나는 노래소리가 울려오는쪽으로 시선을 보내었다. 어느새 유람선 《영광》호가 서해갑문까지 갔다가 다시 유원지의 계선장에 들어서고있었다.

젊은이들이 갑판의 란간에 기대서서 손풍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 푸르른 강반에 일떠선 새 모습 비껴담고

로동당시대에 꽃핀 전설을 전하여 주네

아, 대동강 락원의 강이어 사랑을 싣고 은정을 싣고 끝없이 흘러흐르네

대동강의 흐름처럼 맑고 풍만한 정서를 띤 노래소리는 나의 가슴속에 여느때없이 다감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착취와 압박, 불행과 슬픔은 고사하고 잔격정 하나 모르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요람속에서 행복과 기쁨, 희망과 랑만에 넘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 젊은이들.

그들은 과연 오늘의 이 락원의 강이 꽃피나기전에 눈물의 강, 슬픔의 강이 흘렀음을 알거나 하는지?

황차 이미 수백년전에 한 시인이 대동강기슭의 나루터에서 벼를 떠나 보내며 대동강물이 백성들이 흘리는 슬픔의 눈물로 하여 더욱 붉는다고 시대를 한탄하며 쓴 시가 있음을 생각이나 할것인가.

물론 옛시인이 자기의 시에 지목한 《남포》란 지명은 오늘의 남포가 아니라 대동강기슭 남쪽의 어느 다른 포구나 나루터를 뜻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옛시인이 벼를 떠나 보내며 섰던곳이 바로 지금의 와우도유원지 계선장 어구인것으로 단정하고싶었다.

나의 상념은 옛시인에게로 보다 구체적인 감정을 띠고 접근해갔다.

나는 그와 함께 새 삶이 약속하는 락원의 강변을 끝없이 거닐고싶었다. 방금전에 내가 돌아본 유원지공원속의 그 환희롭던 원무와 웃음꽃 만발한 뽕트장의 정경 그리고 떠나는 사람, 배려주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마중 나온 사람, 유람하는 사람들로 흥성거리는 저 계선장의 못얼굴마다 비친 기쁨어린 웃음을 옛시인에게 보여주고싶었다.

이어 나는 옛시인과 더불어 저 《영광》호에 몸을 싣고 대동강물결을 거슬러오르며 유람의 하루를 즐기고싶었다.

그러면 옛시인은 20리 날바다우에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솟아오른 서해갑문과 세계의 대양을 향해 자주의 항로를 활짝 열어놓은 남포항이며 대유색금속기지와 대안의 기계바다 그리고 청산리와 전설속의 천리마가 현실속에 나래친 강선의 철의 기지를 보며 얼마나 놀라와할것인가. 비단 여기 남포방만이 아니다.

천리 대동강줄기를 따라서 오르코 또 오르노라면 배가 닿는곳 그 어디서나 눈앞에 펼쳐지는 행복의 락원을 보게 될것이니 그것을 부감하는 옛시인의 감탄이야 오죽하랴.

대동강반에 현실로 꽃피어난 전변도 전변이려니와 그 하나하나에 깃

든 위대한 사랑, 위대한 령도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옛시인은 북받쳐 오르는 시흥을 누릴길 없어 당장 붓을 들리라.

그리고는 일필휘지로 행복의 강, 락원의 강 대동강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가리라.

나의 눈앞엔 걱정에 찬 시인의 그 모습이 금시 안겨오는듯싶었다.

이 순간 나는 갑자기 심장의 박동이 높아지는것을 느꼈다.

반만년 긴긴 세월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자자손손 유물처럼 물려주고 물려받아온 《지상천국》, 《무릉도원》에 대한 갈망이 바로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었다는 끝없는 궁지와 자랑이 가슴뜨겁게 피어올랐던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느낌이었다.

옛시인이 노래했던 《눈물의 대동강》이 《락원의 대동강》과의 대비속에서 오늘의 행복을 보다 넓은 폭과 깊이를 가지고 내 가슴에 젖어들었던것이다.

나는 문득 고려시기의 시인이 쓴 그 시가 결코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는 생각이 들었다.

한것은 옛시인은 한방울의 물방울에 비길만한 한편의 짧은 시에 당대시대를 생동하게 비껴담은것으로 하여 중세문학사의 한페지에 자욱을 남겼지만 그 시는 현시대인들이 자신이 누리는 참삶의 보람과 행복을 보다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기때문이었다.

나의 가슴은 창작적흥분으로 설레었다.

머나먼 후날에 가셔도 주체의 태양아래, 향도의 해발아래 꽃피난 우리 시대의 행복이 못사람들에게 방불하게 안겨질 그런 주옥같은 시를 써야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나는 대동강반을 걷고 또 걸었다. 옛시인이 서있었으리라 굳이 믿고싶은 오늘의 서해명승 와우도유원지 계선장의 그 봄빛 푸른 방죽길을 자욱자욱 시상을 가다듬으며...

산주폭포

-묘향산 탐승길에서-

(총련) 박주명

구슬못이 절벽우에서 터졌는가
폭포쳐 흘날리는 금구슬 은구슬
그래서 그 이름도 산주폭포
내 천만구슬앞에 황홀해 멈춰서니
이 가슴 울려주는 폭포의 소리

마음 가득
이 구슬 안으라고
앉은 티 있으면 예서 다 씻고
조국 받들 한마음
구슬처럼 고이 간직하라고

산주 산주 산주 폭포여
너는 구슬로 절벽만 씻지 않누나
더럽혀질가봐 티 한점 있을가봐
내 마음도 구슬로 닦아주는
아, 산주폭포

용해공들 (1) 외 3 편

권강일

쇠물을 끓이고 있다
충성의 편지를
친애하는 어버이께 올린
용해공 당원들이

쇠물을 끓이고 있다
그 누구보다 받아안고산
사랑과 믿음이 커서 슬픔도 컸지만은
수령님의 위대한 유혼을 받들어
남먼저 일떠선 사람들

사품치는 로심을 바라보아도
빛발치는 그 노을에 새겨지는 구절구절
열풍소리에 조용히 귀기울이는 순간에도
우러러 달려가며 뜨거워지는 생각

아 그이께선 우리의 맹세를 믿으시고

또다시 나라 일을 펴시리
충성을 다짐한 우리의 마음 안으시고
손길 더 높이 드셨으리
혁명적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한길로

우리는 정녕 어떤분에게
심장의 이 고동을 이어놓고
얼마나 크나큰 유혼을
값높이 받들고있는가

쇠물을 끓이고 있다
용해공, 당원들이

편지의 구절구절
슬픔을 용기로 바꾼 심장의 박동에 이어놓고
출선을 부르는 짙막한 구령도
그 맹세의 메아리로 남기는 충신들이

용해공들 (2)

《용해공》이란 이름을
그들은 가벼이 말하지 않는다
자랑을 위해서는, 그 무엇 바래서는
더우기 남들앞에 내들줄 모른다

미처 할일을 다 못했을 때
하여 둘러앉은 총화가 엄숙해지는 때
《그러구두 용해공인가》
로장이 한마디로 많은 말을 하고

남비 가득 쇠물을 실어보낸 젊은 용해공이
란간에 서서 빙긋 만족하여 웃는 때면
《아직 멀었어. 용해공구실 다 하자면》
툭 찢러 일손을 재촉하고

평범한 그 이름에
쇠물의 무게를 얹는

그들의 말 뜨거운 속을 다 몰라도
내 가슴 뭉클 젖어오거니

아, 조종실, 용해장 그 어디나
가득차 흐르는 자동화의 불빛
친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은정에
언제나 더워 살며 깊어진 마음이라

해마다 첫아침이면 용해공들을
한가정 만아들처럼 불러주시며
진군길에 앞세워주시는
그이의 믿음을 안으며 깊어진 생각이라

어이하면 보답을 드릴가
끓여도 끓여내도 쇠물이 가볍기만한
용해공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은 무겁더라
충신이란 말처럼

맛

《쇠물이 좋아요》 - 무선전화기가 날라오는
분석공처녀의 쟁쟁한 목소리 달콤한 귀맛

흰 위생복 영양제식당 너인들의 후한 인심이
잔마다 넘치는 용해장맥주 시원한 입맛

흠뻑 쇠물이 익어가는 때 로대에 서서
바라보는 구내숲 푸르름이 서늘한 눈맛

그중에도 출선한 붉은 물을 쇠꼬챙이에 찍어
담배불 붙이며 《쇠물맛》을 보는 진짜맛!

《쇠물이 잘 나옵니다》

어느 먼 고장 려관방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도
묻더라
내가 제철소에 왔다면
-쇠물이 잘 나옵니까?
용광로가 잘 돌아요?

작은 창문으로 신분증을 받아들던
파묵한 접수원도 안경을 벗어들며
묻더라 얼굴을 내밀고
마치 궁금하던 친지의 소식을 묻듯

강철이 중하니 그럴수도 있으리
허나 나에게는 묻는 그 말이
예전과 다르게 더 고맙고
긴말 없이도 뜻이 통하거니

우리 함께 사는 이 좋은집 흥하는 살림을
홀어버리자고 무너뜨리자고
제국주의 원썬놈들이 날뛰는 이날에
제철소를 자기공장 제집 일처럼 생각하는 그들

친애하는 우리의 어버이께서
이끄시며 빛내주시는 사회주의를
받들리라 기어이 지켜내리라
한몸 불태우며 사는 마음들이여

원썬들은 그 어떤 《봉쇄》와 《제재》로도
우리들의 마음은 가두지 못하리라
한번 정한 길을 곧바로 가는
우리를 궤도에서 떨어지지 못하리라

끓여내는 쇠물량으로만은 재일수 없는
일심단결 온 나라의 이 마음을 합쳐
용해공들이 날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보고
그 마음 그 의지 그 신념을 엮어

나는 제철소의 소식을 자랑차게 말한다
-쇠물이 잘 나옵니다!
용광로가 잘 돌아요!

우리 그때 무슨 말을 했던가

림정보

우리 그때 무슨 말을 했던가
설분이 덩어리져 내리고
슬픔이 파도치며 휩쓸던
7월의 비뿌리는 하늘밑에서

할말을 했던가
서거... 목상... 애도...
정녕 태양으로 믿어
생의 끝을 생각해본적도 없는
민족의 어버이앞에서
그 말을 어떻게 입에 올렸던가

아니였다!
그것은 해서는 안될 말이였다
그것은 아버지앞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식들이
때늦게 가슴치며 터놓는
자책이며 속죄

백년을 살아도 다 얻지 못할
뼈아픈 교훈을 찾은 인민이

땅을 차고 일어섰다
수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수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대답을 사뭇치며 끓는 쇠물에 담고
파도치며 설레는 나락에 담고
번개치며 돌아가는 타빈에 담고
일을 하는 사람들 달리는 인민이여

제 어깨에 짐을 더 없는것이
수령의 일감을 덜어드리는것임을
그것이 수령의 만수무강
그것이 수령을 지키는것임을
목숨처럼 자각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
다시야 그런 말이 울리겠는가

아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 노래로 진감하는 이땅 이 세월엔
그런 말이 없어야 한다
천세만세 무궁토록 영원히!

나는 시를 쓴다

주경옥

내 젊었을 그때는 미처 몰랐어도
검은 머리 흰서리 내릴수록
가슴뜨겁게 젖어드는
오늘의 행복한 우리 생활

가는 기쁨, 오는 기쁨 되새길 때면
내 언제나 화원의 꽃바다를 걷는듯 싶어
심장에 끓는 걱정
나는 오늘도 시를 쓴다
내 부르는 노래
오늘도 행복한 우리 생활
그대로 시상에 담는다

내 어둠던 그 시절엔
길가에 흩어져 짓궂히던 하나의 조약돌
그것이 나의 운명이 아니었던가
해방의 포성이 온 강산에 높이 울릴 때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 우리러
온 나라가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 터칠 때
아, 그것이 내 운명의 첫 노래가 아니었던가

내 피멍졌던 어린 가슴에도
봄향기 꽃구름처럼 피어나
붉게 휘날리던 소년단벚타이
배움의 넓은 교정에서
미래의 꽃피는 조국을
꿈처럼 안아보던 그 나날이어

아지랑이 감실대던 수행선 저 넘어
아득히 먼곳에서
내 청춘의 푸른 꿈을 불러
끝없이 철썩이던 파도소리
오늘도 나의 노래 피처럼 끓던 그 웨침

아, 가지 않는다
사랑은 세월속에 뜨겁다
위대한 수령님 자애로운 손길아래
혁신이 불타던 그 년대들에
내 흘린 땀과 함께 바라던 그 꿈은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
수억만 저 창문들에 웃음으로 넘친다

알찬 열매 향기 풍기는

저 농장벌마다
사시절 울리는 프락프르동음소리
위대한 수령님 걸으신 두렁길마다에
머리 숙여 설레는 이삭의 물결소리

추억속에 감겨드는 세월은
나의 노래
꿈만 같은 이 좋은 세월속에 안겨 사는 기쁨
내 어찌 노래하지 않으랴

저 아득한 세월속에
안겨오던 행복의 아지랑이
내 걷는 오늘의 이 대지에 피여오르는 기쁨
내 어찌 시상에 담지 않으랴

들가에 꽃들은 피어서 좋아라 향기 풍기고
사람들 근심걱정 없이
저마다 기뻐 웃고
행복의 창가마다 높이 울리는 노래
그대로 일심단결의 대화원 펼치였거니

아, 내 조국의 아름다움이여! 기쁨이여!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
수천 수만송이 꽃들에 뿌려지여
봄비마냥 소리없이 내리고있으니

심장에 피가 끓다 맺는다 해도
심장이 터져 열조각이 난다 해도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라도
나를 키워주고 행복을 안겨준
어머니 우리 당을, 내 조국을
마음껏 노래하고싶어 붓을 든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의 사랑은 끝없는 하늘
그이의 은덕은 가없는 바다
시상에 고이 담고담아
나는 시를 쓴다
백발은 찾아와도
노래는 끝을 모른다

동창생

최승우

1

화가 안우석은 삽화가로서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전문분야인 인물만화에서는 서울일판에서도 경쟁자가 드문 명수로 소문이 나있다. 묘사대상의 생김새와 거동의 특징을 회화적으로 과장하는 그의 만화들에서는 코나 입이 얼굴바탕보다 더 크거나 귀바퀴가 어깨밑까지 내려오는 얼굴도 있다. 하지만 안우석 본인의 모습은 장부다운 실직한 몸집을 보나 후덕스럽게 생긴 혈색좋은 얼굴을 보나 어느 구석 하나 허술한곳이 없이 듬직하게 균형이 잡혀있는 미남자이다.

별이 따가운 여름날, 안우석은 자가용을 몰고 남서울의 거리를 달리다가 골목의 그늘로 조심히 들어섰다. 비좁은 주차장에 차를 끼워세우고 내린 그는 차에 쇠를 잠그고 품이 혈렁한 녹두빛잠바의 아래킷을 잡아당기며 돌아서는데 걸을 지나가던 초로의 녀인이 서글픈 눈길로 자기를 훑쳐보는것을 느꼈다. 우석은 어데로 가나 녀인들의 눈길이 자기 몸을 어루쓰는것에 습관돼있었다.

그는 기분이 어지간히 좋았다. 차에는 화구상점에서 산 프랑스제의 고급채색안료가 세통이나 실려있는데다가 음식점에 들러 점심을 배불리 먹고난 뒤여서 온몸에 기맥이 팍 차흐르고 축복을 받은듯 자긍심에 뿌듯했다.

주차장을 나선 우석은 큰거리에 먼한 가까운 만화상점 《보물섬》에 들렀다. 그곳은 그의 작품이 많이 팔리는 만화전문이어서 이따금 둘러보는 상점이었다. 알루미늄음제의 자동문으로 들어선 그는 국내산과 외국산 만화책들이 빼곡한 여러개의 서가와 진렬대 앞에 많은 고객들이 서성이는것을 보았다. 아이들로부터 늙수그레한 남자들이며 저자 구력을 든 가정주부들에 이르는 각이한 부류였다. 여러명의 조무래기들이 걸표지가 화려한 우석의 만화책을 골라들고 조잘거리고있었다. 아이들의 뒤편에서는 여인 몸에 머리칼이 희숙한 녀인이 방울코의 코끝에 흘러내린 은테안경을 밀어올리며 역시 그의 그림책을 뒤적거리고있었는데 쪼프린 실눈에는 희미한 랭소가 어리고 입귀가 처진 입술이 달싹거리고있었다. 제나름의 독특한 취미가 있어보이는 그 녀자에게는 그의 그림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듯했다.

우석은 그 부인과 몇마디 나누고싶어 그녀쪽으로 다가갔다.

이때 화장을 질게 한 얼굴이 해사한 여자판매원이 그를 띠여보고 반색을 하며 말했다.

《화가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번 작품도 아주 인기예요, 쌓아놓기 바쁘게 연방 날아나지요 뭐. 그런데 참 뒤편에 손님이 기다리고있어요.》

판매원에게 인사를 보낸 우석은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 사람들의 호기심에 찬 눈길들을 무시한채 은테안경의 녀인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여보이며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암체없는... 졸작이지요?》

정직하게 살며 외롭게 늙어온듯한 녀인은 우석의 얼굴을 얼핏 살피고는 눈길을 거두고 열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 재간이 아까와요. 관찰하는 힘이나 환상을 키워주는건 좋겠죠. 하지만 생활의 진실이 없는 환상 그건 현실의 악을 가리우는거지요. 아니, 내가 주책머리없이...》

어쭙어하는 걸모습과는 달리 툭툭 쏘는듯이 주어진 녀인은 손에 든 만화책을 진렬대에 놓더니 화가에게 담담한 얼굴로 허리만 약간 꺾어보이는것으로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우석의 기분은 대번에 흐려졌다. 비난받은 그의 작품집은 지구의 소년소녀가 날개 돋힌 룡마를 타고 신기한 별나라를 구경하는 환상이야기였다. 그는 자존심의 발작으로 속이 울끈거려기도 했으나 한편 녀인의 충고에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색한김에 익살스럽게 입을 꾹 다시며 어깨를 들었다놓은 그는 그때까지 자기를 구경스럽게 바라보고있는 사람들에게 사교적으로 빙긋 웃어보이고 안쪽으로 난 어스레한 좁은 복도를 거쳐 뒤편으로 들어갔다.

원피스차림의 퐁퐁무레한 통계원치녀가 책상을 마주하고있아 계산기를 토닥거리는 곁에 밤색 바지를 입은 웬 사나이가 낡은 쏘파에 깊숙이 묻혀 얼굴에 신문을 가리우고 조용히 코를 끌며 자고있었다.

통계원이 돌아보며 해죽 웃더니 한손을 뻗쳐 손님의 어깨를 건드렸다.

《여보세요, 손님, 안선생님 오셨어요.》

사나이는 팔다리를 뻗쳐 기지개부터 켜고나서 얼굴에서 신문을 벗겨내며 마치 못해 눈을 뜨는데 만만치 않은 기질이 내비친, 뺨이 꺼진 길쭉한 얼굴에는 겹쌍인 피로의 빛이 확연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지성의 사령관이 장마당에 왕림하시다니, 여 신대육이! 기별도 없이 웬일인가?》

뜻밖에 오랜 친구를 만나 무등 기쁜 우석은 그의 옆자리에 덜썩 앉아 한손으로 친구의 어깨를 톹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에 들릴줄 어떻게 알았나? 헌데 자네 신색이 말이 아닌걸, 탈이 난게 아닌가?》

《뭘 괜찮아, 잠이 좀 밀렸나보이.》

마디굽은 두손으로 마른 세수하듯 얼굴을 문지르며 석싹한 목소리로 반응한 대육은 그제야 정기있는 눈으로 친구를 살피며 얼굴의 아래부분만 가지고 시들히 웃었다. 《자네 집에 전화로 물었더니 여길 대주더군. 그래 창작 잘되나? 보아하니 인기가 높은것 같은데.》

통계원처녀가 장부에 수자를 써넣다말고 끼여들었다.

《그럼요, 안선생님은 정말 마술사예요. 주문전수만 봐도 국내 화가중에서는 최고급이지요 뭐.》

두 사나이는 담배를 피우며 통담조로 회포를 나누었다. 그들은 시골내기로서 고교시절에 수재로 꼽힌 동창친구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재주가 뛰어났던 우석은 고등학교때엔 벌써 독특하고 품위있는 작품들을 전시회에 내어 화단 선배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에 비해 대육은 역사와 문학, 수학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두뇌를 보여주고있었다. 피래의 《파우스트》를 팔팔 암송하는가하면 철학고전을 탐독하다가 지치면 서정시를 즐기듯 대수문제를 풀면서 피곤을 푸는 《피짜》였다.

서로의 재능을 부러워한 그들은 하숙도 같은 집에 정하고 돈도 생기는대로 나누어쓰며 우정을 키웠다.

기린아로 이름났던 대육은 동창생들의 자랑이었고 교사들도 그의 빛나는 앞날을 의심치 않았다. 귀재는 의례히 재능의 날개로 그 어떤 모진 바람도 뚫고 사회의 등마루에 솟아 풍성한 영예의 각광을 받을것이였다. 헌데 운명의 통간이란 어처구니 없었다. 서울의 일류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던 대육은 운동권학생들의 이름난 기수로 맹활약하다가 권력당국의 탄압을 받고 대학에서 제적처분까지 당하고말았다. 대학사회와 결별한 그는 회사의 로동자로 인생계도를 바꾼이래 줄곧 로동운동의 고난많은 길을 헤쳐가고있었다.

그런데 우석은 어떤가. 지방대학 미술과를 거쳐 서울의 화단에 비집고 들어선 그는 재능과 근면으로 아무런 풍파도 겪지 않고 사닥다리 오르듯 성공의 정상우로 치달았다. 근년에 와서 평단에서는 그를 《만화계의 효장》이라고 취우리는 목소리까지

울리고있어 본인자신도 어느새 자기는 명에만 먹고 사는 빼어난 존재로 자부하고있는터이다.

하지만 대육이와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밝은 전등 불옆에 켜진 초불같은 존재로, 지어는 물렘치하고 죄스러운 존재로 느끼고있었다. 대육은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투사이고 그 싸움에 자기의 많은것을 바친 희생자인데 비해 우석자신은 재능을 팔아 명예와 돈을 모은 자아중심의 생활에 몰두해온것이다. 지금도 우석은 뺨이 꺼진 가무잡잡한 얼굴에 하층 사회의 울분과 고뇌가 비쳐있는듯한 대육의 침중한 모습을 얼핏 살피며 동정심에 가슴이 알찌근했다. 그러면서도 아닌보살 지어먹은 활기를 냈다.

《자네가 한번 시름없이 웃는걸 봤으면 좋겠어. 그 기지, 철학적인 익살, 번개치던 명제들 다 어델 갔어? 인생살이가 그렇게도 괴롭나? 가만있자,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어델 가서 한잔 할가?》

대육은 재가 길게 달린 담배꽂초를 재털이에 콧박아 끄고 등받이에 뒤꼴을 얹으며 흥취없이 말했다.

《관뉘, 자넨 등색이야, 선의에 찬 지혜, 그건 우점인지. 밝으니까. 하지만 세상의 비바람이 태질한 청동빛이었으면 더 좋겠나.》

《청동빛? 그건 시대를 건너지르는 대가의 빛같은데 나같은거야 어디.》 우석은 말이 난 김에 친구의 솔직한 평가를 끌어내고싶어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난 소인이고 작은 그릇이야. 내판에는 늘 개척한다고 하지만 고작 상품이고 소일거리거든, 방금 저쪽에서 한 너인의 충고를 들었는데 생활의 진실이 없는 환상은 악을 가리운다나.》

대육은 생기있는 눈길로 우석을 돌아보더니 통계원의 책상우에 얹어있는 우석의 그림책에 한손을 얹었다.

《나도 봤는데 비슷한 생각이야. 너무 떠있고 너무 현란해. 민중의 시각, 적아의 구별이 아쉬워. 그게 없다면 허까비지. 참예술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시작되는거 아닌가?》

우석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자기를 애써 낮춘 이런 경우 대방은 도의상 덕담 몇마디는 앞세우기 마련인데 대육이 대번에 쏘아대는것은 무례라고 생각하며 회색해진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담았다. 덩둘해진 통계원처녀는 대육을 얄밟게 쏘아보다가 씩하니 앞방으로 나갔다. 그러건말건 대육은 억양을 돌구었다.

《우석이, 자네 반미자주화문제같은걸 잡고 숨씨를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나. 기막힌 소재가 아닌가. 민족문제이면서 인류적인 테마지. 안그래? 근본문제를 피하다니. 자네의 예술에는 꽃이나 깃털이 아니라 쓰거운 흙을 섞고 피와 소금을 섞어야 하네.》

가슴이 더워난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고 책자함들이 주련이 쌓인 좁은 방안을 거닐었다.

《하긴 그래. 네 말이 옳다. 나도 그 문젤 생각이야 했지. 하지만 관습과 취미를 버릴수 없었어, 심장도 약했고》

우석은 대옥의 앞에 멎어서며 어조를 바꾸었다.

《속이 더 클클해나는군. 회료리가 일품인 술집있어, 아까운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나가자니까, 영.》

대옥은 응하지 않았다. 무릎에 팔굽을 박고 고개를 떨군채 길게 한숨을 내뿜고 침묵을 끝었다. 하더니 전혀 탄소리를 했다.

《자네 돈 좀 빌려주게, 있는대로.》

우석은 뜻밖이어서 어리벉벉해지며 턱을 떨구었다.

《돈을?》

《일났어. 급히 꼭 써야 할데가 있는데.》

《웬일인가. 집안에 무슨 불상사라도?》

대옥은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나 북향으로 난 창문가로 느적느적 걸어가더니 창턱을 짚고 말했다.

《내가 노동자들속에서 퍼오는 사업들이 재정난 일세. 잡지는 당장 정간할 위기야, 무가지(無價紙)인데다가 후원자들 사정까지 악화되고보니 딱 막혔어.》

대옥은 뺨 돌아서서 손세를 쓰며 말을 이었다.

《지금이 어떤 땐가. 민족의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데 자금난에 걸려 일을 망친다면 이젠 최악 아니겠나, 생각다 못해 자네한테 온거야.》

우석은 난색을 짓고 숨소리도 없이 서있었다. 그의 은행구좌에는 꽤 많은 돈이 쌓여있었다. 그돈이면 대옥의 재정난쯤은 대번에 가서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 돈은 우석의 부부가 오래전부터 특정한 용도를 정하고 아득바득 모아온것이어서 그것을 허문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었다.

《용서하게, 나같은건 자넨 친구로 사귄 자격이 없나봐!》

우석은 번들거리는 이마를 주먹으로 쿡쿡 찡으며 혜식은 미소를 지었다.

《돈은 있네, 현대 요즘 꼭 쓸데가 있어놔서... 게다가 가족경제는 너편네가... 참 딱한데...》

난감해하는 우석을 실망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던 대옥은 한손을 들어 상대의 말을 막으며 성갈지게 말했다.

《내가 미안하네. 됐어, 됐다니까. 이 이야긴 없었던걸로 하세, 그럼 잘 있어.》

대옥은 소파의 구석에 놓인 자기의 불룩한 가방에서 두툼지 않은 잡지 한권을 꺼냈다. 그것은 재정난으로 정간할수밖에 없게 된 잡지의 마지막호였다.

그는 한순간 실눈을 짓고 무엇인가 생각한끝에 웃웃 안주머니에서 얇판한 문서같은것을 집어내여 잡지의 갈피에 끼워 명칭히 서있는 우석의 손에 쥐여주며 싱긋 웃어보이고 방에서 나갔다.

벗어놓았던 잠바를 걸치며 대옥을 따라 문밖까지 나선 우석은 뜻하지 않게 비렬한 짓을 하여 소중한것을 영영 잃어버린듯한 랑패감에 잠겼다.

저바루 뺨스정류소에 모여선 사람들의 뒤편에 들어선 대옥은 어깨를 처뜨리고 한동안 서있더니 뺨스를 단념하고 저쪽으로 터벌터벌 걸어가고있었다.

우석은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애수에 잠겨 바라보았다. 저 친구는 나를 꺾어보는 량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아닐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랜기간 내내 그 존재가 꺼진듯 희미하여 감감히 잊고있었던 량심이 대옥의 출현으로 기쁨이 부여된 불꽃처럼 확 피어올라 커다랗게 이글거리는것만 같았다. 고난의 길을 헤쳐가는 저 아까운 귀재는 그를 커다란 맑은 거울앞에 세워놓고 《자, 네꼴 한번 똑똑히 봐. 너는 만화가 아니란말이나?》하고 일침을 놓고 사라진게다.

우석은 주차장에 가서 자기의 차안에 《앉았다. 습관적으로 발동을 걸었으나 곧 짜증스럽게 꺼버렸다. 생활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것만 같았다. 일감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겠으나 딱 싫었다. 운전대에 두팔을 엮걸어있고 턱을 얹은 그는 열차들쭈름으로 비치는 차도의 한 귀퉁이에 눈을 겨누채 자기의 구슬픈 내면을 더듬었다. 그러자 몇해전에 겪은 일이 서서히, 찻찻하게 밝아왔다.

...늦가을 저녁이었다. 우석은 자기 집 창가에 놓인 커다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새로운 작품집에 등장할 인물들의 초상을 초잡고있었다. 머리엔 공상이 파도처럼 일고 숙련된 붓끝에서는 다채로운 개성들이 펼쳐지고있었다. 달빛이 흰한 밖에서는 화가의 걸작을 예시하듯 등나무열매들이 터지며 씨알들이 창유리에 부딪쳐 짹짹 맑은 금속성을 울리고있었다.

그때 전화기의 종소리가 울렸다. 우석은 그림에 움한채 송수화기를 들고 무심히 이름을 뱉었다. 그러자 저쪽에서는 귀에 익은 걸걸한 목소리가 대뜸 너나들이로 호통이었다.

《짜식, 너 지금 이시각에도 출썩 꼬부리고 그림 그리지? 고단위 지체만 꺾쪽으로 저들인다며? 임마, 넌 미인과 명예에 묻혀 교묘동창생들은 썩 까먹었나. 냉큼 대광료정에 나왔! 여기 대옥이랑 차프린 홍석이, 짹불알 기철이랑 동창형님들 다 모였어.》

잇달아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더니 역시 호기와 익살을 떨며 그를 부르르고있었다. 두고온 시골의 정취와 거기서 맺은 우정의 추억이 뜨끈하게 풍기는 목소리들이었다. 우석은 지체없이 그리운 옛친구들

을 찾아 달려갔다. 제일 친했던 대옥이를 만날수 있다는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대광료정은 조선료리전문으로 손님이 많은 술집이었다. 우석은 2층의 구석진 방에 모인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그가 참지를 바른 라선희미단이를 조용히 열고 검색하러 나온 경찰같은, 지어먹은 엄중한 표정으로 방안에 들어섰을 때 풍성하게 차린 커다란 술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오륙명의 고교시절의 동창생 중로배들이 술에 얼굴히 취하여 유쾌히 떠들고있었다.

《여, 우석이, 넌 왜 늦나. 음력으로 사니?》

영화감독으로 유명한한, 은태안경밑으로 코수염이 수북한 차홍석이 먼저 우석을 알아보고 패채를 올리며 반겼다. 그러자 대옥이랑 모두들 우석을 돌아보며 떠들썩하게 반겨주었다. 그들은 서울와서 어지간히 성공한 동창들이었다. 공학교수도 있고 인기있는 소설가, 건축가도 있었다. 솟아오르지 못한것은 대옥이뿐이었다. 뛰어난 두뇌와 불같은 열정과는 반대로 학구생활조차 동진 그는 기계회사의 평범한 고급기능공으로 노동자들속에 깊숙이 머물러있는것이다.

우석은 그들이 자리를 내주는대로 소설가와 교수사이에 앉았다. 접대원이 곧 그의 앞에 술잔과 료리를 차려주었다.

《야,너희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늦게 알리구선 생색내는체하는구나, 영.》

첫 잔을 든 우석이 싱글거리며 동료들을 둘러보는데 맞은편에 앉은 대옥이 벌건 얼굴에 소년시절의 추억을 새김질하는듯한 명상적인 미소를 담고 술이 반이나 찬 커다란 맥주컵을 내들자 다른 친구들도 잔을 내밀어 우석리와 잔을 찼었다. 우석은 안주도 집을새없이 직통으로 후배삼배를 강요당했고 영화감독과 교수는 자기들의 웅근잔까지 덤테기를 썩었다.

한동안 안우석의 고교시절일화며 화가로서의 재능을 두고 여럿이 행가래치듯 취올리는가 하면 반대로 납작하게 꼭지를 눌러 바보로 굴렸다.

이야기는 다시 세상사를 두고 여러갈래로 흘렀다.

그런데 건축가 최택렬이 우석을 이상한 눈길로 쏘아보더니 진담인지 룡담인지 알수 없는 말을 걸었다.

《우석이, 넌 생판 변했어, 고교시절엔 뜨끈했지, 친구가 앓으면 남먼저 업고 병원에 가고 약도 사주고 계집애처럼 눈물도 많았지. 헌데 싹 변했어. 동창회에나 마지 못해 얼굴 내밀고 여늬때엔 아예 두더지란 말야.》

마구 내뱉는 투로 찢러댄 그는 독한 술까지 큰잔에 부어주며 강권했다. 친구의 강짜가 즐거우면서도 한편 충고에 머숙해진 우석은 뒤모름 마시고 활기있게 응수했다.

《충고 그만하면 찼찼해, 하긴 나도 변했겠지. 꽃은 해마다 같애도 인생은 해마다 달라지는거야. 하지만 난들 우정이야 왜 잊겠나. 사랑은 한때지만 우정은 한생인데.》

스스로를 변호한 우석은 곁에 앉은 영화감독에게 조용히 물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 이렇게들 모였나? 알콜로 우정을 키우자는건가?》

얌전하게 듣는것 같던 차홍식은 은태안경너머로 우석을 찼려보며 어이없다는듯 《헉-》 하고 김을 뽑더니 한팔을 들어 흔들며 동료들에게 큰소리로 이죽거렸다.

《알콜로 우정을 키운다고? 여, 우석인 안되겠어. 이 친군 녀편네에게 홀락 빠져 염통까지 바쳤어. 그러니 우리같은건 주둥이가 노오란 오리새끼쯤으로 보일거란 말야, 용서할수 있는가?》

이야기가 이렇게 번지자 반체제적인 작품을 여러편 내어 유명해진 소설가 조상길이 입과 코로 담배연기를 푸실푸실 뿜으며 끼어들었다.

《우석이, 넌 재능아다. 헌데 자식, 심장이 없어, 심장이.》

소설가는 넓은 이마로 흘러내린 희숙한 머리칼사이로 화가를 한순간 눈여겨보더니 거센 소리로 말을 이었다.

《넌 악바리 늑내들과 돼지들을 만화로 한바탕 후려갈길 용기도 없냐? 쓰러진 투사들을 부축도 해주고, 역신들의 상판도 후려갈기고, 비철거리며 교도소문을 나서는 멋도 부릴줄 알아야 진짜 이 시대의 예술가지, 안그래? 제 살을 깎으며 로동운동하는 친구를 도울줄도 알아야 할것 아닌가.》

그 말에 모두들 조용해졌다. 식욕이 왕성한 번대머리 건축가는 안주를 집으려던 저가락을 조심히 놓았다. 대옥은 겸양의 미소를 짓고 생각에 잠겨 한손에 라이타를 굴리고있었다.

우석에게는 숨가쁜 충격이었다. 그는 비로소 동창생들이 모여앉은 의미와 자기가 이자리에 불러온 리유를 짐작할수 있었다.

소설가는 잔밑굽에 조금 남은 술을 입안에 던져넣고나서 침착한 어조로 마무리를 지었다.

《뭐 에두를것 없지. 우석이, 우린 각기 량심껏 거출하여 대옥의 사업을 후원하고있어. 오늘도 그 일로 모였던거다. 대옥이가 어려운 처지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고있겠지, 우석이, 너도 성의를 표시할수 없겠니?》

우석은 몸이 줄아드는듯했다. 부드러운 숨이나 해면처럼 호사스러운 감촉을 주던 공기가 어느곁에 화끈 달아오른 한증탕속처럼 숨을 막고 그것이 다시 꺾죽한 진흙처럼 온몸을 매닥질하며 압착해오는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엄격한 눈으로 자기

의 초라한 물품을 보고 진저리를 쳤다. 그럴수록 친구들이 아직도 그를 버리지 않고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나 돈 있어 내야지, 내 내겠어!》

그는 수령창에 빠졌다가 헤엄치며 기여나오는 듯한 조급한 심정으로 열결에 항의하듯 소리쳤다. 우정으로 무어진 동창생들의 이 자그마한 량심의 동맹체에서 배척당한다면 그것으로 민중에게 중죄를 지고 세상의 버림을 받을것만 같았다.

생각에 잠겼던 대옥이 술진 눈섭을 썰룩거리며 우석을 바라보았다.

《넌 여전히 샘물처럼 맑구나. 너도 도와주겠다니 난 정말 부끄러워. 모두들 이렇게 성원하는데 난한 일이 너무 적어. 약속하마, 통일을 이룰 때까지 죽기로 힘내 일하겠다! 우석이, 고마와!》

대옥의 인사말이 끝나기 바쁘게 반대머리 건축가가 상너머로 팔을 뻗쳐 우석의 잔에 술을 부으며 말했다.

《그래 얼마나 내겠다, 액수를 불러봐.》

우석은 한손으로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생각을 굴렸다. 얼마나 넌것인가? 이 십여년간 인가화가로 많은 작품집을 낸 그는 근검절약하여 저축한 돈을 생각했다. 어지간히 큰 돈이었다. 허나 난처한 문제가 있었다. 돈을 많이 모아 좋은 집을 장만하는것이 그와 안해의 소망이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쓸모 없고 답답한 작은 집이었다. 그는 기어이 독방으로 된 웅건한 화실과 여러개의 아늑한 침실이며 너렁청한 응접실에 아담한 정원까지 갖춘 멋진 집을 장만할 결심이었다. 그래서 절약을 엄한 계율로 삼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여러날 생각한 끝에 자가용을 한대 샀는데 안해는 큰일을 망친다고 불평이 대단했다. 그통에 서로 모난 말을 뿌려대며 부부싸움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은행에 저축한 큰 돈은 불가침의것으로 남겨두고 집안에서 나도는 돈으로만 해볼수밖에 없었다. 딱한 사정을 헤아리며 속을 앓던 우석은 그로서는 지나친 객기라고 할만큼의 액수를 불렀다. 허나 그것은 동창친구들이 제각기 낸 액수에는 대비할수 없는 적은 돈이었다.

투덕투덕 박수소리가 울렸다. 우석은 어느 정도 만족을 준것으로 알고 눈을 들었으나 그 순간에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들의 박수는 도의적으로 마지못해 치는 맥없는것으로서 기쁨과는 반대되는, 경멸에 가까운것이였다. 대옥이만이 격려하듯 밝은 낯으로 머리를 끄덕여보일뿐이였다.

영화감독은 환멸이라든듯 눈을 감고 호득호득 뽕소적으로 웃었다. 소설가는 우석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조롱하듯 새끼손가락을 흔들다 말고 물마시는 닭처럼 턱을 젓히고 천정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다른 동료들은 외면하듯 눈길을 떨구고있었다.

그것은 2년전에 있던 일이었으나 그때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전혀 나아진것 같지 않았다. 주차장에 세워둔 자가용안에 앉아 그날밤의 피롭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돌이켜본 그는 운전칸에 이마를 부비며 《으-》하고 앓음소리를 질렀다.

내가 정말 자아중심으로만 사는 린색한 수전노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친구들을 사귄 자격도 없지. 나에게는 이 험난한 시대에 진실을 꿰찰 참다운 예술가로서의 심장도 없는것이 아닐가, 그런데도 대옥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변함없이 베풀고 믿고있는거야. 오래간만에 찾아와서 허물없이 돈을 꾸어달라고 청한것만 보아도 명백하지, 하지만 나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

그는 이런 생각에 괴로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할 구실을 찾고있었다. 아니다, 돈을 꾸어줄수 없다, 가정을 일신할 오랜 갈망을 이루어내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버티어야 하는거다. 친구들이 나와 나의 인생을 대신해줄수는 없지 않은가. 일단 마음을 가다듬은 우석은 다음순간에는 벌써 후사경에 얼굴을 비쳐보며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다듬어지고 중량감을 풍기는듯한 자기의 남성적인 미모에 만족을 느꼈다. 차를 몰고 차량들이 빼곡이 흐르는 큰길에 나서면서 속도를 높인 그는 록음기를 틀어 쇼팡의 서정적인 피아노곡을 즐겼다.

2

집으로 돌아온 우석은 랭커피를 한잔 마시고 곧 창작에 달라붙었다. 매일 밤낮으로 그리는 련속만 화였다.

침실을 겸하고있는 그의 화실은 넓지 못하고 침침한데다가 굵직한 가구들이 많아서 비좁았다. 게다가 자질구레한 일용품들과 많은 책이며 가지수를 헤아릴수 없는 그림도구들이 사방에 복잡하게 널려있어서 산만하기 이를데 없었다. 하지만 이 방주인에게는 그 모든것이 나름대로 편리한 질서를 이루고있었다.

책무지와 그림초안이며 화구들이 가득 없어있는 커다란 책상을 마주하고있는 그의 붓끝에서는 재미있는 형상이 태어나고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의 기량을 믿고있었다. 가늠이 정확한 환상적인 두뇌와 숙련된 손, 엄격하고 세밀한 눈은 3위1체가 되어 무엇이냐 마음 내키는대로 정복할수 있었다. 대상의 기조를 이루는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본질을 대담하게 과장할줄 아는 그의 인물화들은 본인보다 더 흡사하다는 평이였다.

헌데 웬일인지 오늘은 그림이 잘되지 않았다. 붓은 달렸지만 눈은 거부했다. 그는 어느때같은면 어

렵지 않게 처리했을 장면을 벌써 세번이나 다시 그렸으나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찢쩍 혀를 차며 개탄한 그는 그림에 가위다리를 뻗백 치고는 맥을 놓고 등받이에 뒤굴을 었었다.

한동안 그런 자세로 있던 그는 기분을 바꾸려고 회전의자를 돌려 서가에서 읽을 거리를 찾았다. 그 제서야 신대옥에게서 잡지를 받아지고와서 탁자우에 던져두었던 생각이 났다. 그 책을 찾아든 그는 쏘파에 편안히 앉아 심심풀이로 그것을 뒤적거렸다. 잡지의 재질이나 꾸밈새는 서글플 정도로 질박했으나 내용은 꽤 알차고 무게가 있다는것이 대뜸 느껴졌다. 거기에는 노동문제로부터 자주통일문제에 이르는 중대한 사회정치적과제들이 민중적시각에서 날카롭게 분석되고있었다.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던 방안에 갑자기 세상의 매섭고 쓰거운 바람이 밀려들어 소용돌이치는듯했다. 그것은 자본과 온갖 비리에 저항하는 무수한 수난자들이 터뜨리는 성난 언어의 바람이었다. 안정을 잃은 우석은 자기도 그중의 한 성원인 민중의 고뇌와 울분에 찬 목소리에 가슴이 저렸다. 키를 넘는 파도처럼 연방 덮쳐드는 매서운 언어속에는 하나의 인간상이 그려지고있었다. 그것은 신대옥이었다. 점점 뚜렷한 형상으로 다가오는 대옥은 민족적갈망의 응결체인듯한 엄청난 짐을 지고 한결음한결음에 간신히 체중을 옮기며 숯불같은 눈으로 꿰치고있었다.

《너는 구경만 할테냐?》

귀아닌 온몸으로 그 목소리를 들은 우석은 무엇인가 저도 몰래 지은 잘못을 두고 용서를 빌고싶은 심정과 함께 심장속에 뜨끈한 아픔을 느끼며 잡지를 손에 든채 벌떡 일어섰다.

그때 책갈피에서 얇팍한 문서같은것이 새여떨어졌다. 주어보니 뜻밖에도 위장용 결표지가 붙은 지하인쇄물이었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었다.

반사적으로 놀란 우석은 숨소리도 없이 서있었다. 그는 동시에 두렵지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권력자들이 그렇게도 사갈시하며 단속하는 문서가 아닌가.

우석이도 가까운 동료들과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서 이 강령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전해듣고 충격을 느낀바 있었으나 문헌의 완전한 전문을 보는것은 처음이었다. 현대 묘한것은 이 중요한 문서를 우석이 자신이 용렬한짓을 하여 대할 낮이 없는 대옥에게서 받은것이였다. 대옥은 나에게서 몇번이나 실망을 맞보고도 아직도 소년시절의 깊은 우정을 간직하고 나를 인생의 벼으로 바라고있는것일까?

한순간 착잡한 생각에 잠겼던 우석은 급히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문서에 주의를 모았다. 몰두하여 읽는 그는 산릉선을 오를 때처럼 마음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있었다. 문장마다 거역할수 없는 진리

였다. 그것들은 가슴속에 흘러들어 날날이 벌처럼 반짝이는가 하면 무수한 성좌의 흐름을 이루어 정신의 온 공간에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와 함께 이전에는 감감히 잊고있었거나 스쳐보았던 주변의 모든것이 새로운 의미로 돈쳐올라 부르고 눈짓하고, 그의 심장 또한 그 모든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있었다.

민족이란 그 품에 한번 태어나면 죽어서도 하늘 끝에 흘러가도 떨어질수 없는 무조건적인 불가피성이였다. 매 개인의 운명은 그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민족의 운명과 직결돼있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에서는 관조자가 있을수 없었다. 민족의 통일도 자주성도 매 사람이 그것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가치를 바치며 애써 투쟁할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나의 피할수 없는 사명이 아닌가. 그러니 민족의 통일은 모든 《나》가 주인이 되며 뼈심을 바쳐 지어야 하는 자주적인 삶의 집이 아닐가!

우석은 강령의 어떤 부분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하여 단숨을 내뿜며 몇번이나 거듭 그 의미를 분석하여보았다. 강령에는 분명 리념과 제도우에, 세상의 모든것우에 민족이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솟아있었다. 민족애가 있는 사람이면 그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의주장을 가지고살건 상관치 않고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뭉쳐 통일의 길부터 열자는것이였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지향하는 통일, 국가가 민족을 이루고있는 모든 계급계층을 빠짐없이 안아주며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있는 온갖 채부와 기득권까지 지켜주며 그들모두를 민족의 번영속에 축복해주는 것이였다.

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랑이구나 하고 우석은 생각했다. 이 강령의 원소도 재질도 세부들과 전체도 겨레에 대한 구원의 사랑이였다. 그 사랑은 현실의 매 개인을 그대로 품어주는가 하면 민족전체를 력사의 등마루에 추켜올려주며 거기에 참된 삶과 번영이 약속된 자주의 무한한 지평선을 펼쳐보이고있었다.

가슴이 더워난 우석은 의자의 등받이에 머리를 었고 눈을 감고 쏘삭거렸다.

《아, **김일성** 주석, 그분은 정말 대단한분이구나!》

우석은 남쪽의 위정자며 정당인, 학계며 언론계에서 각이한 시기에 나름대로 낸 통일론의들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완전하거나 편파적인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위정자들의것은 결위장을 한꺼풀만 벗기면 분단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속심과

《승공》이나 《복침》야욕이 북벌처럼 도사린 어치구니없는것들이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분단체제를 자기의 존재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기생해온 위

정자들이야 공명정대한 통일을 꿈이나 꿀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도대체 민족의 공동리익이나 번영은 생각할 능력도 소지도 없지 않을까. 그들이 말한 통일은 북침야욕의 가면일수밖에.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통일강령은 그 바탕과 틀거리부터 완전히 변혁적인것이 아닌가. 통일되기전에도 통일된후에도 모든 형태의 기득권까지 고스란히 보호할것을 구체화한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특정한 당파나 계급의 리익을 완전히 초월하여 명실공히 민족과 통일을 절대가치로 추켜든 비상한 민족애가 불타고있지 않은가. 얼마나 밝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길인가. 다른 길은 없다. 나도 민족앞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면 이길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흥분한 우석은 두손을 머리에 얹고 방바닥을 굽어보는가 하면 실눈으로 천정을 쳐다보며 연신 움지력거리고있었다. 중산층의 사고방식과 생활관으로 정치적인현상을 불안서린 관조의 눈길로 보는데 습관된 우석은 가장 복잡한 정치적인 대제속에 깊이 잠겨들면서도 한줄기 불안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흐뭇한 충족감에 취해있었다.

이럴즈음 현관문이 여닫기는 소리에 이어 대학에 다니는 아들 명훈이 활기를 풍기며 방안에 들어섰다.

《계셨군요. 주무세요?》

허우대 큰 명훈이 쭈뼛거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뭘 좀 읽느라고...》

아버지가 마치 못해 대답했다.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어두운데.》

그러구보니 어느덧 황혼도 꺼진 어스레한 저녁이다. 명훈은 천정등을 켜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야, 이걸 10대강령이군요! 아버지,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책상우에서 문서를 들고 뒤적거리던 아들이 놀라와했다. 그 어떤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더구나 정치론의를 싫어하던 아버지가 이런 문서를 읽는다는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명훈이었다.

《읽으신 느낌 어떠세요?》

그때에야 머리를 든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좁은 방안을 오락가락하더니 옷장우에 놓인 겨울모자를 무심히 써보고는 도로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니라〉 하는 소리, 난 믿지 않아. 말씀은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걸 정말 민족과 통일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고 커다란 광명이야. 난 오늘에야 그 빛앞에서 처음으로 나의 참모습을 알아본것 같다. 부끄럽지만 어떻거니, 이걸 사실인걸.》

명훈은 눈이 점점 커지며 벌썬 웃더니 부엌으로 뛰어나가 다반에 술을 쟁겨들고 왔다. 그들은 쏘파에 사이를 두고 나란히 앉았다. 명훈은 향기로운 술이 차랑차랑한 잔을 아버지에게 들려주며 자기의 잔에도 술을 부어 들었다.

《넌 이 술에 무슨 의미를 주고있는것 같은데...?》

《의미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흥분을 안으로 묻은채 한동안 마주보았다. 명훈이 먼저 눈길을 떨구고 어눌한 소리로 말했다.

《그 강령의 비상한 의미를 리해하신 아버지가 고맙고... 그리고...》

《고맙다니? 하긴 난 아직 방청석이겠지. 그리고 또 뭐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저의 자부심을 찾을수 있게 된것이, 아니 그럴 가능성이 생긴게 기뻐요.》

《넌 리념씨클을 하더니 되게 날카롭구나. 이제까진 이 아버지가 부끄러웠단 말이지... 네가 옳은것 같다. 현대 나같은 달팽이가 다른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가?》

《있어요. 건. 넘려놓으세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

마주보던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통일강령을 놓고 한동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우석은 상반신을 웅크리고 주먹으로 이발을 꺾꺾으며 생각에 잠겼다. 하더니 실눈을 짓고 중얼거렸다.

《이걸 그림으로 옮길수 없을가. 자꾸 눈에 살아오거든, 조항마다 주제가 명백하겠다, 안될것 없지. 그렇지, 이거야말로 멋들어진 소재가 아닌가! ...》

흥미있고 가치있는것을 보면 무엇이냐 그림으로 그리는것이 그의 습관이였다. 그림그리기는 그의 사색과 즐거움의 출발점이고 중점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탄성을 질렀다. 10대강령을 조항별로 그림으로 옮길수 있다면 그런 그림책은 분단시대가 남긴 통일지향의 문화유산으로 후세에도 길이 남을것이라고 했다. 명훈은 한참 떠들더니 학우들을 만나야 할 시간이라면서 급히 뛰어나갔다.

우석은 문서를 서랍에 간수하고 쏘파에 누웠다. 그는 여전히 그 강령을 그림으로 그럴 생각을 이어갔다. 많은 사회문제들을 개괄하고 그것을 고도의 집중력으로 응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만큼 가치는 클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발표하는 경우 청와대의 위정자들이나 그들의 상전들은 아연해할것이고 그에 따라 화가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길수 있다. 그대신 민중은 더없이 좋아할것이다.
용기를 내어 그러볼것인가. 그만둘것인가?...

우석이 쓰아에 누워 궁싯거리고있을 때 그의 안
해 박진희가 밖으로부터 향수대를 풍기며 들어섰다.
허리통이 굽어지고 머리칼빛이 다소 바래어졌을뿐
아직도 몸놀림이 가볍고 길쭉한 얼굴엔 젊은 시절
의 미모가 많이 머물러있는 초로의 부인이다. 그녀는
힘찬 동작으로 옷장문을 열고 꽤 화려한 겉옷을
활활 벗으며 제홍에 취해 떠들었다.

《아유, 귀굴같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이제껏 살
았을가. 아이 숨막혀, 빨리 이살 가자요. 옮겨가 살
집은 정말 궁전이에요. 오늘은 아예 복덕방의 채봉
삼씨를 데리고가서 그 집 정씨를 만나 정식 예약까
지 땀었지요 뭐. 그것도 엇그제 흥정한것보다 팔십
만이나 더 깎아서, 어때요, 숨씨 이만하면 일품이죠?
당신 나에게 특별 써비스 잇음 안돼요.》

진희는 턱을 찢히고 눈을 핏기죽거리며 웃었다.

그는 벌써 여러주일전부터 주택소개업자들을 내
세워 이사갈 좋은 새 집을 물색하느라 분주했는데
그 일이 락착을 보게 된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집은
파산하여 빚에 물리는 기업가가 어쩔수 없이 팔게
된 번듯한 2층양옥이었다. 우석은 가보지 않았으
나 안해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분수에는 더이상
의것을 바랄수 없는 훌륭한 집인것 같다. 이십여년
간 아글타글 막대한 원고료를 저축한 우석이 친구
들에게서 수전노취급을 당하면서도 고집스레 지켜
온 가정계획이란 바로 멋진 좋은 집을 마련하여 이
사가는것이였다.

《그렇게 좋은 집을 쥐었다면야 푸짐하게 널만도
하지.》

우석은 누운채 씩씩히 웃으며 대답했다. 속옷까
지 벗고 하르르한 실내옷으로 바뀌입은 진희는 남
편의 허리께에 앉아 소녀처럼 신이 나서 재잘거렸
다.

《피나게 절약한 보람 인제야 꽃이 폈죠. 당신 돈
수표만 넘겨주면 그 집은 우리꺼. 아이 좋아, 그 파
산한 주인령감 불쌍하더군요. 아마 그 집 잃고는 간
이 마를거예요.》

진희는 남편의 가슴에 었었던 반지가 새물거리는
보통보통한 손을 거두어 자기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달가운 꿈을 펼치고있었다.

《두고보세요. 내 그 집을 기딱막히게 꾸리지 않
나. 우리 침실, 당신의 화실, 응접실과 명훈에게 줄
방이랑 식당을 겸한 주방이랑 다 넉넉하고 멋지게
요. 지하실과 차고도 탐탁하고, 정원엔 은행나무도
뒤그루 서있죠. 그밑에 돌사자라도 하나 났으면!
어때요, 그만하면 잠수부같은 고생살이 면하고 유
람선에 올라 파파 늙을 때까지...》

우석은 자그마한 조각품과 그림액자들이 없어있
는 천정구석을 멀거나 바라보며 입귀에 어설픈 미
소를 짓고있었다. 그 역시 안해의 말을 들으며 새집
으로 옮겨갈 꿈을 꾸고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꿈을 실망과 유감의 눈으로 지켜보는 제3자가 있었
다. 그것은 만화상점에서 만난 신대옥의 존재였다.
꺼머무트름한 여윈 얼굴에 고뇌와 피로의 빛이 박
힌 대옥은 무엇인가 무거운 일감을 안고 이쪽을 돌
아보며 쏘는듯한 눈길로 찌르고있었다.

우석이, 너는 이 수난의 세월에 저혼자를 위해서
만 사는것이 부끄럽지 않니? 그렇게도 소원이면 어
서 새 집에 옮겨가려무나. 하지만 잊지 마. 너의 창
문이 높아질수록 너의 예술은 더욱 병들어 시들것
이고... 벗들은 친구의 명단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
버릴것이다....

우석은 온몸으로 이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2
년전에 술집에 모인 동창생들앞에서 수치를 겪던
장면이며 오늘 낮에 대옥에게 실망을 준 장면이 확
다가서고있었다. 우석은 부지중에 신음하며 벽쪽
으로 돌아누웠다.

《당신 왜 그래요?》 진희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의아해하였다. 《갑자기 새 집에 가는게 싫어진건
아니겠조? 혹시 저축한 돈 나 몰래 어데 소비한게
아니예요?》

《걱정마, 돈은 그대로 있어. 한데 나 좀 혼자 있
게 해줘. 주기적으로 오는 우울증이야. 제발 나가
줘.》

덩돌하여 일어난 진희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남편을 쏘아보다말고 랭기를 풍기며 부엌으로 나
갔다.

얼마후 우석은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통일강령을
다시금 읽으며 그림으로 그릴 개소들을 열심히 모
색하고있었다.

온 방안에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3

강풍이 불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저녁이었
다.

우석은 자가용을 몰고 대옥의 집을 찾아 큰길로
부터 각종 점포들이 빼곡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라
지오는 지금 내리는 폭우가 제주도와 다도해쪽을
엇비듯이 휩쓸고있는 태풍의 영향이라고 알고있
었다. 차체를 후려대는 바람소리, 비소리가 요란하
고 차창밖은 아직 해가 지기전인데도 물보라속에
어스레했다. 전조등의 불빛도 비에 잠겨 부엌게 광
도가 죽고있었다. 길바닥에 떨어진 간판들이 몇개
째나 차바퀴밑에서 부서졌다.

한동안 달리던 우석은 우중충한 한 살림집의 옆 모서리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 대옥이 살고있었다. 대옥을 한시바삐 만나고싶었다. 그것은 몇주일째 잠을 설치며 생각을 굴린끝에 정해진 결심으로서 이제는 일종의 갈증처럼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비닐비옷을 쓰고 차에서 내린 그는 비껴지는 비 발속에서 아래도리를 화락하니 적시며 두세개의 현관앞을 헤매다가 겨우 낮익은 현관을 알아보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너무도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집이어서 얼터름했던것이다. 쿼퀴한 냄새가 풍기는 좁고 어두운 층계를 톱아오른 그는 땀끼칠한것이 군데군데 떨어진 자그마한 문앞에서 초인종의 단추를 눌렀다.

이윽고 안쪽에서 쇠가 벗겨지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리며 몸이 갠땀하고 눈매가 어질어보이는 대옥의 안해가 손님을 의아스레 쳐다보더니 짜근 손벽을 치며 환성을 질렀다.

《아유, 난 또 누구라고, 안선생님께서 웬일이세요. 기별도 없이 이 험한 날씨에 ...》

그 녀자는 안쪽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여보, 누가 오셨는지 좀 봐요.》

두개의 방문이 련달아 열리며 대옥의 숙성한 아들과 꽤 어여쁜 딸이 달려나와 헤실거리며 인사를 하고 그뒤로 대옥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엇, 우석이! 이거 어떻게 된건가?》

대옥은 너무 뜻밖이고 놀라와 한동안 멀뚱하니 바라보다가 우석을 자기의 방으로 이끌어들었다.

넓고 초라한 집이었다. 50년대말에 마구잡이로 지은 하류급 아파트로서 구조도 시공도 저질인데다가 어테를 보아도 가난이 어려있었다. 우석은 사오년만에 이 집에 온셈인데 값진 집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전등빛이 불गत한 대옥의 방에서 새롭게 눈을 끄는것은 긴 쏘파뿐이었다. 책이 천정밑까지 있어있는 구식책장옆에는 원고지들이 가득 널린 책상과 일감이 물려있는 재봉기가 놓여있었다. 그옆에는 많은 낡은 옷가지들이 촘촘히 걸려있거나 구들에 널려있었다. 부인이 부업으로 옷수리를 하고 있는것이다.

대옥의 안해 최수란은 우석의 바지가 젖은것을 걱정하며 갈아입을 옷과 타올을 권했다. 우석은 쏘파에 앉아 타올만을 받아 젖은 바지를 대충 닦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래 앓던 숙탈은 좀 나았습니까. 그 몸으로 부업까지 하다니, 정말 열심히 사는군요.》

《어찌겠어요. 내가 이런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걸요. 학비랑 술한 세금 누가 대어줍니까. 들볶이우는 재미에 살지요 뭐.》

구들에 널린 옷들을 지함에 건어놓던 수란이 책상을 대충 정돈하는 남편에게 어리광스럽게 힐난의 눈길을 던지고나서 그냥 조알거렸다.

《안선생님, 우리 주인 제발 따끔히 쏘아주세요. 봉급 타도 언제나 집엔 한푼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썩썩이쪼뿜. 운동비요, 구제비요 하며 사방에 뿌리다 못해 내가 피나게 번것까지 몽청 잘라 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이슬 먹고 사는 매미도 아닌데 ...》

《거 쓸데없는 사설 판두고 얼른 상이나 푸짐히 차려요.》

대옥이 우석의 곁에 와서 앉아 안해의 말을 꺾으며 가부장의 권위를 세웠다. 수란은 방긋 웃어보이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는 찾아온 손님이 귀빈일수록 가정살림을 돌보지 않는 남편의 고질적인 습벽을 고해바치곤했다. 현대 눈치없이 바가지를 굶는 듯한 이러한 외관속에 실상은 큰일을 하는 남편에 대한 자랑이 은근히 풍기고있었다. 거기에는 놀려사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한 투사인간들의 어쩔수 없는 고달픔과 세파에 할퀴우고 쓰러지면서도 그 고뇌의 무게에서 오히려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들의 거센 락천주의가 번뜩이고있는듯싶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있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이따금 비발이 창문을 때리곤 했다. 쿵쿵한 우수를 몰아오는 그 소리는 모든것을 휘덮어적시며 가슴속까지 불안개를 채우는듯했다.

《그래,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사연이 있지, 보고싶었으니까. 넌 아마 내가 밋고 불쌍하겠지, 졸장부니까.》

《뭘 그러나, 그런 소리 난 뉘.》

《난 졸장부지만 뉘가 좀 새롭게 살고싶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없인 못살겠어.》

《히, 똑 뉘애하는 소년갈구나. 그런 소리 하려고 폭우를 뚫고왔어?》

《난 워낙 모방하는건 무엇어건 질책이다! 하지만 너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도라도 닮고싶어. 그 뭐랄가, 구실을 하고싶어 ...》

둘은 나란히 앉아 서로 눈을 피한채 푸접기 없이 말을 주고받았다.

우석은 생각에 잠겨 무겁게 일어서더니 책상앞에 가서 안주머니에서 지갑과 수첩같은것을 꺼내어 펜으로 몇자 써넣으며 부시력거리다가 자그마한 종이장을 가지고와서 그것을 대옥에게 내밀었다.

대옥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것은 돈 수표였다.

《너 운동자금 떨어져서 고생이지. 그런걸 내가 용출해서 도와주지 못했어... 성의니 받아주게. 늦어져서 미안하다. 귀주는게 아니고 회사하는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석은 마치도 가해자가 피해자앞에 용서를 비는듯한 모습이였다. 대옥은 수표와 우석의 얼굴을 번갈아 눈여겨보는데 놀라는 빛이 가득했다. 수표엔 너무도 엄청난 금액이 또렷이 적혀있었던것이다.

《이러지 마. 이렇게 많은 돈을? 액수를 잘못쓰지 않았나? 이걸 특별한 목적이 있어 모은 돈 같은데. 말하게 웬 돈인가?》

우석은 어깨를 들었다놓으며 쓸쓸히 웃었다. 그 돈은 그와 안해가 좋은 새 집을 마련하려고 오랜 기간 모진 마음 먹고 저축한 돈의 전부였다.

담배가치를 뽑아붙인 우석은 들이킨 연기를 푸실 푸실 날리며 마치 못해 말했다.

《뭐 별것 아니야, 난 집이 작아서 큰 집 하나 마련하려고 원고료를 모아왔던건데... 그까짓 새 집 관두겠으니까 걱정할것 없어.》

대옥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는 어금이를 지끈 지끈 깨물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고맙다, 그 지성! ... 하지만 받지 않겠다. 이러질 말고 새 집을 사, 화실도 변변치 못하질 않나. 자네도 그렇지만 부인은 또 얼마나 섭섭해하겠나, 이런 안돼!》

우석은 눈물을 짜던 안해를 생각했다. 너렁청한 좋은 새 집을 끌라놓고 그렇게도 들떠 돌아치던 안해는 남편이 목돈의 특별한 새 용도를 알리자 놀라고 실망하여 푸념을 했다. 몇번이나 말싸움이 벌어진끝에 안해도 생각이 깊어지긴 했으나 남편의 결심이 최종적인것임을 알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난 몰라.》하고 목멘 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우석은 오랜 생활체험에 비추어 안해의 이런 투정은 반송낙을 뜻함을 알고있었다.

《내 처도 조선민족이네. 제집마련보다 통일의 집을 짓는데 부조하는것이 더 초급하다는것쯤은 알것 아닌가.》

우석의 말에 대옥은 주먹으로 코끝을 문지르며 난감해하더니 마주 일어나서 확고하게 말했다.

《네 고집 꺾을것 같지 못하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수표를 다시 쓰라. 액수를 반액으로!》

《뭐, 반액?》

우석은 친구를 매섭게 쏘아보며 수표를 돌려주는 그의 손을 억세게 밀어부쳤다. 그는 벌겋게 달아올라 킁킁 막히는 소리로 항의했다.

《건 말도 안돼, 나같은건 이 정도의 용기도 결맞지 않다는건가?... 반액? 내가 다시 반액으로 고쳐 쓴다면... 그런 구지레한 정신으로 어떻게 살라는가?! ...

사나이들끼리 뭘 그래. 탁 주고 탁 받는거야. 말없이...》

찌근거리며 팔을 뻗어 내젓던 우석은 이 문제는 더 논의할것도 없고 설사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는듯 아예 돌아앉고 말았다.

대옥은 친구의 마음씨가 놀라운 그만큼 난처하기만 했다. 받아들이는것도 매우 미안했지만 거절은 모욕으로 될것이다. 그는 인상적인 말로 우석을 칭찬하고싶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뜨거운 말도 어색하다는것을 알고 묵묵히 머리를 떨구었다.

이런 때 우석은 잠시 주뭇거리다가 웃웃 안주머니에서 비닐에 정성껏 싼 노트같은것을 꺼냈다. 주저주저하며 뱃의 눈치를 살피던 그는 손에 든것을 자신없이 뱃에게 내밀며 어설피게 웃었다.

《혹시 쓸모가 있겠는지 좀 봐주게.》

대옥은 덩덤히 비닐포장을 풀어보았다. 우편엽서의 뒤배 되어보이는 여러장의 뾰뾰한 절지가 나왔다. 첫장을 번진 그의 눈에 갑자기 섬광이 튀고 종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항별로 주제를 세워 선명하게 형상한 련속그림책의 초안이었다.

그것을 그리느라 여러날 고심해온 우석은 숨소리도 없이 굳어졌다. 뱃의 평가여하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것만 같아 그는 불안어린 눈길로 상대를 살폈다. 헌데 그림카드들을 얼핏얼핏 번저본 대옥은 날카로운 눈길로 그를 쏘아보지 않는가. 눈동자가 웃눈시울에 반이나 가리워진 커다란 눈에는 가벼운 충격에도 터질것 같은 위태로운 정열의 덩어리가 리성의 고삐에 간신히 잡혀있는듯했다. 그 바람에 우석은 덩달아 놀라 웃음을 드리기까지 했다. 그는 자기의 그림에 전혀 자신이 없었다. 화가로서 그렇듯 거창한 내용이 담긴 정치적문건을 그림으로 옮겨보려고 한 자세는 그런대로 지지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령의 매 조항에 대한 주제선택의 각도와 형상의 질에서는 확신이 없었다. 더구나 정치적 감각과 지성이 뛰어난 운동가인 대옥에게 충족감을 준다는것은 거의나 바랄수 없었다.

그런데 대옥은 의외로 우석의 무릎을 아프게 틀어쥐며 탄성을 지르지 않는가.

《정말 놀랍다. 대단해! 네가 이렇게 장한줄은 몰랐다.》

《?!...》

대옥의 흥분이 감동때문임을 비로소 알게 된 우석은 그의 반응이 너무도 격렬한것에 열떠름하여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대옥은 다시 그림을 들고 책상에 달려가 탁상등을 켰다. 하더니 급히 돋보기를 쓰고 그림을 촘촘히 펼쳐놓으며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실눈으로 응시하는가 하면 바싹 다가들어 그림우에 눈알을 굴리기도 하는 품이 여간한 열중

이 아니었다. 한동안 몰두해있던 그는 두손을 들어 호기있게 휘두르며 책 돌아서서 환희가 재글거리는 눈으로 우석을 돌아보며 탄성을 연발했다.

《우석이, 이건 대작이다. 민족자주의 대서사시다! 난 아직 이런 걸작은 본일 없어. 그러구보니 10대 강령은 그대로 창작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미학의 보물고로구나. 재능이란 무엇이겠니. 시대와 민족의 갈망이 담긴 근본문제에 육박하여 그걸 개성적으로 웅변하는 능력이지. 넌 네 키보다 백배나 뛰어들었어.》

대옥은 손날로 호기있게 공기를 썰며 말을 이었다.

《약간한 부족점은 보이지만 그건 별것 아니야. 날 카롭구 거창하고, 통쾌하다. 온 민족이 벌린 거창한 통일의 대하가 가슴을 팡팡 때리는구나.》

얼굴이 벌개진 우석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무릎짚에 두손을 지르고 비비적거리며 단숨에 토했다.

《아니, 서투른 초안인데 뭘 그러냐.》

《초안이 이 정도니 완성하면 얼마나 기막히겠나.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해냈니? 넌 워낙 정치적인 건 피해왔는데.》

우석은 머리를 떨구고 더듬더듬 말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저도 몰래 확 끌려들었던 거야.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네가 준 문서를 읽어보는 사이에 내 좌표를 새롭게 찾았다고 할가.》

자기를 주시하는 대옥을 살핀 우석은 여전히 더듬거렸다.

《난 요새 줄곧 그분을... 김일성 주석을 생각했어. ...어쩌면 그렇게도 도량이 크신가! ... 저마다의 리해관계로 뚫어대는 온 민족을 통채로 품어주시지 않았는가. 그 품을 거역하는거야 사람인가? 짐승이지. 나도 때늦게나마 의리를 생각했어. 그림이라도 그려서 사죄하고싶었어!》

우석의 한마디한마디를 삼키듯이 듣고있던 대옥은 그림을 모아쥐고 우석의 옆에 와서 앉더니 흥분을 누르며 말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 정말 훌륭하다. 난 너를 환경에 매워사는 먼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솟아오르다니... 10대강령이 너를 이렇게 높여주고 우리를 동지로 맺어주었구나.》

고개를 젖고 독백하듯 말한 대옥은 빛나는 눈길로 동창생을 돌아보며 열기를 뿜었다.

《사람의 진실은 그의 행위에 있지. 그러니 우석이, 너는 그분을, 그분을 그렸어. 겨레에 대한 믿음을 그렸고 사랑과 단결을 자주와 통일을 그렸으니 그게 바로 그분의 영상이 아닌가!

강령을 봐 그분은 량심의 조각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건 어지럽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민족이라는 공분모에 태워 이끌어주셨지. 난 확신하

네, 김일성 주석은 민족의 통일이고 통일조국이니네!》

대옥은 물기어린 눈을 습벅이며 열띤 미소로 내심의 흥분을 감추고있었다.

우석에게는 그의 말이 고마운 격려이면서 정신을 온통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자기가 시작한 그림이 그렇게도 가치가 있다는것도 놀라왔거니와 대옥의 인간상은 더욱 놀라왔다. 이 가무잡잡한 사나이는 가장 예민한 정치적인 사상을 자기의 리성뿐만아니라 감성과 량심의 밑바닥에까지 깊이 받아들인 철저한 신념의 투사가 아닌가. 이제까지의 대옥은 큰 경륜을 품은 수난자로 쳐다보이면서도 한편 학구생활에서 떨어져 비상한 두뇌를 켜고있는 불쌍한 불운아로 보였다. 그러나 천만에! 그는 민족의 근본문제를 안고 로동하는 민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싸우는것을 다시없는 궁지로 삼고있는 이름없는 영웅인것이다.

우석은 어쩌면 이 만남이 발단이 되어 자신이 대옥이와 더 깊이 뗄어지고 그것으로 하여 단순한 그림쟁이였던 자기가 어떤 값지고 고결한 인생을 엮어낼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뻗듯했다. 동창생들이 자기를 신수가 멀쩡한 리기주의자로 보고있는것을 아프게 여겨왔던 그는 자기도 위대한 사업에 몸을 던지고싶은 충동에 속이 쿵쿵했다.

《나도 도와줄테니 꼭 걸작으로 완성하게.》

대옥이 밝은 얼굴로 성갈지게 말했다.

《먼저 여러쪽의 대형병풍에 그리면 어떻가. 선동적인 스타일로.》

《아, 그래 대형병풍에! 좋아, 꼭 그렇게 하겠어.》

우석이 눈을 빛내며 활기를 냈다.

《진한 색깔로 선이 굵직하게, 알만해. 선동적으로 확확 두드러지게! 한편으론 책으로도 내고.》

대옥은 다시 우석의 무릎을 쥐며 호기있게 말했다.

《그 그림책은 내가 운동권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출판하겠어.》

그들은 반한 런인들처럼 벗의 손을 틀어쥐었다. 그리고는 서로 상대의 목에 팔을 둘러 힘내거나 하듯이 조이며 부둥켜안았다. 하나로 엉킨 그들은 벗의 뜨끈한 체온과 심장의 박동에서 잃어버린 그 어떤 값진것을 찾아낸 희열에 취했다.

《이자식, 죽인다 죽여...》, 《이자식, 내 태권도 8단이다...》 간간이 룡말과 함께 공공 갑자르며 몸을 뒤틀던 그들은 균형을 잃고 방바닥에 나뒹굴고서야 팔을 풀고 헐떡거렸다.

대옥은 술을 빨리 가져오라고 부엌에 소리쳤다. 그러자 기다렸다는듯이 대옥의 안해와 딸이 꽤 풍성히 차린 술상을 맞들고 들어왔다. 웃음과 익살로

떠들썩했다. 우석에게는 독한 술이 꿀처럼 달았다. 병약한 대옥의 안해조차 잔을 거뜰히 냈다. 겨끔내기로 뿌러지는 유쾌한 룡담과 창문을 때리는 세찬 비소리는 또하나의 혼합주를 이루어 기분을 돋구었다.

한동안 흥이 나서 즐기던 우석은 녀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그림초안을 비닐종이에 깐깐이 싸서 간수하고 일어나 말했다.

《빨리 가서 이걸 완성해야겠어.》

대옥은 따라일어나 만류했으나 우석은 고집이었다.

대옥은 황홀했다. 어쩌면 영영 잃을것만 같던 소심하던 친구가 동지로 바싹 접근하여 키를 솟구며 이렇게도 놀라운 아름다움을 거둬 펼치다니!

엎드려 절을 하고싶었다. 눈물이 글썽해진 그는 한팔을 뻗쳐 우석의 어깨를 안아당겼다.

그러나 반사적으로 몸을 뺀 행복한 우석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바람처럼 방에서 빠져나갔다. 대옥과 그의 안해가 따라오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어스레한 계단을 내려달린 그는 세찬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바깥에 나섰다.

자기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며 그것을 깊이 알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술래잡기하듯 내쫓을 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즐거운가.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이슬이 반짝이는 짓푸른 초원을 망아지처럼 향방없이 달리고있었다.

번개가 벅긋거리며 우중충한 거리의 룡박을 드러내더니 둔중한 천둥소리가 울렸다.

우석은 고개를 젓히고 달아오른 얼굴에 서늘한 비를 맞으며 청년시절이래 처음으로 텅굴고싶도록 격렬한 환희를 느꼈다.

숲속에 눈 내릴 때 외 1편

리광근

함박눈 함박눈
울창한 숲속에 첫눈에 좋아
마음 흥그로이 걸음 옮기니
집떠나 그 몇날 손자들 생각
눈송이에 실려 아지에 내려

문득 내앞에 애솔포기 하나
눈내린 어린 아지들끝에
파란 솔잎들이 한들한들
어쩌면 팔벌린 손자들의 손짓인듯

이끌려 한걸음
눈덮인 애솔잎, 가버이 쓸어보니
들려왔네 귀익은 손녀의 목소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안아줘요

눈에 삼삼

삼삼히도 어려왔네
달려와 안기는 귀여운 손녀
뒤늦게 둥기적거리는 심술군 손자

귀여워 안아주며 불을 비비니
내 불에 마쳐오는 어린 애솔잎
-아이, 꼭꼭 찢려요
또랑또랑 들려오는 그 소리
제살불이 품에 안는 정이 아니면
어이 들으랴
머리들어 애솔포기만 바라보는
아 애뜻한 이내 심사

울창한 숲속에 눈은 내리고
어린 아지를 편 애솔에도 내리고
돌아보고 돌아보아 눈덮이는 숲
자꾸만 파고드는 손자애들의 목소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태어날 때, 떠날 때

내 세상에 태어날 때
울음을 터치며 태어났어라
아마도 눈뜨자 처음 바라본
내 어머니의 여윈 얼굴에서
눈물겹던 그 세월을 바라보았던가

아 설음겹던 내 눈에 해빛이 비치
그날에야 나서 처음 웃음을 담았나니
이 웃음을 노리는 총탄도 막아
세상을 떠날 때도 웃으며 가리
내 눈에 티없이 담고가는 그 웃음이
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에 남아있도록!

어머니의 모습은...

위철현

돌아보면
저 멀리 연한 산
거기서도 더 멀리
아직도 어린 내가 뛰놀고있는듯
내 자꾸 나무우에 오르면
어떻게 아셨는지 어김없이 달려오던
아 그 흰 저고리어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나에게 제일 선참 떠오르는
동구밖 그 잣나무숲

지금도 나의 머리우에
시원한 그늘 던져주는 그 숲속에서
내 눈빛 별처럼 반짝이게
옛말도 자주 들려주었으니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정이 묻어나게 오늘도 내 가슴 흔들어주는 그
속삭임

때없이 밤늦어 집에 들어서도
기다려 식지 않던 가마안의 밥
새벽닭 우는 소리에 깨어나면
부시도록 눈길 끌던 흰 빨래들...

그 모습이더라
고향을 떠나던 날 정히 싸주던
지금도 가슴에 애뜻한 향수로 남아있는 잣주머니
그냥 오랜 서계시던 그 모습
자꾸만 따라서며 내졌던 손길인양
아, 푸른 들 한가운데 뻗어간 그 고향길

내 홀로 먼산 오지길을 걸을 때면
주저앉지 말라고 따라서던 고향의 달빛이여
바람 세찬 개밭지의 낮과 밤
보고 또 보아 보풀이 인 편지의 글발이여

어디 가도 그 어디 가도
때로는 종아리에 내려지는 아픈 채찍처럼
때로는 눈비속에 마주앉던 모닥불의 온기처럼
세월을 넘어 내 곁에 있는 변함없는 그 사랑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자욱자욱에 함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대바르게 살라고
조국앞에 나를 세워
무성한 잎새를 펼쳐주는
보이지 않는 아 그 뿌리...

《대통령》 하나

김남주(남조선)

성조기아래서
《한국》이 태어나고 마흔 몇해
그동안 《대통령》도 서너개 태어났다 죽었다
하나를 제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섬으로
끌려갔다
하나를 제 집에 살지 못하고 절간으로 쫓겨났다

성조기아래서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여러분의 한사람으로
태어난다
왜 내 머리는 리아무개 박아무개 전아무개 하면
나를 친애까지 했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폭력배, 사기꾼, 모리배, 매국노, 반역자...

그따위 못된 이름으로밖에 떠올라지 못하는것일가
내 입이 워낙 더러워서 그러는것일가
내 심보가 워낙 교약해서 그러는것일가

나 태어나 이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의 《대통령》 하나 갖고싶다
나 죽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대통령》 하나 갖고싶다

자본가들 헌금이나 미국산 총구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니라
산과 들에서, 공장에서, 조국의 하늘아래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대통령》하나

력사의 해 1994 년이여!

장원준

싱그러운 청솔의 가지우에
깨끗한 눈 소복이 쌓아놓고
가는 이해
못간다 가면 안돼
발버둥하는 이 마음을 뜨겁게 끌어주며
그래도 간다고
저 멀리 긴 노을수건을 들이 흔드는
1994년이여!

생각도 많구나, 눈처럼 깊은 사연
백천줄기 내리는 그사이로
고요히 사색단을 짜며
대지가 온통 하얀옷 펼쳐입고
이해를 바래올 때

아, 내 지금껏
이렇게 아프게 해와 작별하기는 처음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쁜 춤과 즐거운 노래를 펼치던 밤
은은한 제야의 종소리라고
가는 해와 오는 해가 서로 굳게 포옹하던
그 송년의 밤들이 떠올라...

샘도랑인양
자꾸만 내 눈굽엔 더운것이 흐르누나
나라사정이 어렵던 그 나날엔
인민들과 같이 조밥도 드시며
근로하는 보통사람들을 하늘로 믿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그 한평생 못잊어

그렇다, 하늘우에 태양이 있듯
그 만고의 좌우명앞에 머리숙인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나니
조용히 눈을 들어 굽어보는 수평선
이밤도 마중오는 새해의 그 한끝을 가늠해보며
목메여 우르르 위대한하신 그 영상이여!

진정
동터오는 미래는 세월이 준것 아니어서
더더욱 간절해지는 마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계시기에
그이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행복에 겨워
봄썩을 움뿔우며 이랑은 동면을 모르고
분명 감미로운 새 희망을 만져보며
인민을 천백배의 힘안고 일어나 내닫는것 아니냐

친애하는 그이를 받들어
땅보다 많은 난알이 방방에 쌓여지고
막장에선 드바빠 석탄과 버력이 갈라지며
레루우의 송전선은 렬차의 바퀴를 힘차게 굴러
붉은기를 단 혁명의 배는
만선의 기쁨넘쳐 새해의 첫 진군길에
들어서는것이여라

아, 1994년이여!
가는 해는 다시 오마 약속을 아니 남겼어도
우리앞에 더 밝은 래일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계시여
가슴속 뜨거운 송년의 이밤은
사회주의 싱싱한 아침이 되여 이 땅에 찾아오려니

정녕, 열두달 바뀌면 한해는 가는가
내리는 저 하얀 눈발 사이로
추억과 리상의 고운 무늬를 놓으며
광휘로운 태양의 연무속에 웃는 세월이
내 삶에 한나이를 보태줄 때

굳이 작별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
천년의 끝에서 만년은 시작된다는 철의 법칙을
세우면 초불처럼 짙그리 태울
이 신념의 불으로 저 하늘가에 새겨가노라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사회주의 이 강산에
미래를 불러 희망찬 새 세기를 당겨온
력사의 해 1994년이여